



The Women's Studies

2020 년 1 호

| 연구논문 |

- | | |
|---|-----------|
| 또 하나의 빈곤 포르노그래피: 소녀와 생리대 | 김양희 |
| 한국 기혼 여성의 세대별 성역할 태도 차이에 대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중심으로 | 이정윤 · 김주현 |
|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최부경 · 안지영 |
| 사관생도의 인구통계적 변인, 교육경험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
육군 K사관학교를 중심으로 | 정병삼 |
|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 권예지 · 차유리 |
| 부모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 | 주익현 · 채철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또 하나의 빈곤 포르노그래피: 소녀와 생리대
/ 김양희 5
2. 한국 기혼 여성의 세대별 성역할 태도 차이에 대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중심으로
/ 이정운·김주현 29
3.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최부경·안지영 63
4. 사관생도의 인구통계적 변인, 교육경험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
: 육군 K사관학교를 중심으로
/ 정병삼 97
5.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 권예지·차유리 125
6. 부모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
/ 주익현·채철균 153

또 하나의 빈곤 포르노그래피: 소녀와 생리대

김양희*

초 록

이 글은 빈곤, 기아, 재난재해, 교육, 식수, 위생, 범죄위험, 젠더기반폭력 등 여러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구호단체들의 과도한 후원모금광고의 부정적 효과인 빈곤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청소년의 일회용 생리대로까지 확장된 계기와 그 스토리텔링을 살펴보고,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 논한다. 지난 2016년 생리대 제조회사들의 가격 인상을 즈음해 불거진 '깎창 생리대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일종의 빈곤 스토리텔링이었다. 이것이 후원광고 소재를 찾고 있던 국내 구호단체들의 필요와 만나 한국보다 더 가부장적이고 가난한 개도국 빈곤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후원광고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광고는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소녀들이 생리기간 동안 겪는 고통을 탈맥락적, 탈역사적, 자의적, 선정적으로 전시하고 이미지 대상을 무능력하고 열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낙인찍는다. 이것이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상당히 다른 감정적 맥락을 갖고 있다. 전자가 곤경에 빠진 인간을 도와주고 싶다는 동정, 연민, 나아가 죄책감의 감정을 통해 기부를 유발하는 반면, 후자는 '마땅히 가려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하는 자'와 '그것을 봐야 하는 자' 간의 수치심의 공유, 그리고 생리하는 여성의 동물성에 대한 혐오에 기인한다. 그런 면에서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감정적 토대는 생리에 대한 혐오와 수치심,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놓여 있다.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첫째, 여성의 생리 사건을 탈역사적, 탈사회적으로 만들고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규범과 가치체계를 은폐한다. 둘째, 여성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생리하는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가장자리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생리와 여성 건강 문제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에게 피해자 이미지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무능력한 소비자 이미지를 덧씌운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주제어: 빈곤 포르노그래피, 월경, 생리대, 후원모금광고, 수치심, 혐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emily111@nhis.or.kr)

I. 문제제기

빈곤 포르노그래피(poverty pornography)는 빈곤의 노골적인 전시와 피해자 이미지를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도덕적 죄책감을 유발함으로써 기부하게 만드는 빈곤 구호광고 이미지의 부정적 효과를 이르는 말이다(김주아·현은자, 2019; 이민영·윤민화, 2015; 이광재, 2018; Runswick & Goodley, 2015; Calain, 2013; Clissold, 2010). 이것은 빈곤, 재난, 질병, 고통 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이미지를 탈맥락적, 탈 역사적으로, 과도하게 전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화하고 낙인찍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빈곤과 기아 뿐 아니라 재난재해, 교육, 식수, 위생, 범죄위험, 젠더 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등 여러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빈곤 포르노그래피가 여성청소년의 일회용 생리대로까지 확장된 계기와 그 스토리텔링을 살펴보고, 감정적 맥락에서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공통점과 차이를 논하고자 한다. 분석의 목적은 국내 비영리 후원단체들의 생리대 후원광고가 단면적이고 탈맥락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개도국의 가난한 소녀들을 타자화하고 여성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공통점 중 하나는 극단의 고통과 결핍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필요(needs)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사회적, 감정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감정의 측면에서 볼 때 전자가 보는 이들에게 죄책감이라는 윤리적 감정을 심어줌으로써 기부하게 만드는 기제를 가졌다면, 후자는 ‘수치심’(마땅히 가려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과 그것을 지켜보는 자의 수치심), 좀 더 밀고나가 ‘혐오’를 자극함으로써 기부하게 만드는 기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빈곤 포르노그래피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죄책감을 바탕으로 이타주의를 ‘권유’한다면,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수치심의 공유’를 자극한다. 이어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함으로써 돈으로 생리대를 사서 생리하는 몸을 은폐하기를 바라는 감정, 즉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기부를 유도한다. 감정도 사회적 규범이나 학습 등 사회화와 관련된다고 본다면, 생리대 구호광고의 감정적 기조를 사회적 맥락에서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부정적 효과는 여성의 생리건강을 개인적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묶어 둘 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생리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함께 생리하는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적 통념을 유지시킨다. 이밖에도 여성 생리에 대한 가부장적인 금기와 은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소비자, 여성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왜곡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반복한다. 그런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힘을 갖게 되면 즉, 다수의 암묵적 동의를 얻게 되면 또 다른 편견과 차별로 작동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목하고 그것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내 구호단체들의 빈곤 구호광고 가운데 신발깎창 생리대 사건이 후 해외 빈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후원광고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과 이미지 분석을 시도했다. 그리고 문헌고찰,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감정의 사고적, 인지적, 평가적 속성에 비추어 해외 생리대 후원광고의 감정적 맥락에 깃든 사회규범과 가치에 주목했다. 특히 수치와 혐오와 관련해서는 미국 철학자 마사 너스바움(Nussbaum, M.)의 논의를 인용해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감정적 기조에 여성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가치관과 규범이 스며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빈곤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비판

비영리조직에서 모금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나 이미지에서 윤리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음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이민영·윤민화, 2015; Calain, 2013). 구호단체들이 피해자 이미지를 모금에 사용함으로써 인본주의 가치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비밀보장, 존엄성, 법적 보호 침해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지를 제공한 사람들과의 이익 분배나 소유권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구호단체들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눈물 한 방울에 수 천 만원이 모이는’(이민영·윤민화, 2015:268), 모금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빈곤한 자들의 고통을 단편화한 이미지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단체들은 후원모금광고에 대역을 써서 최대한 불우한 모습을 연출하여 ‘빈곤 마케팅’이란 비판을 받는다.¹⁾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고통과 배고픔을 극대화한 이미지를 통해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Clissold, 2010). 국내 비영리단체 후원 모금 광고에 나타난 아동, 청소년의 이미지는 주로 광고 속에서 주역할로 등장하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부모나 조부모 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외로운 가족문제를 안고 있는 피보호자/피부양자로 형상화된다고(김주아·현은자, 2019). 동정심 유발이 후원모금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호단체들은 모금효과를 위해 낙인형 메시지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한 우려와 비판을 의식하여 영상속의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는 가치배제형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는 광고영상을 통해 빈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낙인 형성과 유지를 영속시키기에 여전히 문제적이며 국내 후원단체들은 부정적 메시지의 효과를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김주아·현은자, 2019: 433-434).

사실 기금모금 실무자들은 재정적 필요와 윤리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 이민영과 윤민화(2015:251)는 비영리단체 기금모금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빈곤 포르노그래피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여줄수록 더 많은 기부가 쏟아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여전히 피해자 이미지를 지속해서 노출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이렇게 과장된 피해자 이미지는 사실처럼 왜곡돼 피해자를 낙인찍거나, 사회적 가치 체계 사이에서 윤리적 긴장을 일으킨다. 칼라인(Calain, 2013)은 피해자 이미지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신체(suffering body)’의 이미지화가 윤리적 관점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체계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한 간극을 은폐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적 아이콘 만들기(iconography)에서의 재현이 익명의, 말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희생자라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279). 그는 고통당하는 신체의 인도주의적 재현과 의료 윤리간의 긴장을 포착하기 위해 생체의료윤리의 4가지 기본원칙인 자율성(autonomy), 베품(beneficence), 무해성(nonmaleficence), 정의(justice)를 신체 재현에 대입해 보라고 제안했다. 자율성은 합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유지(confidentiality)를 통해서, 정의는 무착취와 이미지 생산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무해성은 법적 보호와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고 베품은 ‘행동’과 ‘증거

1) 한국일보(2019.12.12). “대역써서 최대한 불쌍하게...자선단체 ‘빈곤 마케팅’”.
<http://hankookilbo.com/News/Read/201912111215738693?did/>

(temoignage)’를 통해 확인된다. 칼라인은 여기에 낙인방지와 존엄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쾌하거나 과도한 극단의 고통/결핍의 전시를 피함으로써 존엄성을 보호하고 낙인화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빈곤 포르노그래피’ 또는 ‘기아 포르노그래피’는 구호단체들의 재정적 필요에 의해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고자 빈곤한 자의 고통과 결핍을 과장되게 전시하는 이미지를 유통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탈맥락적, 탈역사적 피해자화로 만들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및 법적 보호, 존엄성, 낙인 등 윤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2. 죄책감, 수치심, 혐오

감정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통념과 달리 감정은 법, 정책 등 공적영역의 운영 원리로도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달리 이타주의의 추구는 종종 복지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이타주의에 근거한 영국의 현혈제도가 혈액은행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혈액제도에 비해 수급 조절 등 비용절감 면에서 우월한 것을 보면 이타주의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티트머스 지음, 김윤태·윤태호·정백금 옮김, 2019). 형법에서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별칙스티커제도처럼 수치심을 주는 형벌이 채택되는 것도 또 다른 증거가 되겠다(너스바움 지음, 조계원 옮김, 2015).

일부 철학자들은 감정이 비이성적,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는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감정의 인지적, 판단적, 평가적, 규범적 속성에 주목한다(Lazarus, 2003; Solomon, 2003; Calhoun, 2003; De Sousa, 2003, Nussbaum, 2003). 미국 철학자 솔로몬(Solomon, 2003)은 감정(emotion)을 느낌(feeling)과 분리했다. 그에 따르면 느낌에는 방향성이 없지만 감정은 방향성을 지닌다. 예를 들면 그냥 “화가 난다”는 ‘느낌’과 “누구의 어떤 행동에 대해 화가 난다”는 ‘감정’은 다른 것이다. 감정은 합리적, 의도적인 것이며 행동을 동반한다. 화가 난 사람은 화를 발산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감정은 규범적, 도덕적 판단이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선택할 수 있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Solomon, 2003: 227-229). 여기서 더 나아가 캘혼(Calhoun, 2003)은 감정에는 믿음(belief)과 판단(judgement)이 포함되므로 자신의 믿음과 상반된 감정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237-239).

너스바움(Nussbaum, 2003)은 감정에 평가적(evaluative) 속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한 감정에는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사고’와 ‘평가’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감정은 욕구나 느낌과 달리 한 사회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중시하는 ‘규범과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대상에 대한 ‘평가’를 동반한다. 너스바움은 감정이 평가를 동반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사소한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소한 무시에도 화내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만 두려워 한다”(너스바움 저·조계원 역, 2015: 63)고 말한다.

그렇다면 후원모금 광고를 접한 시청자는 어떤 윤리적 감정을 느껴 모금에 동참하는 것일까. 위 논리에 따르면 동정심도 사고를 동반한다. 동정심이 생기려면 타인이 심각하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사고’와 함께, 타인의 그 곤경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포함된다. 여기에 덧붙여 국내 연구자들은 구호모금 광고 이미지가 보는 이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기부에 동참한다고 분석했다(김주아·현은자, 2019; 손민정·이승조, 2016; 이민영·윤민화, 2015; Calain, 2013; Clissold, 2010). 이중 손민정과 이승조(2016)는 국제 구호메시지에서 죄책감의 효과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남을 돕는 동기는 크게 이타적(altruistic) 동기와 이기적(egoistic) 동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타적 동기는 남을 돕는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타인의 안녕에 있는 것이고, 이기적 동기는 자기 이익이나 행복 추구에 있다.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부정적 정서로서 죄책감의 보상행동으로 ‘돕기’라는 행동을 유발한다(97). 국제 구호모금광고를 보거나 들을 때 생기는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을 면제받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라기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이 줄어들길 바라는 이타적, 타인중심적 정서라는 것이다.

이민영과 윤민화(2015)는 비영리단체의 재정적 필요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빈곤과 고통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모금실무 당사자의 윤리적 딜레마를 통해서 죄책감과 기부와의 관계를 조명했다. 국제구호메시지에서는 빈곤, 배고픔, 질병, 열악한 주거환경, 치안, 범죄 피해위험, 젠더기반폭력 등에 취약한 피해자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하여 기부에 나서게 만든다. 이때 빈곤, 고통, 눈물과 굶주림이 강조될수록 모금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피해자, 희생자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여성 생리에 대한 문화, 사회적 인식과 변화

월경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종교와 사회에 걸쳐 부정적이었다. 생리하는 여성은 ‘불결, 위험, 저주, 불길’하다는 이유로 생리기간 동안 공동체와 가정, 종교의식, 일상생활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어야 했다. 카운달과 타쿠르(Kaundal & Thakur, 2014)에 따르면 힌두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많은 주류 종교 전통에서 생리하는 여성은 불결과 불길의 대상이 되어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일례로 힌두교에서는 생리하는 여성을 더럽거나 오염됐다고 생리기간동안 외딴 곳에 떨어져 살도록 했다. 생리하는 여성은 머리를 빗거나, 목욕도 할 수 없게 금지했다. 음식을 조리할 수도 없고 식기도 따로 쓰도록 했다. 사원에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예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다. 가축을 기르거나 차를 탈 수도 없다. 일부 공동체에서는 생리기간동안 생선과 고기를 먹지 못하게 금지했고 공공장소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았다.

유대교에서는 생리기간동안 여성과 남성의 물리적 접촉을 금지했다. 함께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손을 잡거나 차를 타는 것도 금지했다. 기독교에서는 여성이 성직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리하는 여성에 대한 터부를 이용했다(Kaundal & Thakur, 2014:193). 생리하는 여성은 더럽고 불결하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다. 심지어 생리중인 여성이 하늘을 바라보면 날씨가 나빠진다는 터부가 있을 정도였다. 이슬람교에서는 생리기간동안 여성의 사원 출입과 기도실 출입을 금지했다. 생리 중에는 라마단기간 동안에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코란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

불교는 여성 생리에 대한 터부가 심하지 않지만 생리 기간에는 결혼식 등 불교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시크교에서는 생리하는 여성을 불결하다거나 불길하다고 여기지 않고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다고 보아 터부가 심하지 않았다.

네팔에는 생리중인 여성을 외딴 오두막에 격리시키는 ‘차우파디’라는 관습이 있다. 생리기간 동안 격리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거나 동사하거나 화재로 사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네팔 정부가 이를 법률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지대 농촌에서는 아직도 이 관습이 남아있다²⁾. 인도에서도 생리기간 동안 여성을 격리하는 관습이 유사하게 남아 있다. 생리하는 여성을 더럽게

2) 서울경제신문(2019.2.4.). “네팔의 여성 생리기간 격리 ‘차우파디’ 관습...21세 여성 또 숨져”. www.sedaily.com/NewsView/1VF6K41X43

여겨 목욕을 하지도, 머리를 빗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음식을 조리하지도, 사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생리하는 여성 주변에서 땀을 발견하면, 이 땀이 눈이 멀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Kaundal & Thakur, 2014:193).

한국사회에서도 월경은 오랫동안 “숨겨야 할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들은 생리를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은폐’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했고, 공공장소에서 생리혈이 노출되는 것은 극도로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행위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부터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던 여성과 생리에 관한 담론들은 주로 “생리하는 몸을 은폐해야 한다”는 규율을 위주로 형성되었다(이영주, 2018). 이 규율은 학교, 직장, 가정 등을 망라한 모든 공간에서 여성들이 학습해야 할 필수규범이 되었으며 생리 관련 담론의 주를 이루었다. 그 사이 생리대 제조회사들은 일회용 생리대의 접근성, 흡수성, 사용 간편성을 광고하면서 여성들에게 생리기간 동안 완벽한 은폐와 자유를 선사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한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한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일회용 생리대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또한 70%를 넘고 있다(박현영, 2019).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생리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는 ‘건강’ 차원보다 ‘문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생리가 여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한 지식보다는, 생리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재현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생리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 부정, 터부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 많은 여성청소년들은 월경을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 “사회적인 금기”, “조심해야 하는 것”, “변겨롭고 귀찮고 힘든 것”,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박은자·배정은, 2019). 이는 월경을 타인에게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이처럼 월경에 대한 부정적 문화와 사회규범을 바꾸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이들은 월경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없고 여성 건강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지은(2018: 229)은 생리문제를 공개적인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음지화된 생리 이슈를 공적인 문제로 만듦으로써 여성이 제대로 생리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여성의 생리에 대한 성재생산 건강권 논의는 신체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몸-젠더-섹슈얼리티의 재생산 경험

을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의는 생리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논의할 수 있는 문화정치’를 주장함으로써, 여성의 생리를 공적인 장에서 여성문제의 하나로 문제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2017년 여성단체를 필두로 불거진 일회용 생리대 사태와 그로 인한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는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 여성환경연대가 시판 일회용 생리대 10종을 대상으로 강원대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유해물질 검출조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불거졌다.³⁾ 가임기 여성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물질 조사결과는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 논란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다.⁴⁾⁵⁾ 이를 계기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관련 주장이 시민청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 접수되었다.⁶⁾⁷⁾ 결국 그해 9월 15일 정의당이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역학조사를 위한 청원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실시됐다.⁸⁾⁹⁾ 이는 지금까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처리해왔던 일회용 생리대와 그로 인한 여성 건강 문제를 공적인 영역에서 ‘발화(speech)’하고 철저한 조사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한 ‘사건’이었다. 비로써 여성 생리대와 생리 건강 이슈가 공공의 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조현희 외, 2018; Park & Chung, 2018). 이를 계기로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 논의가 시작되었고

-
- 3) “여성환경연대 검출시험 생리대 10종 제품명 공개.” SBS뉴스, 2017년 9월4일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77875
 - 4) 서주희·김만구(2017), “생리대에서 방출되는 VOCs 방출시험조건 확립”, 2017.5, 한국분석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분석과학회, 269쪽.
 - 5) 서주희·나소영·김만구(2017), “시판중인 생리대에서 방출되는 VOCs의 농도 실태조사”, 2017.5, 한국분석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분석과학회, 270쪽.
 - 6) 청와대 국민청원, “발암물질 생리대 즉각 단속하고 대안 마련에 힘써주세요.”(2017년 9월 18일~2017년 10월18일, 참여인원 8,030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05>
 - 7)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 여성들은 돈이 없으면 깔창 생리대를 쓰고, 돈 있으면 발암물질 생리대를 써야 하는가.”(2017년 9월23일~10월23일, 참여인원 2,159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370>
 - 8) “정의당, 생리대 안전성 역학조사를 위한 청원 제출” 2017년 9월 15일자, 뉴시스, <http://news.join.com/article/21939536>
 - 9)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정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을 환영한다.”(2017년 11월 30일)

일회용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III. 분석

1. 생리대 후원모금광고를 촉발한 ‘깔창 생리대’ 스토리텔링

한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후원모금광고 소재로 부각하게 된 계기는 뜻밖에도 지난 2016년 일회용 생리대 제조회사들이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생리대에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생리대 제조사들은 2-3년마다 가격인상을 공지해왔다. 2016년 또다시 가격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일회용 생리대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판과 더불어, 돈이 없어 일회용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여성들의 딱한 사연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중 일회용 생리대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킨 결정적인 사연 두 가지를 인용해 보겠다.

“저희 학교 선생님 제자 분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생리하는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수건 깔고 누워있었대요. 선생님이 문병 가셨다가 알게 되시고 제자분이란 선생님이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한겨레신문. 2016년 5월 29일자).”

“저 어릴 때 집이 가난하고 편부 가정이라 신발 깔창으로 대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얘길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국민일보. 2016년 5월 26일자).”

위의 두 이야기는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생리하는 여성 대부분은 일회용 생리대 가격이 빈곤 여성청소년이 감당하기에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였다. ‘빈곤 여성청소년의 신발 깔창 생리대 이야기’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번져갔고 일회용 생리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정연보,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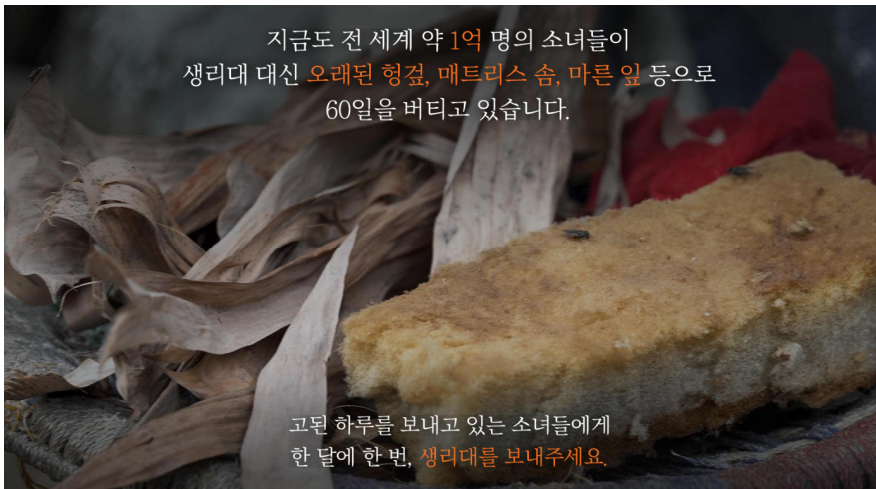
그런데 생리 때마다 학교를 결석하고 수건 깔고 누워있거나,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해야하는 가난한 여성청소년의 이야기에서는 사실 그 ‘사건’의 ‘당사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¹⁰⁾ 신발 깔창 생리대 사건의 결정적

계기였던 위의 두 사연에서도 당사자는 보이지 않고 이야기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당사자가 부재한 ‘얼굴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저에 일회용 생리대 가격이 빈곤 여성청소년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임이 분명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리하는 여성 대다수가 생리대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시작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다. 서울시가 공공화장실에 일회용 생리대를 비치했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일회용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참여했다.

일회용 생리대 후원은 국내 구호모금광고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어 한국을 넘어 개도국 여성청소년에게로 변주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시작한 깔창 생리대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개도국 빈곤 소녀들의 생리대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에 대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여성들의 곤경은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개도국일수록 더 심할 것임이 분명하기에 빈곤 여성청소년의 일회용 생리대 문제는 해외 후원광고에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었다.

생리대 후원모금광고는 다른 광고와 달리,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한 이미지보다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원광고는 비주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때는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지만 비주얼로 전달이 어려울 때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국내 구호단체의 해외 빈곤 여성청소년 생리대 후원광고는 전형적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례로 한 구호단체가 제작한 ‘네팔 소녀의 오두막’이라는 광고는 생리 때 마다 오두막 안으로 사라져야 하는 한 소녀가 있음을 알려면서 시작된다. 청초한 소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광고사진에 이 예쁜 소녀가 생리 때 마다 사라져야 하는 딱한 사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어진다. 소녀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리 때문이며 생리대가 있다면 생리기간마다 오두막으로 사라지지 않고도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그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리고 생리대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낡은 스펀지, 천, 지푸라기 등을 보여주면서 빈곤을 강조한다.

10) 일반적으로 ‘사건’이라하면 사건의 당사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 깔창생리대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신문기사, 방송뉴스 수집 건을 인터넷에서 찾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당사자를 거론한 매체를 찾기 어려웠다.



자료: 월드비전 홈페이지

[그림 1] 생리대 후원모금광고

이 광고 어디에도 생리대 없는 소녀의 고통은 등장하지 않는다. 슬픔과 눈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광고를 접한 사람은 발화자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생리대가 없어 소외당하고 배제되는 소녀의 고통에 간접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또 다른 국내후원단체의 생리대 후원광고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생리대 부족을 말하며 여성의 곤궁한 처지를 호소한다. 역시 스토리텔링방식으로 구성된 이 광고는 14살 아프리카 소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생리대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학교에서 첫 생리를 맞은 소녀는 친구가 급하게 돌려준 옷으로 가리고 집에 돌아온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생리대 대신 쓰라며 낡은 천을 쥐어준다. 손녀는 그 천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생리통을 참아내고, 할머니는 이런 고통이 세대를 걸쳐 내려오고 있음을 아래와 같은 인터뷰 형식을 통해 말한다.



자료: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그림 2] 생리대 후원광고

일회용 생리대는 비싸서 살 수 없고 대신 낡은 천 등 비위생적인 것들로 생리대를 대신해야 했던 과거와 지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할머니의 회고는 손녀에게 주는 조언이라기보다는 생리하는 여성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세대를 이은 한탄과 영속화로 들려온다. 생리대가 없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은 질병에 걸린 환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묘사된다.

2. 혐오와 수치심

위의 광고에서처럼 구호 메시지와 감정은 분리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한 자의 고통이 극대화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보거나 듣고도 아무런 윤리적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구호메시지는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정한 이미지는 보는 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것이 이미지의 효과다.

포르노그래피를 비판한 랭턴(Langton, 1993)에 따르면 말(speech)은 궁극적으로 어떤 행위(acts)를 유발하거나 듣는 이로 하여금 행위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포르노그래피는 말이자 행위다. 그 두 가지를 더할 때 포르노그래피는 발화행위(speech acts)가 된다. 거칠게 말하면 발화는 3가지 효과/행위를 갖는다. 첫째, 발화 그 자체 둘째, 발화를 통해 발화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셋째, 그 발화를 통해 성취하려는 결과가 그것이다(Langton, 1993:300- 303). 발화행위는 단순한 단어나 이미지의 조합이 아니라 발화자의 의도, 권유, 명령, 지시, 설득, 교사 등이 내포돼 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유발하거나

결과를 피한다. 예를 들어 구호모금광고에 등장한 가난한 사람의 고통 이미지는 그 자체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발화자/기획자는 그 이미지를 통해 이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게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발화를 접한 사람(시청자)은 기부를 통해 기획자의 의도를 달성한다. 이것이 랭틴이 주장한 발화의 3가지 효과/행위다. 이때 발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두 번째 발화행위/효과가 중요하다. 두 번째 발화행위가 제대로 전달되고 시청자가 그것을 승인할 때라야 발화자가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 발화행위에서 메시지의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감정일 수도 있다. 굳이 말을 붙이자면 감정발화행위(emotional speech act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호모금광고에서 이미지 또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획자의 의도대로 최고조의 감정을 끌어내 기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랭틴(1993)이 포르노그래피의 발화행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발화자와 대상 간의 힘의 불균형이다. 발화를 통해 특정한 행위를 결과로 얻는다는 것은 발화자가 힘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아무 힘없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새치기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경찰이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면 금방 줄을 서지만 초등학생이 그렇게 말하면 코웃음을 칠 수도 있다.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목청껏 자기주장을 말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인 것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줄서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도와줘”하면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금방 그/녀에게 다가가 관심을 표명하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 말 대로 움직여 줄 것이다. 이때 그 쓰러진 사람은 자신의 발화를 통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순간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우월한 내’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윤리적 감정을 가져서이지, 그 발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동참한 것은 아니다.

이때의 윤리적 감정은 그 바탕에 대상의 열등성(inferiority)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발화를 들은 청취자가 ‘돕고 싶다’는 윤리적 감정을 내기 어렵다. 이미지 대상이 발화 청취자보다 더 ‘우월’하다면 그것은 이미 타의에 의한, 즉 힘에 의한 명령, 지시, 권유, 설득의 차원이자, 자의에 의한 원조의 감정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빈곤 포르노그래피에서는 가난한 자가 열등할수록 시청자로부터 ‘자발적인’ 원조 감정을 최고조로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빈곤 포르노그래피에서의 이미지, 스토리텔링, 서사(narrative)는 사실 열등성

의 그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이 기존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피해자 이미지가 극단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일수록 기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같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유사성, 공감,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대상과 나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다. 소사(Sousa, 2003)는 감정의 객관성을 주장하면서 감정은 ‘대상’이 있어야 발생되고 세계 그 자체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은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정의 대상은 그런 다양한 타인의 정보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때 대상과 감정은 상호 구성적이다(249). 대상이 없으면 감정도 없는 것이다. 소사는 대상 없이 일어나는 감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관계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대상이 나 자신과 유사할수록 감정의 밀도와 공감대가 높아진다.

이는 너스바움(2015)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녀는 동정심이 고통의 당사자와 그것을 보는 자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동정심에 관한 그녀의 분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동정심은 고통을 겪는 사람과 이에 공감하는 사람을 연결시키는데, 자신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취약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동정심이 지닌 가장 큰 힘 중의 하나는 상대방을 취약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유사성에 대한 사고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상상을 통한 감정이입행위를 통해 강화된다(101).”

하지만 빈곤 포르노그래피에서 기부를 유발하는 감정이 동정심 또는 죄책감이라면,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그것은 또 다른 감정적 맥락을 갖고 있다. 전자가 동정심을 심층감정으로 한다면 후자는 동정심과 함께 수치심과 혐오도 동반한다. 생리혈을 보이지 않게 은폐해야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거나, 지키지 못하는 자에 대한 수치심의 공유가 그 안에 있다. 마치 공공장소에서 나체 여성을 발견했을 때 옷을 덮어줌으로써 ‘당사자의 수치심’과 ‘보는 자의 수치심’을 가리는 마음과 비슷한 것이다. 생리대가 없어서 생리혈을 보이는 것은 규범을 어긴 것이므로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때 감정이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나아가 생리혈을 공적 장소에서 보일 수 밖에 없는 자에 대한 잠재적인 혐오의 감정을 통해 기부를 유발한다. 기부자는 돈을

주어 생리대를 사서 생리혈을 감춤으로써 ‘더러운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사회적 명령을 실천하는데 동참하는 도덕적 감정을 느낀다. 기부를 유발하는 감정은 ‘마땅히 가려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 대한 수치심의 공유이며, ‘은폐해야 할 것을 은폐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혐오를 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여성의 생리와 생리대가 왜 혐오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너스바움의 분석에 따르면 혐오는 “인간의 동물성을 숨기고 우리 자신의 동물성을 꺼려할 때 드러나는 유한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이다(170). 즉, 인간이 동물임을 깨닫게 하는 분비물과 행동은 인간의 동물성, 유한성, 부분성 등을 거듭 확인시키므로 외면하거나 제거해버리고 싶은 감정을 유발한다. 이 때 혐오는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간의 공유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한 사회는 공통적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사회적 규범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혐오하고 배척함으로써 그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지킨다. 너스바움은 여성의 몸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맥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혐오가 담고 있는 관념적 내용은 역겨워 보이는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당신이 저열하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혐오의 대상은 광범위하지만 초점은 동물과 그것의 부산물에 맞춰져 있다....실제로 특정 집단을 겨냥해 투영되는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여성의 몸이다. 여성차별적 혐오는 이런 형태의 투영이 거의 모든 사회에서 변화없이 나타나는지 설명해주는 경험적 출발점이 된다.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에 동물적 삶의 연속성, 몸의 유한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여러 문화권과 역사 속에서 여성은 오물과 더러움, 유혹하는 혐오의 원천으로 표현돼 왔으며 어떻게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응징해야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성교, 출산, 생리를 둘러싼 금기는 모두 너무 육체적인 것, 신체 분비물을 너무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피하려는 욕구를 표현한다(169-226).”

이 분석에 따르면 생리하고 출산하는 여성의 몸은 인간의 동물성을 확인시켜주므로 혐오의 대상이며 인체의 분비물인 생리혈 역시 혐오스러운 것이다. 생리혈은 마땅히 숨기고 가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은폐하지 못하는 자는 소외당한다.

수치심은 또 어떤 감정적 맥락을 갖고 있는가. 수치심은 인간이 전지전능하고 완전하고 싶어 하면서도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실패할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다시 너스바움의 분석을 인용해 보겠다.

“모든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정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비정상적인 악함’을 드러낼 때 얼굴을 붉히고 자신을 감추며 회피한다. 수치심은 이런 악점이 노출됐을 때 생기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모든 사회는 혐오와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통해 특정한 집단과 개인을 선택하고, 그들을 ‘비정상’으로 구별하며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한다.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얼굴에 달고 다닌다. 말하자면, 정상인과 함께 있을 때 부끄러움을 보여야 한다고 날마다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318-320).”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수치심 역시 혐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불완전성, 유한성, 나아가 동물성을 깨달을 때 생기는 윤리적 감정이다. 이처럼 수치심과 혐오는 유사한 감정의 맥락에서 만난다. 동정심이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연결을 전제로 한 수평적 감정이라면 수치심과 혐오는 그 사회의 공동체적 사회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열등과 무능력을 전제로 한 수직적, 멸시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성 생리에 대한 수치와 혐오의 이미지가 재생산돼 생리하는 여성에 대한 낙인 이미지를 영속한다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소녀와 오두막’ 후원광고에서도 소녀는 생리하는 기간 동안 오두막에 숨어 있어야 한다. 생리하는 여성에게 ‘더럽다’는 낙인을 찍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는 생리혈을 은폐해야 학교에 갈 수 있다.

사실 필요한 것은 여성 생리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낙인을 찍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도전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생리축제, 대안생리대 운동,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등 여성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규범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후원 광고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시선 속에서 여성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지한 채 여성 피해자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이다.

3. 자본주의 사회의 무능력한 소비자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달리 ‘소비’의 문제와도 얽혀 있다.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피해자 이미지는 전형적이었고 소비자 이미지로 치환되기 어려웠다. 설명하면 질병, 재난, 극단의 빈곤, 위험한 주거환경, 범죄 위험, 식수위생, 교육 등은 개인의 힘으로 바꾸기 어렵고 국가 인프라 개선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때 피해자는 100%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빈곤 국가=빈곤 피해자’로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에서 피해자는 “생리대 살 돈만 있으면” 이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비자적 피해자’로 묘사된다. 생리를 숨길 수 있으면 학교 등 공적 공간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데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숨어 있어야 하는 무능력한 소비자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생리대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낡고 더러운 천조각, 스펀지, 지푸라기 등을 비추면서 생리하는 여성의 원시성을 생리대라는 문명과 근대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광고를 보는 시청자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생리대만 살 수 있으면 된다.” 1년 중 생리기간동안 내내 오두막에서 보내야하는 소녀들을 양지로 이끌기 위해서는 생리대를 사 주면 된다는 쉽고 간단한 논리가 후원광고의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완성된다. 생리대 이슈의 기저에 있는 여성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생리에 수치심과 혐오를 가르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문제제기, 그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안보다 당장 생리하는 모습을 가리는 것이 소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소녀는 ‘돈이 없어서’ 사회 규범을 따르지 못해 낙오한 것이니 생리대를 사서 사회 규범을 따르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기획자와 시청자간에 이뤄진다. 이것은 생리대 제조회사들이 광고에서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자유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논리적 구성이다. 다른 빈곤 후원광고는 당사자의 배고픔, 질병, 박탈 같은 ‘고통’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기부를 유발하고 있다. 반면, 생리대 후원광고는 마땅히 소비해야 할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무기력한 소녀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빈곤 여성들이 소비사회에서 생리대조차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킨다.

여성에게 있어 생리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다.¹¹⁾ 하지만 이렇게 생리대만 꼭 짊어서 후원을 광고하는 것은 빈곤 여성청소년을 그저 ‘생리하는 존재’로 보이게만 만들 우려가 크다. 그녀를 차우파디로 내모는 공동체, 부모와 학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얹어매는 학대적 관습, 정부의 무관심, 매년 가격을 인상하는 생리대 제조회사, 생리 문제를 외면하는 사회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에 대한 모색 없이는 빈곤 여성청소년들이 생리 때마다 ‘사라지는’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11) 영국 영화감독 켄 로치가 감독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에는 가난한 한부모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생리대와 면도기 등을 훔치다 발각된 뒤 수치심을 느끼고, 운동화가 찢어져서 학교에서 놀림받은 딸의 얘기를 듣고 성매매에 나서는 장면이 있다. 이 영화에서 생리대, 운동화 등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의 은유이며 이걸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 상황에 몰리는 빈곤층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4. 나가며

지금까지 구호단체들의 빈곤 구호모금 광고가 구호대상들의 고통과 결핍을 과장되게 전시함으로써 빈곤 포르노그래피라 비판받는 맥락 속에서, 한국의 ‘깎창 생리대’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개도국 빈곤 여성청소년의 결핍과 소외를 극대화한 ‘생리대 포르노그래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맥락을 살펴보았다. 지난 2016년 생리대 제조회사들의 가격인상을 즈음해 불거진 ‘깎창 생리대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일종의 빈곤 스토리텔링이었다. 이것이 후원광고 소재를 찾고 있던 국내 구호단체들의 필요와 만나 한국보다 더 가부장적이고 가난한 개도국 빈곤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후원광고로 변주되었다. 광고에서 소녀들이 생리기간동안 오두막에 갇혀 있어야 하는 이유와 답은 아주 간단하다. 이유는 “생리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전통 때문”이며 답은 “생리대를 사서 생리하는 모습을 가리면 된다”. 왜 생리하는 여성을 더럽게 여기고 격리시키는지에 대한 사회적 물음은 생략되었다.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가난한 이들의 필요(needs)를 중심으로, 열등성의 서사를 통해 전개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 그들의 고통을 해당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뚝 떼어내 탈맥락적으로,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전시한다는 점도 같다. 이미지 대상을 무능력하고 열등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낙인찍고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공통적이다.

한편, 기존 빈곤 포르노그래피와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감정적 맥락에서 동정심이라는 동일점도 갖지만, 차이점도 지닌다. 감정이 해당 사회의 규범과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다면, 전자와 후자 모두 동정, 연민의 감정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전자가 곤경에 빠진 인간과 내가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과 동정심, 연민, 죄책감의 감정을 통해 기부를 유발한다면, 후자는 생리를 둘러싼 수치심의 공유, 그리고 생리하는 여성의 동물성에 대한 혐오라는 감정적 맥락이 더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는 빈곤 여성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능력한 소비자 이미지도 덧씌운다. 그것은 여성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규범,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혐오,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며 폄하하고 멸시하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거울과 같다.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문제점은 첫째, 개도국 빈곤 여성청소년에게 생리 은폐 도구를 주어야 한다는데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여성의 생리 사건을 개인적 사건으로 만들고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규범과 가치체계를 은

폐한다. 둘째, 생리하는 여성을 환자와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여성 생리, 나아가 여성 건강 문제를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할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구호대상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무능력한 소비자 이미지를 덧씌운다. 기존의 빈곤 포르노그래피에서 피해자는 질병, 재난, 극단의 빈곤, 위험한 주거환경, 범죄 위험, 식수위생,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피해자였지, 소비자로 치환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생리대 후원광고에서 빈곤 여성청소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능력한 소비자 이미지로 치환되고 있다. 시청자는 광고 속 소녀가 사용하는 낡고 더러운 천조각, 스폰지, 지푸라기 등으로 암시되는 여성의 원시성, 동물성을 생리대라는 문명과 근대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하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다.

한편, 연구의 한계는 생리대 후원광고의 이미지와 감정을 분석하다보니 막상 소녀들의 ‘말(speech)’을 듣지 못했다는 데 있다. 앞서 분석했다시피 발화자/기획자와 대상 간에는 힘의 불균형이 전제돼 있다. 대상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다고 해도 발화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화행위를 통해 의도한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힘없는 자는 침묵하기 쉽다. 말을 해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봤자 소용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리대 빈곤 포르노그래피의 대상인 빈곤 여성청소년이 ‘말하고’ 그 발화행위를 왜곡되지 않게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이 의도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주아·현은자(2019). “국내 비영리단체 후원모금 광고영상에 나타난 아동청소년의 특징과 낙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424-437.
- 노지은(2018). “아시아 여성들의 월경 관리 사례 연구: 생리대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제2호. 143-178.
- 너스바움, 마사(2015).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조계원(역). 민음사. (Nussbaum, Martha C.,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박은자·배정은(2019). “남녀 청소년의 월경 경험과 인식”. 제6회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 박현영(2019). “한국 여성의 월경 현황”. 제6회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 서주희·김만구(2017). “생리대에서 방출되는 VOCs 방출시험조건 확립”. 한국분석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69.
- 서주희·나소영·김만구(2017). “시판중인 생리대에서 방출되는 VOCs의 농도 실태조사”. 한국분석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0.
- 손민정·이승조(2016). “국제 기아돕기 메시지의 전달에서 죄책감의 효과 발현을 매개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6권 1호. 96-122.
- 이광재(2018). “비영리단체의 모금 광고의 효과: 광고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0권 2호. 205-232.
- 이민영·윤민화(2015). “비영리조직 모금실무자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권 제2호. 247-275.
- 이영주(2018). “생리대와 월경하는 여성의 몸: 1960년대 중반-198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4-94.
- 정연보(2019). “월경과 몸의 혐오에 대한 도전-다큐멘터리 피의 연대기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8권 2호. 133-166.
- 조현희 외(2018).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 티트머스, 리처드 저, 앤 오클리·존 애슈턴 역음(2019). 선물관계: 인간의 혈액에서 사회정책까지. 김윤태·윤태호·정백금(역). 이학사. Titmuss, Richard M., *The Gift Relationship: From Human Blood to Social Policy*, (ed. Oakley, A. & Ashton, J.). The New Press. 1997.

- Park, S. & Chung, C. (2018). Health behaviors related to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and the associated factors of adolescent Korean girls. *Women & Health*. 58(8). 915-929.
- Calain, Philippe (2013). Ethics and images of suffering bodies in humanitarian medicine. *Social Science & Medicine*. 98. 278-285.
- Runswick, K. C. & Goodley D. (2015). DisPovertyPorn: Benefits Street and the dis/ability paradox. *Disability & Society*. 30(4). 645-649. DOI: 10.1080/09687599.2015.1008294.
- Clissold, M. L. (2010). ‘Pornography of Poverty’: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into humanitarian fundraising campaigns. MA dissertation thesis. Dept. of Social Anthropology of Development. University of London.
- Kaundal, M. & Thakur B. (2014). A Dialogue on Menstrual Taboo, *India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26(2). 192-195.
- Langton, R. (1993). Speech Acts and Unspeakable Acts. *Philosophy & Public Affairs*. 22(4). 293-330.
- Lazarus, R. (2003). “From Appraisal: The Minimal Cognitive Prerequisites of Emotion,” in *What Is An Emotion?* ed. Solomon, R. C. No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lomon, Robert. C. (2003). “From Emotions and Choice.” in *What Is An Emotion?* ed. Solomon, R. C. No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lhoun, Cheshire (2003). “Cognitive Emotions?”. in *What Is An Emotion?* ed. Solomon, R. C. No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Sousa, Ronald (2003). “From The Rationality of Emotion,” in *What Is An Emotion?* ed. Solomon, R. C. No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rtha (2003). “Emotions as Judgements of Value and Imptorance in *What Is An Emotion?* ed. Solomon, R. C. No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국민일보(2016. 5. 26).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터내는 소녀들의 눈물”.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oo10647728>.에서 2020.1.20 인출.
- 뉴시스(2017.9.15). “정의당, 생리대 안전성 역학조사를 위한 청원 제출”.
<http://news.joins.com/article/21939536>에서 2019. 11.3 인출.
- SBS뉴스(2017.9.4). “여성환경연대 검출시험 생리대 10종 제품명 공개.”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77875에서 2019.11.13 인출.
- 서울경제신문(2019.2.4.). “네팔의 여성 생리기간 격리 ‘차우파디’ 관습...21세 여성 또 숨져”.
- 한겨레 신문(2016. 5. 29.). “생리대 살 돈 없어요...말할 수 없었던 고백”.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745923.html>.에서 2020.1.20 인출.
- 한국일보(2019.12.12). “대역써서 최대한 불쌍하게...자선단체 ‘빈곤 마케팅’”.
<http://hankookilbo.com/News/Read/201912111215738693?did/>에서 2020.1.22 인출.
- 한국여성민우회(2017.11.30) 보도자료. “정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정을 환영한다.”
www.sedaily.com/NewsView/1VF6K41X43.에서 2020.1.21 인출.
- 청와대 국민청원. “발암물질 생리대 즉각 단속하고 대안 마련에 힘써주세요.”(2017년 9월18일~2017년 10월18일, 참여인원 8,030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05>에서 2019.10.4 인출
- 청와대 국민청원. “한국 여성들은 돈이 없으면 깔창 생리대를 쓰고, 돈 있으면 발암물질 생리대를 써야 하는가”(2017년 9월23일-10월23일, 참여인원 2,159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370>에서 2019.10.4 인출.

Abstract

Another Poverty Pornography: Girls and Disposable Sanitary Pads

Yanghee KIM*

This study explores how ‘poverty pornography’, the adverse effects of aid campaigns by non profit aid organizations, was expanded to disposable sanitary pads aid campaigns. And it discusses samenes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ampaigns in terms of emotional contexts. The Korean ‘shoe pads case’ was shocking as a kind of poverty storytelling when the sanitary pads manufactures announced price increase in 2016. This was met with NGOs’ needs for new aid subjects, and made as sanitary pads aid campaigns for vulnerable girls in patriarchal developing countries. Such campaigns display girls’ suffering on a-contextual, a-historical, arbitrary and exaggerated contexts like conventional poverty pornography. It stigmatized the girls as powerless and inferior, so it can be called as ‘sanitary pad poverty pornography’. However, it had different emotional contexts than conventional ones. the latter evoked sympathy, compassion, and guilty feeling to the viewers, the former ones based on the feeling of shame and disgust. Shame came from sharing of it between who could not conceal the menstruation blood and who had to witness it. Disgust came from animal nature of women who had menstruation regularly. In that point, the emotional basement of sanitary pad poverty pornography was not only shame and disgust, but also social norms and value against women’s menstruation. Because emotion comes from thought, and thought is based on social norms and value in a society. Sanitary pad poverty pornography is challenging, first, because it makes women’s menstruation as a-historical and a-contextual cases, and conceals adverse social norms and value against women’s menstruation. Second, it depicts women as powerless and helpless ‘menstruating being’. It might contribute to perpetuate negative and patriarchal social norms against women. Third, it will limit women’s health issues within only private matters. Lastly, it adds ‘helpless consumer’ image on the stereotypes of victim images.

Keywords : poverty pornography, menstruation, disposable sanitary pads, aid campaigns, shame, disgust

* Associate Research Fellow, Health Insurance Institute, NHIS

한국 기혼 여성의 세대별 성역할 태도 차이에 대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중심으로*

이정윤**·김주현***

초 록

지금까지 진행된 성역할 태도 관련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이며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며 세대 간 차이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성역할 태도는 구체적인 내용별로 연령 변화에 따른 차이와 역사적, 문화적 사회 경험을 공유한 코호트 집단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특정 태도를 유지하고 강화되는 연령 효과(Aging effect)가 실재하는지,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연령 효과(Aging effect)가 혼재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1~7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성역할 태도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분석 결과 한국 기혼 여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세대에서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대로 변화의 기울기에 차이가 나타나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 시점의 성역할 태도를 세대로 나누어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대로 유의미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주제어 : 기혼여성, 세대, 성역할태도, 코호트효과, 연령효과

*본 논문은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2019년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kiv10023@cnu.ac.kr)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haha0929@cnu.ac.kr)

I. 서론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메커니즘도 약화되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갈등으로 연결되고 세대 전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현대에는 연애, 결혼을 비롯한 삶의 전반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전영수, 2013). 비혼 및 만혼, 저출산, 성별 갈등 심화, 여성혐오 등의 다양한 현대 사회문제의 발생에는 신자유주의 도래에 따른 정치, 경제적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여성 교육을 및 취업률 증가 등으로 이루어진 성역할 태도 등의 사회 인식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박경숙·서이종·장세훈, 2012; 정순둘·배은경·최혜지, 2012).

성역할 인식 및 태도의 양상을 살펴보고 성별, 연령 및 세대, 직업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세대로 성역할 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대의 변화에 따라 성역할 인식 및 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인식하고 나이, 생애 단계별로 세대를 분류하여 구성하거나 역사적 경험을 같이 공유한 출생 코호트별로 나누어 성역할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를 비롯한 현대 20~30대 청년세대는 중장년, 노년세대와 달리 남자는 생계, 여성은 육아·가사 책임의 고정된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요인보다도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지하고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김혜영, 2005; 백선미, 2006; 원숙연, 2014; 원숙연·김예슬, 2017; Treleavan, 2015).

그러나 이와 달리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제적 활동 때문에 자녀에게 돌봄과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해 집중적인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자녀의 정서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정 애착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 애착이론이나 모성 박탈과 관련해 여성이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라고 보는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태도의 경우 세대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기도 한다(김정운, 2001; 신송이, 2016; 이선형, 2011). 그러므로 성역할 태도의 내용별로 연령 집단 또는 비슷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화 경험을 한 세대 집단별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므로 일관

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 외에도 연령 효과(Aging effect), 기간 효과(Period effect) 등이 혼재되어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성역할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전통적 인식을 유지하고 이것이 강화되는 연령 효과(Aging effect)가 실재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특정 세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든 세대에 균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인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세대에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대에서만 교호작용이 작동하여 다른 변화 패턴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APC(Age-Period-Cohort)효과 분석이 아니며 연령과 코호트의 혼재 효과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세대별 성역할 태도 변화에 나타나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이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먼저 세대구분 기준을 정하여 세대를 나누어 구성한다. 그리고 각 세대 간 나타나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세대구분

기본적으로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세대 개념은 다른 세대에 비하여 어느 세대가 갖는 ‘새로움’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용어이다. 세대 문제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최초로 체계화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하임(Mannheim, 1952)은 상호 공유된 경험의 효과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세대의 실질적 의미를 공유된 경험을 기반으로 공동운명체로서의 강고한 연대감을 가지며,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동 세력으로 정의한다. 만하임은 질적으로 다른 성장배경이 세대 차이를 형성하는 주요인이라 보았다(Mannheim, 1952; 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인구학자 라이더(Ryder, 1965)는 코호트 혹은 세대는 사회계급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 경험의 “대리 지표(surrogate indices)”이기 때

문에 설명력을 갖고, 유용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세대 구분을 위한 세대 간 경계선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첨예한’ 사건, ‘결정적’ 집단 경험, ‘역사적 유의미성’의 객관적 기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았다. 결국 그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의 통찰력과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동일 학문 분야 혹은 다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나 소통이 개별 연구자의 임의성, 자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박재홍, 2017).

세대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켈처(Kertzer, 1983)는 첫째, 조부모 세대-부모 세대-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에서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둘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생애 주기 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 사회화 경험을 공유하는 ‘출생코호트’의 의미, 셋째,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혹은 대학생 세대와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넷째,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듯이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세대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처럼 세대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각기 다양하다. 10대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 기성세대, 노인 세대 등으로 연령이나 생애 단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가리키기도 하며, 4·19세대, 근대화 세대 등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대 연구에서 그 단위는 10대, 20대와 같이 10년 단위로 분류하거나 편의상 5년을 주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분 모두 각기 연령적 경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대 개념에서는 연령범주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사회의 심각한 이념갈등과 상당히 중첩되는 세대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1970년대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전상진, 2002; 조성남·박숙미, 2002; 한완상, 1991). 그러나 2000년대 이전까지는 많은 연구들에서 세대구분이 단순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대학생세대, 노년세대 등으로 인구학적 연령집단과 생애단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시대특성과 문화적·형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저널리스트, 마케팅 전문가, 학자들에 의해 386세대, 88만원 세대, 신세대, X세대 등 수많은 세대구분과 세대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박재홍, 2009; 전상진, 2002).

한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동이 빠르고 컸기 때문에 세대 형성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홍덕률(2003)은 한국 사회의 변동과정을 고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를 세대구분의 지표로 설정하고, 산업화세대(1952년 이전 출생), 민주화세대(1953년~1969년 출생), 정보화세대(1970년 이후 출생) 등으로 구분하였다. 박재홍(2017)도 한국사회의 세대

를 출생코호트에 따라 식민지·전쟁체험세대(~1940년 출생), 산업화·민주화운동세대(1941년~1970년 출생), 탈이념·정보화세대(1971년~2016년 출생)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 이러한 대분류 방식은 “결정적 집단경험”(Mannheim, 1952)의 차이에 주목하여 동시대인을 크게 세 범주로 나눈 것으로 세대의 분기점을 1930년대 말 무렵과 1970년경으로 본 것이다. 식민지·전쟁체험세대가 유교적 가치관을 깊게 내면화한 세대라면 그러한 가치관이 점차 퇴색되고 그 대신 개인주의, 탈권위주의, 소비주의 가치관을 특성으로 가지는 세대가 산업화·민주화운동세대, 탈이념·정보화세대라 할 수 있다.

2. 성역할 태도 및 인식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s)는 가족에 대한 가치,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는 한 문화권 내에서 통용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이자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할 차이가 극명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는 ‘여성(혹은 남성)으로서의 나’를 의미하며 ‘여성으로서의 나’는 ‘남성으로서의 나’와는 다른 사회적 요구와 기대 속에서 같은 시·공간을 살더라도 서로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홍지아, 2014).

성역할 인식 및 태도를 논의할 때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공-사영역의 이분법(public-private dichotomy)이다. 이는 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노동시장으로 대변되는 공적영역과 가정으로 표상되는 사적영역 간에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며, 전자는 남성의 영역으로 후자는 여성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성별 노동 분업체계를 말한다(원숙연, 2014). 공-사 영역의 이분법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로 확장되는데, 이는 엄격한 성별분리체계에 기초하여 남성(아버지)은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어머니)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무급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정상가족’이라고 전제한다(원숙연, 2014; 원숙연·김예슬, 2017; Crompton, 2001; Lewis, 2001; O'Connor, Orloff & Shaer, 1999).

이와 같이 남성은 공적영역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여성은 사적영역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종속과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기제로 작용한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남성의 임금으로 아내와 자녀 부양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정당화하고, 유급노동에 있어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여성의 종속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한다(신경아, 2014).

성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모성 이데올로기(motherhood ideology)’이다. ‘모성 이데올로기’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의 본질적 정체성이며, 자녀양육에 있어서 ‘모성애’라는 생물학적·태생적 본성을 지닌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의 성장에 대해 어머니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엄마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신념체제이다(이미경, 2004; 조숙·정혜정·이주연, 2015; Hattery, 2001).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일차적 영역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모성 이데올로기’는 출산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과 연결됨으로써 ‘본질주의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비해 강력하고 근본적인 규범으로 볼 수 있다(김복순, 2007).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연결되면서 ‘모성 박탈(maternal deprivation)’로 확장된다. 모성 박탈은 어머니가 부재하거나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 자녀, 특히 영유아기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 및 안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문제는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한다. 결국, 여성(어머니)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는 등의 이유로 엄마역할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경우 모성 박탈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Elvin-Nowak & Thomsson, 2001; 원숙연, 2014).

3. 성역할 태도 영향요인

1) 독립변수 : 세대코호트

동일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세대코호트에 따라 각기 다른 역사·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동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인식틀이 약화되거나 허물어지게 되면서 세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한완상, 1991). 젊은 세대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남녀 평등의식, 개인주의 경향 등이 크게 증가하며 더 큰 시대 변화를 보이고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정태연·한광희, 2001).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도 세대코호트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졌다. 기존 연구들은 연령, 생애단계별로 세대를 분류하여 구성하거나 역사적 경험을 같이 공유한 출생 코호트별로 나누어 성역할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많은 연구에서 연령을 비롯하여 출생 코호트에 따라 집단적 사회경험을 공유하면서 시대 변화를 겪은 세대로 구성된 코호트적 의미의 세대 변수가 성역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2005; 백선미, 2006; Treleavan, 2015). 그러나 성역할 태도를 남성부양자 역할, 엄마 역할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경우에는 연령의 효과가 일부 성역할 태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하며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원숙연, 2014).

2) 통제변수

(1) 개인 요인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종교, 취업상태 등의 변수를 개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연령의 영향력이다. 통상적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김소정, 2013; 문영표, 1989; 백선미, 2006; 은기수·이윤석, 2005; 이선미, 1995; 최규련 1984). 이는 1970년대 이후 유럽, 미국 등을 시작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의 가치와 교육이 확산되고 이를 위한 사회제도의 변화의 영향 하에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Twenge, 1997; 이정아, 1997; 이은아, 2009; 김소정, 2013).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 및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타의 사회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전통적, 보수적인 태도 및 인식을 고수하며, 또한 고착화되기 때문이다(정순돌·배은경·최혜지, 2012; 한완상, 1991).

둘째, 교육수준의 영향력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갖는다고 보고된다. 교육은 가치관의 변동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평등한 성역할 규범을 학습하여 근대적인 가치관 형성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대표적인 인적자본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모두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가 함께 높아진다. 따라서 현실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은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보살핌과 자녀 양육이라는 성별화된 이분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근대적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Sjöberg, 2004; Fortin, 2005; 김소정,

2013; 김영미·류연규, 2016; 백선미, 2006; 원숙연, 2014).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도 성역할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나 질병, 스트레스, 위기 등은 성역할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성 정체감이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성역할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Money & Erhardt, 1972; Derogatis & Melisaratos, 1979; 이병숙·김명애·고효정, 2002), 성역할 정체감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건강 행위 수행 및 지각된 건강상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Choi et al, 1999; 이병숙·김명애·고효정, 2002). 특히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숙·이경주, 1999).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개인 스스로 지각하는 건강상태로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를 의미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대상의 건강 상태 뿐 만 아니라 삶의 질 등이 폭넓게 측정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연구들이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Millán-Calenti JC, et al., 2012; Kawada, 2003 ; 이진정·마예원, 2013).

넷째, 종교의 영향력이다. 종교적 신념은 성역할이나 동성애와 같은 성과 연관된 인식 및 태도에 있어 전통적 모습을 보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왔으며,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다 (Jensen & Jensen, 1993; Treleaven, 2015; 김소정, 2013; 백선미, 2006).

다섯째, 취업상태도 영향을 미친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취업상태는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nayotova & Brayfield, 1997). 취업 여성은 미취업 여성에 비해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근대적 인식을 가짐으로써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형태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전일제 근로(Working Full-time) 여성은 성역할에 대해 더 평등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제 근로(Working Part-time) 여성과 전업주부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releavan, 2015). 이는 전일제 근로여성의 경우 이미 양성 의 태도 모두를 교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rausz, 1986; Kulik, 2002; 김소정, 2013).

(2) 가족 환경적 요인

먼저 자녀의 수도 성역할 태도에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유계숙, 2010; 원숙연·김예슬, 2017; 한지숙·유계숙, 2007). 이러한 결과는 시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1980년대 연구에서도 자녀의 수가 성역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박미금, 1984). 특히 자녀의 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원숙연·김예슬, 2017).

다음으로 소득수준의 영향력이다. 가구의 소득수준이 성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소득은 경제적 자원으로 여성(어머니)의 성역할을 대체할 자원을 외부로부터 구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가구소득의 기여분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에서 남성으로부터의 소득 기여가 높을 경우는 전통적 인식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으로부터의 소득기여분이 낮을 경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 및 인식을 보일 수 있다(김소정, 2013; 김영미·류연규, 2013; Kulik, 2002; Panayotova & Brayfield, 1997).

셋째, 거주 지역의 영향력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 비도시 지역에 거주자 보다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비도시 및 농촌 지역은 인구 구성에 있어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새로운 가치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원숙연·김예슬, 2017).

넷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으며 부부가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일 때 부부 모두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일관되지는 않고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 때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도 있다(윤경자, 1997). 성역할 태도는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모든 연령의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임나현, 2016; 전혜성·서미아, 2012).

마지막으로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의 영향력이다. 성역할 태도와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통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윤명희·임정빈, 1985; 이미숙, 1996).

가사노동 분담은 특히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iller & Philliber, 1986; Ishii-Kuntz & Coltrane, 1992). 남성의 성역할 태도는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여성이라면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낮더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여성은 가사노동 분담이 높은 편이어도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는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사노동 분담은 결혼만족도와도 연관이 있으며(문숙재·허경옥·홍윤정, 1997; 유계숙, 2010; 윤명희·임정빈, 1985, 이미숙, 1996) 상호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 기혼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나타나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EP,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동일한 사회적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유사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공유했으리라 가정하는 코호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코호트를 구분하고 동일 코호트를 추적하여 연령 변화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차이 비교를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종속변수로 이용한 성역할 태도와 관련한 문항은 기혼 여성인 경우에 보다 실질적인 본인 경험에 기반하여 응답할 수 있는 내용이며, 통제변수로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행복감) 등의 요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 중인 기혼 여성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018년 기준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4세인 것을 고려하여 1차~7차(2007~2018) 조사 대상자 중 편의상 30세 미만의 연령 및 세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30세 이상 연령 중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는 1차 8,752명, 2차 7,586명, 3차 7,532명, 4차 6,902명, 5차 6,685명, 6차 6,552명, 7차 7,990명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한국 기혼여성의 성역할 태도의 세대별 차이에 나타나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KLoWEP)”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7차 조사 대상자

중 분석대상은 30세 이상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여 전체 분석에는 6,651명이 포함되었다. 코호트 효과와 연령효과를 검증하고, 둘의 교호작용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 분석은 STATA 14.0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초 통계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 분석 변수

1) 성역할 태도

“여성가족패널(KLoWEP,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에서는 가족 내 역할과 관련해서 1차(2007년)~7차(2018년)까지 총 6개의 문항을 동일하게 조사해왔다. 변수 설정에 앞서 6개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¹⁾ 이에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남녀 성역할태도를 묻는 문항이 속한 요인2에 주목하였고, 국제적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항(ISSP의 가족과 젠더역할 변화에 관한 조사 모듈의 문항)과 기존 유사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통되는 2개의 문항을 선택하게 되었다. 2개 문항은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로 각각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문항이다(김영미·류연규, 2016; 원숙연·김예슬, 2017).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개 문항은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평등지향적,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문항과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문항은 각각의 측정값을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전체 성역할 태도는 2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1) 총 6개의 문항을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KMO (Kaiser-Meyer-Olkin) 값은 0.651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하게(Sig=0.000) 나타났다.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높았다. 요인1은 평등한 부부관계와 관련한 문항이었으며, 요인2는 남녀의 성역할과 관련한 문항이었다.

〈표 1〉 성역할 태도 구성문항과 관련 이론

성역할 태도	질문 항목	관련 이론
	남성은 직장을 가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모성 이데올로기’

2) 코호트 구분

본 연구는 역사적 경험을 구성 기준으로 하여 시대 특성을 반영한 세대 구분을 강조한 박재홍(2017)의 출생코호트별 세대 구분과 명칭을 바탕으로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 탈이념·정보화코호트로 구분하여 명칭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패널(KLoWEP)” 7차(2018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는 1953년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의 인구를 포함하는 코호트로 구성하였고,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는 1954년부터 1970년 사이에 출생한 48세 이상 ~ 64세 이하 연령 인구, 탈이념·정보화코호트는 197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생한 30세 이상 ~ 47세 이하 연령 인구로 정하였다.

〈표 2〉 코호트 구분과 명칭(2018년 기준)

코호트 명칭	출생 시기	연령 구분
탈이념·정보화코호트	1988~1971년	30세 이상 ~ 47세 이하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	1970~1954년	48세 이상 ~ 64세 이하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	65세 이상

“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 조사의 코호트별 빈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차(2007년) 조사의 30세 미만 연령을 제외한 전체 표본 8,752명 중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비율이 29.0%,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48.6%,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22.4%로 나타났으며, 7차(2018년) 조사에서는 전체 표본 7,990명 중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비율이 31.9%,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48.1%,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20.0%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자료의 코호트별 빈도

코호트명 및 출생 시기	1차 (2007)	2차 (2008)	3차 (2010)	4차 (2012)	5차 (2014)	6차 (2016)	7차 (2018)
탈이념·정보화코호트 (1988~1971년)	2,535 (29.0)	2,203 (29.0)	2,307 (30.6)	2,000 (29.0)	1,954 (29.2)	1,959 (30.0)	2,550 (31.9)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1971~1954년)	4,255 (48.6)	3,620 (48.6)	3,456 (45.9)	4,255 (46.7)	3,094 (46.3)	2,956 (45.3)	3,841 (48.1)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	1,962 (22.4)	1,763 (22.4)	1,769 (23.5)	1,962 (24.3)	1,637 (24.5)	1,607 (24.6)	1,599 (20.0)
총계(%)	8,752 (100%)	7,586 (100%)	7,532 (100%)	6,902 (100%)	6,685 (100%)	6,552 (100%)	7,990 (100%)

3) 통제변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구성된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관련 변수들을 개인 요인(연령, 교육수준, 건강, 종교, 취업상태), 가족 환경적 요인(자녀수, 가구소득, 거주 지역, 결혼생활 만족도,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으로 구성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변수 정의와 측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정의 및 속성

구분	요인	변수명	변수속성(변수값)
종속변수	성역할 태도 요인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기초통계분석) 서열변수(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3. 별로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회귀분석) 더미변수(0 전통적)/1 근대적
		전체 성역할 태도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 올로기’ 관련 태도 변수의 평균값
독립변수	코호트 요인	코호트	명목변수(1. 탈이념·정보화코호트/ 2.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 3.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통제변수	개인 요인	연령	비율변수(세)
		교육수준	명목변수(1. 무학/2. 초등학교/ 3. 중학교/4. 고등학교/5.대학교/ 6. 대학원 석사 과정/ 7. 대학원 박사 과정)
		주관적 건강상태	서열변수(1. 매우 나쁘다/2. 조금 나쁜 편이다/3. 보통이다/4. 대체로 좋은 편이 다/5. 매우 좋다)
		종교	명목변수(1. 유교/2. 불교/3. 기독교 및 천주교/4. 기타 및 종교 없음)

구분	요인	변수명	변수속성(변수값)
	가족 환경적 요인	취업상태	명목변수(0. 무직/1. 임금근로자/ 2. 자영업자/3. 기타)
		자녀수	비율변수(명)
		가구소득(연간)	비율변수(백만원)
		거주 지역	명목변수(1. 수도권/2. 충청권/3. 영남권 /4. 호남권/5. 강원권/6. 제주도)
		결혼생활 만족도	등간변수(1~10점)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	서열변수(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별로 만족하지 않음/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3. 분석 방법

이러한 변수 구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대별로 성역할 태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며 그 변화에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interaction)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목한다. 사실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세대효과와는 또래집단, 즉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기간효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것들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이다.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기간 효과는 서로 명확하게 식별해내기 어렵다(이지연, 2008). 성역할 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 크게 변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되거나 변화해가는 특성의 사회적 인식 및 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 효과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둘의 교호작용에 더 관심을 가진다.

개별 코호트별로 연령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간의 합성효과가 존재할 경우 두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연구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Schaie & Parham, 1997; 이갑윤, 2008).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코호트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패턴을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살펴본 교호작용은 연령 변수와 코호트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모형에 포함시켜 그 영향력의 크기까지 검증하는 정교한 방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짐작으로 제기되었던 특정 코호트에서 연령효과가 차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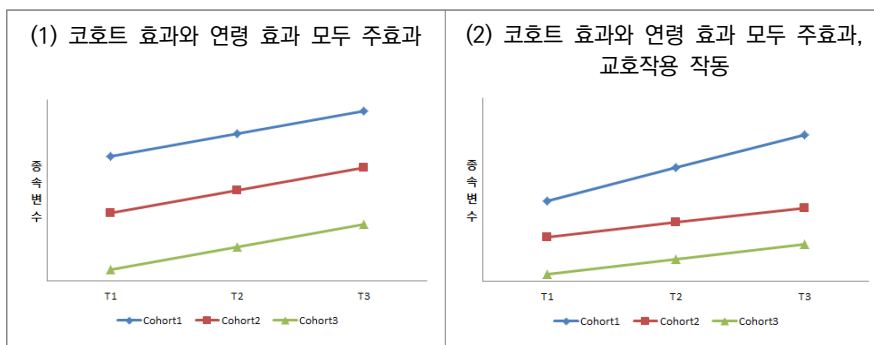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이 발생하면 개별 코호트별로 연령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 효과인 연령 효과가 전 세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

다(이내영·정한울, 2013). 개별 코호트에서의 차별적인 연령 효과가 나타나는 교호작용은 특정시점의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와 각 효과간의 합성 효과를 구별하기 위한 부가적인 이론적 가정과 다양한 이론모델을 구축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통계검증을 통한 경험적 검증방법 대신 발테스(Baltes)가 유형화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을 기준으로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나타나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관계를 역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차용하였다(이내영·정한울, 2013).

발테스(Baltes)의 코호트와 연령 효과 사이의 주효과(main effect)와 상호 교호작용(interaction effect)이 나타나는 패턴 중, 코호트 간 간격이 큰 변화가 없지만, 모든 코호트에서 시간변화에 따라 절대값의 상승이 나타나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주효과로 나타나는 유형(1)과 코호트 간 태도차이가 존재하면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태도변화가 나타나는 점에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모두 주효과로 나타나지만 기울기의 차이가 있어서 특정 코호트와 연령 효과 사이의 작용이 나타나는 유형(2)을 참고로 하여 성역할 태도 변화의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고자 한다(Baltes, 1968; 이내영·정한울, 2013).

이것을 위해서 “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 자료를 이용해 연령코호트별 성역할 태도 변화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와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그림 1] Baltes의 Byfactorial Model에 근거한 코호트*연령 효과 패턴 모형

IV. 분석결과

1. 동일코호트의 연령변화에 따른 성역할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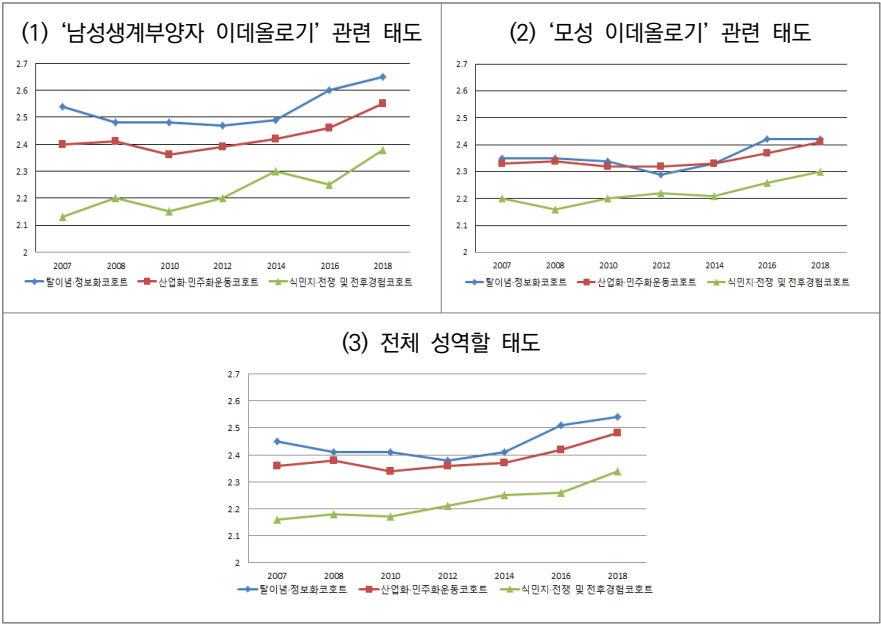
1차(2007년)~ 7차(2018년) 조사에서 동일코호트의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의 평균 점수는 <표 5>와 같다. 기초 통계 분석에서 이용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성역할 태도 변수는 기존 조사 자료 그대로 등간 변수로 구성하여 이용하였으며, 이는 4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측정한 변수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진보적,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성역할 태도’ 변수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 변수의 평균 점수로 구성된 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5> 출생 코호트별 성역할 태도 변화

단위: 점

조사 년도	변수	연령 코호트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1988~1971)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1971~195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
2007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8,752)	2.54	2.40	2.13
	‘모성 이데올로기’(n=8,752)	2.35	2.33	2.20
	전체 성역할 태도(n=8,752)	2.45	2.36	2.16
2008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7,568)	2.48	2.41	2.20
	‘모성 이데올로기’(n=7,568)	2.35	2.34	2.16
	전체 성역할 태도(n=7,568)	2.41	2.38	2.18
2010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7,532)	2.48	2.36	2.15
	‘모성 이데올로기’(n=7,532)	2.34	2.32	2.20
	전체 성역할 태도(n=7,532)	2.41	2.34	2.17
2012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6,902)	2.47	2.39	2.20
	‘모성 이데올로기’(n=6,902)	2.29	2.32	2.22
	전체 성역할 태도(n=6,902)	2.38	2.36	2.21
2014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6,685)	2.49	2.42	2.30
	‘모성 이데올로기’(n=6,685)	2.33	2.33	2.21
	전체 성역할 태도(n=6,685)	2.41	2.37	2.25

조사 년도	변수	연령 코호트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1988~1971)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1971~195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
2016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6,552)	2.60	2.46	2.25
	'모성 이데올로기'(n=6,552)	2.42	2.37	2.26
	전체 성역할 태도(n=6,552)	2.51	2.42	2.26
2018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n=7,990)	2.65	2.55	2.38
	'모성 이데올로기'(n=7,990)	2.42	2.41	2.30
	전체 성역할 태도(n=7,990)	2.54	2.48	2.34



[그림 2] 코호트별 성역할 태도의 변화 패턴(점)

[그림 2]는 각 조사년도의 코호트별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의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시간 변화에 따른 동일코호트의 성역할 태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연령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1차(2007년)에 서부터 7차(2018년)까지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가 7개년도 평균 2.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성별 분업에 대해 가장 근대적, 평등 지향적인 태도 및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

(1971~1954년)도 평균 2.43점으로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의 평균 2.23점 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론과 관련하여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에 비해 조금 더 근대적, 평등 지향적인 태도 및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테스의 추론모델 중 유형(2)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모든 코호트에서 더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 기울기가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에서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보다 조금 더 작게 나타나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세대보다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 점수가 시간이 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각 년도마다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 또한 1차(2007년)에서부터 7차(2018년)까지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가 평균 2.36점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는 평균 2.35점,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가 평균 2.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보다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는 모든 년도, 모든 코호트에서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이며 코호트간 격차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 코호트의 세대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별 분업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비해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는 세대에 관계없이 모두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점수를 보이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와 달리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 2016년과 2018년 기준 동일한 점수를 보이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통적,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발테스의 추론모델 중 (1)과 (2) 유형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와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의 점수 모두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각

코호트별로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세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음으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주효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는 산업화·민주화운동 코호트(1971~1954년)와 변화 패턴이 거의 맞물려 나타나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울기가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호트별로 시간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에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을 추론해볼 수 있다고 보인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 점수를 합산해 구성한 전체 성역할 태도 또한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평균 2.44점,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평균 2.39점,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2.2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대에서 모두 근대적,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 그래프와 유사하게 추론 모형 중 유형(1)과 (2)가 혼재된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모성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역할 태도 점수를 합산해서 보았을 때에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와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며 근대적, 평등적 태도를 보이고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와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직선의 기울기도 비슷하게 나타나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주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는 다른 두 세대보다 어느 시점에서 더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기울기에 차이가 나타나 교호작용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동일 시점의 연령코호트 간 성역할 태도 차이

1)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의 차이

동일 시점의 연령코호트 간의 태도 차이를 비교하여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간의 교호작용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기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단일 횡단면 자료(“여성가족패널(KLoWEP)”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와 그 교호작용을 살펴보고자 각 세대 변수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하여 로지스

택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 1을 보면, 모든 세대에 있어서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대해 연령, 교육수준과 취업상태,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거주 지역 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 변수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성별 분업에 대해서 근대적,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직에 비해 취업상태가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기타 등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근대적인 인식을 가진다. 또한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만 분석한 모델 2에서는 취업상태와 가구소득,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는 무직에 비해 일을 하고 있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별 분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근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를 분석한 모델 3을 살펴보면, 취업상태와 가구소득,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보적,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모델 4는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여성의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를 분석하였다.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의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구소득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무직에 비해 임금근로자 일 때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보적,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 여성의 경우에 가사와 돌봄 등의 활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세대와 상관없이 취업상태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변수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구소득 변수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와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1953년)의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은퇴 후 가구소득이 줄어드는 시기로 태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구소득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에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도 다른 세대와 달리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의 전체 응답자 분석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효과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세대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나 코호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 세대를 구분한 모델들에서는 연령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간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6〉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0=전통적, 1=근대적)	모델1 전체 (N=6,651)		모델2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N=2,401)		모델3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N=3,226)		모델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N=1,02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연령(1세 단위)	-0.006†	0.003	0.012	0.010	0.005	0.009	-0.018	0.022
교육수준	0.107**	0.034	0.121	0.078	0.107*	0.047	0.073	0.077
자녀수	-0.039	0.028	-0.052	0.056	-0.011	0.044	-0.043	0.055
취업상태 (무직 기준)								
임금근로자	0.521***	0.062	0.533***	0.094	0.570***	0.090	0.490*	0.235
자영업자	0.614***	0.086	0.823***	0.159	0.603***	0.115	0.367	0.247
기타	0.479***	0.079	0.578**	0.189	0.623***	0.109	0.138	0.166
가구소득	0.032***	0.009	0.029†	0.016	0.000**	0.000	0.007	0.032
종교(유교 기준)								
불교	0.013	0.553	0.524	1.465	0.163	0.681	-1.096	1.237
기독교 및 천주교	0.039	0.554	0.565	1.464	0.132	0.682	-0.952	1.242
기타 및 종교없음	0.112	0.552	0.632	1.462	0.214	0.680	-0.795	1.239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0.157***	0.029	0.174***	0.049	0.097*	0.041	0.308***	0.079
결혼생활 만족도	0.031	0.035	0.021	0.065	0.075	0.050	-0.091	0.084
주관적 건강상태	-0.050**	0.018	-0.015	0.032	-0.034	0.027	-0.146**	0.047

종속변수 (0=전통적, 1=근대적)	모델1 전체 (N=6,651)		모델2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N=2,401)		모델3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N=3,226)		모델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N=1,02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거주 지역 (수도권기준)								
충청권	0.431***	0.084	0.556***	0.138	0.396**	0.119	0.265	0.248
영남권	0.039	0.069	0.048	0.109	0.018	0.099	-0.004	0.223
호남권	0.260**	0.082	0.549***	0.142	0.054	0.118	0.287	0.232
강원권	0.957***	0.136	0.829**	0.255	0.816***	0.188	1.368***	0.334
제주도	-0.569***	0.160	-0.400†	0.227	-0.713**	0.251	-0.840	0.604
상수	-0.799	0.638	-2.401	1.597	-1.644	0.928	1.834	2.012
LR chi2	348.39		134.57		142.98		65.73	
자유도	18		18		18		18	
유의확률	0.0000		0.0000		0.0000		0.0000	
Log-likelihood	-4421.0278		-1565.9593		-2160.12		-670.99832	
Pseudo R^2	0.0379		0.0412		0.0320		0.0467	

주: †p<.10, *p<.05, **p<.01, ***p<.001

2)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의 차이

〈표 7〉은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전체 코호트를 분석한 모델 1을 보면, 모든 세대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과 취업상태, 거주 지역 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학 아동이 있는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근대적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직에 비해 취업 상태가 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근대적인 인식을 가진다.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호남권과 제주도에서 전통적,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만 분석한 모델 2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와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직에 비해 일을 하고 있을수록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근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1~1954년)를 분석한 모델 3을 살펴보면, 취업상태와 거주 지역 변수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을 하고 있을수록 진보적,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거주 지역별로도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모델 4의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다른 두 세대와 공통적으로 취업상태,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유일하게 결혼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가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무직에 비해 임금근로자 일 때와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전통적,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다른 세대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앞의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태도에서도 노인 여성들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만족할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는 50년대 이전에 출생한 여성들의 경우 어머니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이선행, 2011)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본인이 직접 돌봄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여성이 자녀 양육에 집중해야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코호트와 상관없이 취업상태와 거주 지역 변수가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든 코호트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일을 하는 경우에 여성이 일을 하면 미취학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보며 근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본인이 인식하기에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령 변수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코호트에서와 달리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 변수 또한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점과 다른 세대와는 상반되게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에서만 결혼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점은 독특한 코호트 특성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다.

〈표 7〉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0=전통적, 1=근대적)	모델1 전체 (N=6,651)		모델2 탈이념·정보화 코호트 (N=2,401)		모델3 산업화·민주화 운동코호트 (N=3,226)		모델4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 (N=1,024)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연령(1세 단위)	0.002	0.003	0.027**	0.010	-0.009	0.009	-0.017	0.023
교육수준	0.072*	0.034	0.136†	0.076	0.067	0.047	-0.067	0.078
자녀수	-0.011	0.028	0.002	0.055	0.013	0.044	-0.044	0.055
취업상태 (무직 기준)								
임금근로자	0.255***	0.061	0.381***	0.093	0.228*	0.090	-0.547*	0.251
자영업자	0.236**	0.084	0.360*	0.149	0.258*	0.114	-0.317	0.259
기타	0.124	0.080	0.258	0.183	0.054	0.110	-0.029	0.168
가구소득	-0.001	0.008	-0.008	0.015	-0.000	0.000	0.000	0.000
종교(유교 기준)								
불교	0.210	0.544	0.304	1.467	0.610	0.676	-1.542	1.264
기독교 및 천주교	0.250	0.544	0.483	1.466	0.601	0.677	-1.526	1.268
기타 및 종교없음	0.337	0.542	0.534	1.464	0.691	0.674	-1.339	1.265
가사노동 부담 만족도	-0.027	0.029	0.006	0.048	-0.042	0.041	-0.079	0.079
결혼생활 만족도	-0.020	0.035	0.038	0.064	0.022	0.050	-0.277**	0.087
주관적 건강상태	-0.005	0.018	0.047	0.031	-0.004	0.027	-0.104*	0.048
거주 지역 (수도권기준)								
충청권	0.177*	0.082	-0.115	0.133	0.318**	0.117	0.502*	0.250
영남권	0.091	0.069	0.074	0.108	0.036	0.099	0.386†	0.226
호남권	-0.378***	0.083	-0.256†	0.136	-0.392**	0.121	-0.325	0.244
강원권	0.980***	0.130	1.013***	0.248	0.941***	0.182	1.308***	0.322
제주도	-0.553**	0.165	-0.574*	0.237	-0.665**	0.258	-0.253	0.539
상수	-0.681	0.673	-3.049	1.594	-0.731	0.921	4.062	2.058
LR chi2	169.91		65.88		91.72		73.11	
자유도	18		18		18		18	
유의확률	0.0000		0.0000		0.0000		0.000	
Log-likelihood	-4457.8044		-1615.5248		-2158.4635		-649.84576	
Pseudo R^2	0.0187		0.0200		0.0208		0.0533	

주: †p<.10, *p<.05, **p<.01,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혼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에 작용하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연령 효과(Aging effect)가 어떻게 혼재되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성역할 태도 변화에 나타나는 연령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 코호트를 추적하여 연령 변화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종단면 자료(“여성가족패널(KLoWEP)” 1~7차(2007~2018년))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세대별 차이에 나타나는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KLoWEP)”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 시점의 세대 간 태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성역할 태도 변수 구성을 위해 구성문항과 그 관련 이론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로 구분하여 성별 분업에 대한 태도와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대코호트는 역사적 경험을 구성 기준으로 하여 시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 출생),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 출생),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 출생)로 구분하였다.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요인(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 취업상태)과 가족 환경적 요인(자녀 수, 가구소득, 거주 지역, 결혼생활 만족도,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등을 통제 변수로 구성하였다. 결혼생활 만족도와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변수를 포함하므로 분석대상을 기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동일 코호트에 나타나는 연령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2007년)부터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해 기초 통계 분석한 결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서는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가 평균 2.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가 평균 2.43점,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이 평균 2.23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점수가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발테스(Baltes)의 코호트*연령 효과 패턴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남성생계부양자 이

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발테스의 추론모델 중 유형(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모든 세대에서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그 변화패턴의 기울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세대보다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에서 그 기울기가 더 작게 나타났는데, 이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태도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세대보다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시간이 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각 년도마다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서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가 평균 2.36점,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가 평균 2.35점,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가 2.22점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보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 있어 모든 년도와 전 세대에서 평균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보이며, 세대 간 격차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에 관계없이 자녀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 변화의 그래프는 발테스의 추론모델 중 유형(1)과 (2)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모든 세대가 동일한 간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연령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산업화·민주화운동코호트(1970~1954년)와 식민지·전쟁 및 전후경험코호트(~1953년)는 각 코호트별로 간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모든 세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고 있어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동시에 주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이념·정보화코호트(1988~1971년)의 변화패턴은 자세히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울기가 크게 변함으로써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의 교호작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일 시점의 연령 코호트 간에 작용한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간의 교호작용을 검증해보기 위해 7차(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서는 모든 세대를 포함한 모델에서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효과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세대를 구분한 모델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코호트 효과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으나 연령 변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간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는 코호트와 관계없이 취업상태와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변수는 탈이념·정보화 코호트(1988~1971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와의 교호작용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나 세대코호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성 이데올로기 관련 태도에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이 있음을 통해 미래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인식은 지금까지의 태도 변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모성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근대적 인식이 맞물려 변화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기혼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있어 각 세대별로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교호작용 작동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를 보이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검증해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세대별 성역할 태도 및 인식에 있어 차이를 이해하고 근대적이고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로의 변화를 위한 방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대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세대효과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한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기간 효과 중 기간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해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간효과는 특정시점의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앞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시계열 조사 자료를 통해 성역할 태도를 비롯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있어 세대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더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6권 제1호. 181-204.
- 김복순(2007).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권. 5-51.
- 김소정(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1호. 89-111.
- 김영미·류연규(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25집 2호.
- 김영미·류연규(2016).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26개 국가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2집 2호.
- 김정운(2001). “아동의 생산과 소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6권 제2호. 59-79.
- 김혜영(2005).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 제17집 1호. 115-146.
- 나은영·민정환(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시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4호 제1호. 75-93.
- 나은영·차재호(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호 제2호. 37-60.
-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345-358.
- 문영표(1989). 도시부부의 성역할태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서이중·장세훈(2012). 세대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미금(1984). 도시 저소득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재홍(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 1-23.
- 박재홍(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통권 제 81호. 10-34.
- 박재홍(2017). 세대 차이와 갈등(이론과 현실). 경상대학교출판부.

- 백선미(2006).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세대별 비교.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신경아(2014).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제4호. 204-224.
- 신송이(2016). “모성 이데올로기로 인한 양육 초기 여성의 어려움”. 연세상담코칭연구. 제6호. 57-80.
- 원숙연(2014).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0권 제3호. 141-171.
- 원숙연·김예슬(2017).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 모성 및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제17권 제2호. 269-311.
-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1호. 41-69.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제15권 4호. 221-235.
- 윤명희·임정빈(1985). “도시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권 2호. 45-59.
- 은기수·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107-132.
- 이갑윤(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제14권 2호. 93-115.
- 이건정·마예원(2013). 지역사회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3권 4호. pp.881-893.
- 이내영·정한울(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한국의 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19권 3호. 37-83.
- 이미경(2004).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제 26집 제1호. 389-419.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6권 1호. 153-173.
- 이명숙·김명애·고효정(2002).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 도구 개발”. 한국간호과학회지. 제32권 3호. 373-383.
- 이선미(1995). 부모 자녀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연구 - 주부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형(2011).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여성들의 모성인식에 대한 세대비교연구

- 구”. 페미니즘 연구. 11권 1호. 59-99.
- 이신숙·이경주(1999). “남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9권 2호. 1-13.
- 이은아(2009). “청소년의 성역할 태도에서의 차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6. 19.
- 이정아(1997). 부산시 기혼남성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8). “한국의 자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임나현(2016).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1호. 230-240.
- 전상진(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제25권 2호. 193-230.
- 전영수(2013). 세대전쟁. 이인사각.
- 전혜성·서미아(2012). “중년기 부부의 부부권력 및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349-357.
- 정순돌·배은경·최혜지(2012). “세대별 부양의식 및 성역할 인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2호. 5-23.
- 정태연·한광희(2001). “20대가 지각한 청소년과 성인과의 세대차이”. 한국노년학. 제21권 1호. 1-14.
- 조성남·박숙미(2002).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제9권. 39-68.
- 조숙·정혜정·이주연(201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1호. 25-49.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1호. 61-8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1~7차(2007~2018년).
- 한완상(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계간 사상. 통권 제8호. 248-309.
- 한지숙·유계숙(2007). “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 / 촉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5호 143-166.
- 홍덕률(2003).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통권 64호. 150-191.

- 홍지아(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신여성〉과 EBS〈부모〉가 제시하는 모성의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38권 제1호. 205-228.
- Baltes, P.B. (1968).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Sequences in the Study of Age and Generation Effect. *Human Development*. 31. 262-272.
- Choi, Y. S., Jang, C. J., Jo, H. S., Choi, Y. J., Jang, S. B., Park, Y. S., Lee, N. H., Jo, D. S., & Lee, E. H. (1999). *Women's health nursing I*. Seoul. Soomoosa.
- Crompton, Rosemary. (2001). Gender Restructuring, Employment, and Caring,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8(3). 266-291.
- Derogatis, L.,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3). 244-281.
- Elvin-Nowak, Y. and Thomsson, H. (2001). Motherhood as idea and practice: Adiscursive understanding of employed mothers in Sweden. *Gender and Society*. 15. 407-428.
- Esler, Anthony. (1984). The Truest Community: Social Generations as Collective Mentalit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6(3). 425-442.
- Feuer, Lewis S. (1969). *The Conflict of Generations*. New York/London: Basic Books.
- Fortin, N. M. (2005).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Labour-Market Outcomes of Women across OECD count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1(3). 416-437.
- Hattery, A. J. (2001). *Women, work, and family: Balancing and weaving*. Thousands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Hiller, D. V., & Philliber, W. W. (1986). The division of labor in contemporary marriage: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Social Problems*. 33(3). 191-201.
- Ishii-Kuntz, M., & Coltrane, S. (1992). Remarriage, stepparenting, and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3(2). 215-233.
- Jensen, L. C. & Jensen, J. (1993). Family value, religiosity and gender. *Psychological Reports*. 13(2). 429-430.
- Kawada, T.(2003). Self-rated health and life prognosis. *Archives of*

- medical research*. 34(4). 3433-47.
- Kertzer, Davi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Krausz, S. 1986. Sex roles within marriage. *Social work*, 31, 457-464.
- Kulik, L. (2002). The impact of social background on gender-role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23(1). 53-73.
- Lewis, Jane. (2001). The Decline of the Male-Breadwinner Model: Implication for Work and Care, *Social Policy*. 2(3). 159-173.
- Mannheim, Karl. (1952(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76-320.
- Millán-Calenti JC, Sánchez A, Lorenzo T, Maseda A. (2012) Depressive symptoms and other factors associated with poor self-rated health in the elderly: gender differences. *Geriatrics and Gerontology International*. 12(2). 198-206.
- Money, J., & Ehrhardt, A.A. (1972). *Man and woman, boy and girl: Differentiation and dimorphism of gender identity from conception to maturity*. Johns Hopkins U. Press.
- O'Connor, J. and Orloff, S. and Shaver, S. (1999). *States, Markets, Families: Gender, Liberalism and Social Policy in Australia, Canad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nayotoca, E., & Brayfield, A. (1997). National context and gender ideology: Attitudes toward women's employment in Hungary and the United States. *Gender & Society*. 11(5). 627-655.
- Rintala, Marvin. (1974). Generations: Political Generations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6. Macmillan & Free Press. 92-96.
-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as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861.
- Schaie, K Warner, and Iris A. Parham. (1997). Cohort-Sequential Analysis of Adult Intellectu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3. 649-53.
- Sjöberg, O. (2004). The Role of family policy institutions in explaining

gender role attitudes: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of 13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4(2). 107-123.

Treleavan, C. (2015). Gender, Generation, and Jobs: Differences in Gender Role Ideologies by Age and Occupation. *MA Research Paper*. 1.

Twenge, J.M. (1997). Changes in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over time: A meta-analysis.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36(5-6). 305-325.

Ylva Elvin-Nowak and Heléne Thomsson. (2001). Motherhood as Idea and Practice: A Discursive Understanding of Employed Mothers in Sweden. *Gender and Society*. 15(3). 407-428.

Abstract

**Cohort Effect and Age Effect of the Difference
in Gender role Attitudes per Generation among
Married Wome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Korean First to Seven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Lee, Jungyun*·Kim Ju-hyun**

Previous research on gender role attitudes pointed out the difference in gender role attitudes between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that older generation tends to be traditional and younger to be nontraditional. However, there is a need for further analysis due to the difference per specific gender role attitudes attributed to the change in age and also detected various aspects per cohort groups with shared social experiences in terms of history and culture. Hen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hether aging effect, which maintains and strengthens particular attitude through aging, is present in generational gap from change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how cohort effect and aging effect are manifested when both effects are mixed. For the analysis, 1st to 7th results of KLoWF(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were utilized and gender role attitudes specifically related to male breadwinner ideology and motherhood ideology have been examined. As a result, the gender role attitudes among Korean married women have the tendency to move towards liberal attitude compared to the past and regardless of the generational difference. From the change in slope per generation, interaction between cohort effect and aging effect can be assumed. Furthermore, when affecting factors were analyzed by grouping gender role attitudes of the same period per generation,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varied per generation.

Keywords : married women, generation, gender role attitude,
cohort effect, aging effect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최부경**·안지영***

초 록

본 연구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 1차~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panel logit) 모형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이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에 미치는 영향과 회귀모형으로 고위직 여성임원 비율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기업 내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직 여성임원이 부하직원의 여성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변화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고위직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여성중간관리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승진과 더불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동종업계 비교 해당 기업의 여성인력의 비중이 더 높을수록, 즉 여성인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여성 임원비율이 승진 및 임금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 (혹은 여성인력의 집중도가 낮을수록 여성임원비율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다)이라는 조절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동종업계 내 여성인력의 비율이 낮을수록 여성임원비율이 승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약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고위직 여성임원, 여성중간관리자, 승진, 임금, 동종업계 비교
여성인력비중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이메일: cbk1903@naver.com.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교신저자, 이메일: jy-ahn@ewha.ac.kr.

I. 서론

금융감독원은 2013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면서 사업보고서 내 임원현황에 임원 성별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공시된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숫자는 454명으로 전체 임원의 3%를 차지했다(여성가족부, 2018). 여성 임원 비율은 2014년 2.3%, 2015년 2.4%, 2018년 3.6%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 임원 비율(2018년 기준)인 21.8%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8).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법,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등 정부의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전개되면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2018년 기준 52.9%) 및 여성 고용률(2018년 기준 50.9%)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치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18). 이와 더불어 현재 남녀간의 임금 격차도 남성 근로자 임금 대비 여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16년 64.0%에서 2017년 64.7%로 0.7%p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위직 승진에 대한 확률이 낮고 그에 따른 임금 증가분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Kirchmeyer, 2002).

이처럼 여성의 승진과 임금의 불평등(gender inequality)은 조직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김수한·신동은, 2014). 특히 조직 내 남성선호현상(Acker & Van Houten, 1974) 및 직무, 직업, 회사 그리고 산업분야에서의 성별분리(sex segregation)현상(Baron & Bielby, 1980)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승진이나 임금은 보직배치, 훈련, 평가와 같은 일련의 조직적 관행과 인사결정의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직종 및 업무의 분리는 여성의 승진과 훈련의 기회를 제한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만들 수 있다(김수한·신동은, 2014). 이러한 기업에서의 여성 차별의 경험은 사회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Baron and Bielby, 1980). 또한 이러한 불평등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조직 내 여성인력의 활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자숙, 2006).

여성의 승진과 임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Gorman and Kmec, 2009; Hirsh, 2009) 대부분 여성에게 강요되는 일-가정 균형 압박, 가족의 지지 등과 같은 사회적·문화적 영향(권혜원·권순원, 2013), 여성의 승진기회를 낮추는 직무분리(박기남, 2002), 낮은 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장덕진·황정미,

2003)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관행(이주희, 2003; Gorman, 2006)등 대부분 승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조직적 장벽, 대인관계 장벽, 개인적 장벽과 더불어 여성의 경력성공을 저해하는 큰 장애요소임을 지적하였다(Northouse, 2010). 한편, 여성의 승진과 임금의 성불평등은 조직 의사결정자의 성별과 무관하지 않는데 최고 경영층에 남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Galinsky, 2015) 특히 할당적 차별(가치가 낮은 일 자리에 여성을 배치하는 경향), 직장 내 차별(같은 업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더 적게 받는 경향), 그리고 평가적 차별(일의 성과에 따른 보상에서의 차별적 평가의 경향)이 의사결정자들로부터 야기되는 조직적으로 체계화된(systematic) 성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한 실정이다(Rivera,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 내 최고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 여성임원들이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성 관리자의 승진 및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임원이 변화의 대리인(agents of change) 역할을 수행하여 여성임원 비율의 증가가 조직 내 여성 관리자의 성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직 여성임원들은 여성 중간관리자의 멘토링, 네트워킹, 조직 문화의 변화 등 조직의 하위 및 중간 관리자 여성들의 승진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Nelson & Bridges, 1999; Hultin and Szulkin, 2003b).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임원이 여성중간관리자의 고용관련 결정 즉, 승진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영향이 기업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자리 자체에 내포된 특성이나 기업의 조직적 특성이 여성의 고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Pergamit & Veum, 1999)에 더해 본 논문에서는 주로 기술(technology)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산업별 특성을 통제하고 각 산업 별 여성 노동력의 비중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성 고용관련 결정에 어떠한 차이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동종 산업 내 경쟁기업 대비 여성 노동력의 비율의 순위(ranking)에 따라 여성임원 비율이 중간관리자의 승진 및 임금수준에 대한 차별적 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즉, 동종 산업 내 개별 기업의 여성 인력 비율의 순위에 따라 여성임원이 변화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권(discretion)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성임원이 중간관리자 승진 및 임금결정에 관한 효과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은 여성노동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이주희, 2003), 조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규모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관성이 있다(금재호, 2010). 특히,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관리자가 역량을 발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성 유사성(gender similarity)이 높을수록 유사한 가치와 선호도를 공유하며 이성의 상사-부하 관계보다 양적, 질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Jackson and Joshi, 2004) 이는 특히 승진이나 임금수준 결정 등 고용관련 평가의 개선을 통해, 여성임원의 비율이 적은 조직에 비해 승진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위직 여성 관리자의 비율과 여성 중간관리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세 가지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첫째,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고위직 여성임원 비율과 여성중간관리자의 임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종 산업 내 여성비율의 순위(ranking)가 고위직 여성임원 비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고위직 여성임원 비율과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과의 관계

여성임원의 역할과 성(gender) 다양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임원구성에서 여성임원의 부족 현상이 매우 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¹⁾, 여성임원의 현황 파악이나 역할 등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 및 관련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지혜 외, 2019). 그러나 해외에서는 1950년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여성리더 및 리더십에 주목하였다(이동수,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리더의 리더십의 특성

1) 2017년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사의 44개국을 대상으로 이사회 여성비율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이사회의장 중 여성비율이 1.1%로 44개국 중 38위이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2017년도 OECD 29개 국가 중 '기업 이사회 여성비율' 평가항목이 29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외(2017). 여성관리자패널조사, p.3.

(Lipman-Blumen, 1992)이나 남성리더십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차별점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Burke & Collins, 2001). 그러나 여성임원이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대표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원혜연 외, 2018). 대표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소극적 대표성이 조직 구성비율에 대해 인적 구성 비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 대표성은 임원이 능동적으로 소속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원혜연 외, 2018)이다. 이는 여성임원은 적극적 대표성의 차원에서 여성의 성역할로 인한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Dolan, 2000).

이러한 관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위직 여성임원은 본사(headquarters)에서 행정적 그리고 경영상의 관리자로서 정책과 정책 실행에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또한 중간단계의 여성 관리자는 일반 관리자로써 조직의 팀장 이상의 관리자로 정의한다(Kurtulus & Devey, 2012).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리자패널은 중간관리자를 ‘대리급’ 이상을 중간관리자로 조사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도 중간관리자를 ‘대리급’ 이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여성중간관리자들이 그들의 역량의 증가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진을 통해 서열과 권한의 상승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책임이 커지며, 연봉 등 임금 상승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승진(promotion)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황성수, 2017).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여성의 경력 성공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glass ceiling)이 작용하는 조직적 장벽, 대인관계 장벽, 개인적 장벽을 강조하였다(Northouse, 2010). 이로 인해 남성 동료들에 비해 여성 관리자의 성과 및 노력이 더 요구되며, 여성에게 비호의적인 기업 문화, 가정에 대한 책임과 승진에 대한 추구가 병행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등 여성 스스로 최고 경영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도록 해왔다(Powell & Greenhouse, 2010). 또한 승진 결정에 있어서 남성들이 동성(Homophily)을 선호하며, 여성에게는 도전의 기회와 인정 및 지원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확실한 발전 기회가 결여되는 경향(Cooke & Xiao, 2014)등의 원인으로 여성들은 승진과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없고, 경력이 단절되거나 이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Mincer & Polachek, 1974).

유리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이 고위직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해결책으로 주장해왔다. 즉, 조직의 고위직에 위치한 임원은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방식과 문화 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Opstrup & Villadsen, 2015). 이는 고위직 여성은 ‘동기부여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부하직원들에게 멘토링(Athey et al. 2000)과 승진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한 적극적 훈련을 제공하며 여성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여성 관리자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Ibarra 1993; Noe 1988). 이러한 멘토링의 기회의 증가(Konrad et al. 2008)는 경력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다(Wayne et al. 1999). 이러한 멘토링을 통하여 과업 수행방식이나 노하우를 학습하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역할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Higgins & Kram, 2001) 경력 후원을 받아 경력만족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위의 관계는 직급이 상승할수록 보다 강하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다(Seibert et al., 2001). 더 나아가 고위직 여성임원비율의 증가는 중간 여성 관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제공 및 자질 형성에 도움을 준다(이지원·어용숙·하영수, 2014). 이러한 교육훈련은 경력성공에 필요한 객관적인 업무수행성과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Cannon-Bowers & Salas, 1997). 더욱 Hultin and Szulkin(2003b)는 고위직 여성 관리자를 “변화의 대리인”(agents of change)으로 보고 여성임원이 조직 내 여성들의 불평등의 감소와 여성들의 승진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증가는 낮은 지위의 여성들의 성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Cotter et al. 1997; Nelson & Bridges, 1999). 이는 고위직에 여성의 대표성이 클 때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줄이고, 여성 부하직원과의 동질성(Homophily)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며, 고위직으로의 여성의 승진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의 증가는 사회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인 경력개발의 영향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Podolny & Baron, 1997). 이것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인적 자본이 개인의 기술과 능력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처럼 사람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창출되며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행동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Seibert, Kraimer & Liden, 2001).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즉, 사회적 관계는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며, 더불어 경력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Ibarra and Andrews, 1993).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보의 접근성 뿐 아니라 타인들과의 교섭력을 증가시키며 더불어 경력향상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Burt,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성 부하직원과의 동질성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 남녀의 임금의 차이를 줄이고 고위직으로 여성의 승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의사결정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증가하여 집단 내 성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Cotter et al. 1997; Nelson and Bridges 1999). 이를 또한 사회적 백신(social vaccines)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는 집단 내 동성의 전문가와 동료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나 고충을 없애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Moore 외(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 부하의 상사가 여성일 때 경력 및 삶의 질이 더 높아 여성 근로자는 동성의 상사를 선호한다는 분석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 연구들은 여성임원의 여성 직원에 대한 다방면적인 근무환경의 질적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Atchison, 2015; Lucifora & Vigani, 2016; Tate & Yang, 2014). 따라서 위의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클수록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고위직 여성임원 비율과 여성 중간관리자의 임금과의 관계

국내 기업에서는 남성 관리자에 비해 여성 관리자의 노동시장은 제한되어 있으며, 협소한 규모이다(김현동, 2018). 더욱이 여성 관리자들은 가사와 자녀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전담하고 있어서 직장-가정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몰입하기 어려우며, 남성 관리자와 비교하여 경력개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김기동 외, 2015).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의 여성 관리자는 직장생활을 중도에 그만두고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황성수, 2017). 더욱이 여성 관리자가 이직하는 사례가 남성 관리자보다 높아 여성 관리자에 대한 경력지원을 하려는 동기와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김기동 외, 2015). 그러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 훈련, 경력 등 인적 자본요소의 투입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의 인적자본의 가치가 더 높아 여성에 비해 남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높다(Valcour & Ladge, 2008).

임금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금전적 대가로 근로자 자신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기업 내의 사회적 신분이나 조직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등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과 자기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Snell & Boulander, 2011; 김성한, 2010).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 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자 노동시장 참여 지속성의 주요 요인이 된다(박계홍, 1995; Mamman, 1990).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며²⁾ 낮은 임금과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국내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임금의 과거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본 바,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30.7%p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0.7% 적다는 의미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이는 최근의 교육수준이 높은 양질의 여성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더욱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임금 노동자 중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약 84%, 여성은 약 91%이며,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은 약 26%, 여성은 약 41%이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 소속 비율이 여성의 경우 더 높다. 이러한 이중구조와 성별 분절이 증첩된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의 완화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영미, 2015). 더욱이 남성 집중직종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직종에 성차별로 채용되지 못한 여성 노동력이 일부 직종에 과잉 공급될 경우 임금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금재호, 2004).

그러나 관리직급의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임금직 및 임금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무로의 진입으로 보고 성별 임금격차가 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여전히 관리직 내 성별 임금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김영옥, 2010; 금재호 2010).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관리직군의 성별 임금 격차가 측정되었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차이(unexplained differentials)로서 논의해 왔다. 예를 들어 Oaxaca & Ransom(1994)의 연구에서 임금 분해식(wage decom-

2) OECD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를 비교한 건데 한국이 37.1%, 34개 나라 중 1위(OECD 보고서, 2018).

position)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연구한 결과,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분이 전체 격차의 절반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 임금의 차이가 조직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ertrand & Hallock, 2001). 즉, 기업별로 임금의 성별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의 수준이 다르며 기업의 인적자원제도 및 정책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주희 2003). 이에 여성임원 비율의 변인은 조직의 성별 임금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여성이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직문화 변화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성별 차별을 완화시키며, 기업의 다양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여성 관리자의 양적증가가 정치적 힘과 사회적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이것은 다시 이들의 승진 기회를 높이고 아울러 금전적 보상과 권위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임희정 2009).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중간관리자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동종업계 내 기업의 여성비율의 순위

최근 여성 근로자들이 꾸준히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김효선·이수연, 2017). 그러나 기업 내 여성근로자의 증가는 여성들의 감수성이 조직에 유입되고 구매의사 결정이 높은 여성고객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며(Catalyst & Catalyst, 2004), 여성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성과에 맞는 경력개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황성수, 2017). 더욱이 동종업계 내 기업의 여성비율은 동종산업 내 기업 들 대비 해당 기업의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규모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의 여성 노동력의 비율이 중요하다(Turco, 2010). 이것은 여성의 위치가 낮거나 비율이 열세인 상황에서는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향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Reskin, et al, 1999). 이로 인해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은 여성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담당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승진이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pencer et al, 1999).

이러한 여성 노동력의 비율에 대한 Cohen and Huffman(2007)의 연구에서 미국의 노동시장 안에서 여성의 대표성의 증가는 여성 부하직원의 임금의 차이를 줄인다는 결과와 고위직 여성의 대표성이 클수록 직장에서의 성의 불평등 또는 차별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로 나타났다(Skaggs et al, 2012). 또한 한국의 CEO 스코어에서는 500대 기업 성별다양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이 여성임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표하였다(CEO 스코어 데일리, 2014). 더욱이 이주희(2003)의 연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 사업체 패널』자료를 토대로 여성 관리직 진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구조적, 그리고 인사조직적 변수를 조사한 결과 여성 관리직이 있는 기업은 인사담당자의 태도가 여성 관리직이 전혀 없는 기업보다 더 평등지향적이었으며, 채용이나 승진, 임금체제 및 근로조건 등 인사 관련 주요제도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개인의 능력에 의해 고과가 매겨지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한 사업장 내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여왕벌 신드롬, 역할일치이론³⁾이 약하게 작동하여 동성의 상사일 때 직장 내 스트레스가 낮고 승진확률이 높다는 것이다(Moore et al, 2005). 더욱이 여성의 비율에 따라 여성의 행동을 관찰한 연구의 결과에서 여성의 비율이 25%, 50%, 75%인 각각의 집단에서 여성의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집단에서의 여성의 활동이 자신감이 있고, 활기찼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났다(Dasgupta et al, 2015). 이것은 집단에서 여성의 높은 비율은 여성의 참여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기업 내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또한 여성 직속 상사일 때 승진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Gardiner and Tiggemann, 1999). 더욱이 임금에 있어서도 여성 관리직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동종 임금 평균과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이주희, 2003). 이러한 사전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였다.

3) 여왕벌신드롬(Queen bee syndrome)이란 높은 경력의 여성일수록 차별을 이겨내고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여성에 대한 인정 기준이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Dezso, Cristian L., Ross & Uribe, 2013). 역할일치이론(role congruity theory)이란 경력이 쌓을수록 전통적인 리더십의 특징(ex. 남성다움, 터프함 등)이 여성에게 요구되어지고 이에 따라 여성이 전통적으로 갖는 역할특성을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설 3. 동종업계 대비 여성인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여성 임원비율이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 및 임금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분석자료

고위직 여성임원비율이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여성 관리자 패널조사(KWMP: Korean Women Manager Panel)』의 1차년도(2007)부터 5차년도(2015)를 사용하였다. 여성관리자패널은 2007년부터 격년으로 2016년까지 6차례에 걸쳐 100인 이상 사업체의 대리급 이상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여성관리자패널은 한국노동패널조사 등과 같은 패널자료와는 다르게 대리급 이상의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개인, 가정 및 직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와 2010년도에는 남성 관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2년도 4차 조사에서는 여성 관리자의 새로운 표본이 추가되었다. 또한 여성관리자패널은 이전 직장 경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현재 직장보다 더블어 직장의 분야(산업) 및 일(직업), 기업규모, 종사자의 지위, 업무 및 직급, 근속년수, 연 소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차~5차 여성 관리자 패널조사의 여성 관리자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여성 관리자용 데이터의 모집단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운수 및 여행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서비스업, 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면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에 근무하는 대리 1년차 이상의 여성 관리자가 그 대상이다. 주요변수는 1차에서 5차까지의 여성 관리자와 인사담당자 자료를 병합하여 같은 기간 기업적 차원의 요인들이 여성 승진과 임금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차원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2-5차 조사에 걸쳐 이직자나 퇴직자 또는 신규입사자를 제외한 동일 기업에 근속하고 있는 패널 9,46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업종	제조업	215	17.0	연령	20대	6	0.4
	건설업	27	2.1		30대	448	32.5
	도소매/숙박음식	76	6.0		40대	808	58.6
	운수업	36	2.9		50대	118	8.6
	금융/부동산	352	27.9		합계	1,380	100
	출판/과학/서비스	367	29.1	직급	대리	142	20.4
	공공행정	72	5.7		과장	220	31.6
	교육서비스	45	3.6		차장	217	31.2
	보건복지	41	3.2		부장	105	15.1
	예술/협회	20	1.6		임원	12	1.7
	기타	11	0.9		합계	696	100
	합계	1,262	100	임금	300만원미만	437	24.6
규모	99인 이하	112	8.9		300~400	399	22.4
	100~299인	287	22.7		400~500	344	19.3
	300~999인	326	25.8		500~600	139	7.8
	1,000~1,999인	129	10.2		600이상	115	7.5
	2,000인 이상	409	32.4		합계	1434	100
	합계	1,263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111	9.5				
	전문대학 졸업	164	14.0				
	대학 졸업	653	55.8				
	대학원 석사졸업	221	18.9				
	대학원 박사졸업	22	1.9				
	합계	1,171	100				

2. 연구 모형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고위직 여성비율이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승진과 임금에 대한 측정방법을 다르게 하였다. 그것은 승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속변수가 0과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차~5차 조사 결과를 연결하여 5년간 승진 여부인 종속변수(승진=1/미승진=0)를 더미변수화 한 후 패널로짓(logit)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성 관리자의 임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임금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항은 연속변수로 응답한 ‘월평균 임금(세금포함 각종 비용공제 전)’으로 측정

한 뒤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아 자연로그화 된 값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명변수인 고위직 여성 관리자는 본사(headquarters)에서 행정적 그리고 경영상의 관리자로서 정책과 정책 실행에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Kurtulus & Devey,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위직 여성 관리자를 이사회 임원(사내, 사외이사)으로 측정한다. 또한 결과변수인 중간단계의 여성 관리자는 본사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일반 관리자로서 조직의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Kurtulus & Devey, 2012)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고위직 여성 임원의 비율은 전체 여성 인력 중에서 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에 진출한 여성 비율로 계산한 선행연구(곽현주·최은영, 2014)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본 패널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인사 파트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이사+사외이사)/전체 여성정규직 직원*100 식으로 계산한 뒤, 정규분포화를 하기위해 로그값을 취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기업 내 여성비율의 랭킹은 동종산업에서 여성 노동력의 비중으로써, 각 기업의 여성인원을 총 근로자수로 나누어 구한 뒤 동종산업내에서의 기업의 여성비율의 순위(ranking)을 구하였다. 또한 승진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개인차를 통제하기 위해, '근속년수', '교육수준'과 조직적 요인으로 전반적인 인사관리방식에서의 '성과강조' 그리고 기업규모를 사용하였다. 또한 먼저 근속년수는 근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남녀 모두 승진 경험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승진의 경우 장기간 근속의 장기화에 따라 여성도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근속년수와 교육수준 같은 인적자본 요인은 승진, 임금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arnicer et al, 2003; 강혜련·조미영, 2007)통제하고자 했다. 조직차원의 '성과강조'의 인사관리방식은 실적과 연계하여 승진과 보상을 실시하는 인사시스템이므로 승진과 임금에 영향(박상언, 1997)을 줄 수 있으므로 통제하였다. 성과강조는 조직분위기나 문화를 묻는 문항 중 '성과를 강조한다' 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값이 클수록 직장의 성과강조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규모는 정규직 직원의 수로 기업규모를 측정하였는데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아 자연로그화된 값을 사용하였다. 기업의 규모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여성 관리자의 사회자본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수한, 안리라, 2018), 여성 관리직의 진출이 더 용이하기 때문(맥킨지 보고서, 2011)에 기업의 규모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했다.

IV.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2018년 매출액 600대 기업 산업별 여성 직원 비율은 국내 전체 산업의 취업 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23.8%이다. 그 중에서 교육서비스(70.6%) 및 제조업분야가(58.7%)가 높았으며, 전문, 과학 서비스 분야(16.1%) 및 건설업(9.0)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2018). 이는 현재 한국의 여성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자리 자체에 내포된 특성이나 기업의 조직적 특성이 여성의 고용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주장과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금재호 2010).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은 여성노동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며 일자리 자체에 내포된 특성이나 기업의 조직적 특성이 여성의 상대적인 승진과 임금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기남, 2002; 이주희, 2003).

아래 <표 2>는 가설 검증에 앞서 표본의 특성 및 각 변수 간의 상관성과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이는 여성 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결과로써 먼저, 종속변수인 승진은 평균이 0.4이며, 표준편차가 0.5이다. 이것은 전체 표본에서 평균에 비해 승진이 40% 정도로 데이터 기간(8년 동안) 40%의 대리이상의 중간관리자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여성의 비율과 중간관리자의 승진과의 관계는($r=.004$, $p=.05$)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고 고위직 여성의 비율과 임금사이에는 정(+)의 관계($r=.02$ $p=.1$)로 나타났다. 또한 동종산업내 여성비율의 순위(ranking)와 승진과는($r=.05$, $p=.05$)로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였다. 근속년수와 승진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r=.07$, $p=.01$)로 나타났고, 교육수준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의 관계($r=.01$, $p=.05$)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반적인 인사관리방식인 성과강조와 기업규모 또한 승진과 임금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승진과 임금에 근속년수, 교육수준, 성과강조, 그리고 기업규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상관관계분석

	Mean	SD	1	2	3	4	5	6	7
1. 승진	0.4	0.5							
2. 임금	5.8	0.4	0.02						
3. 고위직 여성 비율	0.013	0.03	0.04**	0.02					
4. 동종산업내 여성비율순위(ranking)	22.9	17.4	-0.05**	-0.03**	0.034**				
5. 근속년수	9.6	5.7	0.07***	0.01**	0.043***	0.007			
6. 교육수준	2.9	0.9	0.06***	0.01	0.03**	-0.03**	0.001		
7. 성과강조 문화	3.8	0.9	0.05***	0.06**	0.16***	-0.08***	-0.6***	0.07***	
8. 기업규모	2.5	1.2	0.13***	0.09***	-0.028	-0.009	0.05***	0.07***	0.03**

* p<.1** p<.05*** p<.01 *임금: log월평균임금 **동종산업내 여성비율 ranking:랭킹이 높을수록 여성비율 낮음

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개인이 승진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여성 관리자의 승진에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동종산업 내의 여성비율의 순위(rank)가 두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승진에 대한 분석은 패널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승진의 패널로짓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의 모형2에서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중간관리자의 승진에 정(+)의 영향($r=.2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은 지지되었다. 이는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 내의 성 차별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이주희, 2003),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성 부하직원과의 동일성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고위직으로 여성의 승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과 일관성이 있다(Hultin and Szulkin, 1999).

또한 모형3에서 나타난 동종산업 내 여성인력의 비중이 더 높을수록, 즉 여성인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여성 임원비율이 승진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혹은 여성인력의 집중도가 낮을수록 여성임원비율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다)이라는 조절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동종업계 내 여성인력의 비율이 낮을수록(산업 내 다수 기업 중 해당기업의 여성인력 비율의 랭킹이 낮을수록) 여성임원비율이 승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약화시켰다. 그러므로 가설 3도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 내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임원의 비중이 높다는 연구(CEO 스코어 데일리)와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채용, 승진, 임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온다는 기존의 주장(이주희, 2003; Moor et al, 2005)과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

임금에 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의 모형2에서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중간관리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의 분석결과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은 중간관리자의 임금에 정(+)의 영향($r=.36$, $p=.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사전연구에서 제시한 고위직 여성임원의 높은 비율은 성별의 임금격차의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Cohen and Huffman, 2007). 더욱이 조절변수인 동종산업 내 여성비율의 랭킹에서도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임금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직종 내 여성고용비율 증가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

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그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며, 남녀 간 임금격차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 여성고용 비율의 증가는 임금격차를 유지 내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노동연구원, 2018).

따라서 조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규모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관리자가 역량을 발휘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양희·김홍숙, 2000; 이주희, 2003)는 사전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 여성임원의 비율과 동종산업 내 여성의 비율 랭킹의 조절효과는 부(-)의 방향을 보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근속년수와 교육수준은 승진과 임금에 모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더욱이 성과강조의 조직문화는 승진과 임금에 모두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는 조직목표 중의 하나로서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를 의미한다.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성과향상을 위한 가정은 조직 내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는 것이다(Barney, 1986). 성과지향성은 조직이 업무성과의 향상이나 수월성을 어느 정도 강조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상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성과지향성이 높은 조직은 개인의 성취를 중시하고 개인의 성취에 따라 보상이나 지위가 달라져야 함을 인정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는다. 또한, 성과지향성이 높은 조직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이나 성과의 향상을 요구하고 이를 가치부여 한다(Schneider and Barsiyyx, 1997; House, et. al., 2004). 성과지향성이 높은 조직문화에서는, 성과지향성이 낮은 조직에 비해, 여성 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즉, 성과지향적 조직에서는 관리자에 대한 평가는 그가 또는 그녀가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하는가의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성별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 작용할 여지가 그만큼 작아진다(Rosener, 1990). 성과와 성취를 강조하는 조직문화에서는 전문적 권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는 여성(또는 소수 집단)관리자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원숙연, 2010). 그러나 임금에서는 성과지향적 문화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근로자는 주로 특정 직종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으며(직종격리현상), 이로 인해 해당 직종에 여성 노동력은 초과공급 상태로 인해 해당 직종의 여성 임금이 하락하게 되어 성별 임금격차는 증가한다고 말한다(Bergname, 1974). 즉, 인적자본 수준의 성별 차이, 성별직종 분리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국 성별 임금 격차의 또 다른 주요인이다(이은정, 2019). 이것은 남

성집중직종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 직종에 성차별로 채용되지 못한 여성 노동력이 일부 직종에 과잉 공급될 경우 임금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금재호, 2004; England, et al., 1988). 결과적으로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가 여성의 경우 더 크다면 2차 노동시장 여성은 분절구조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게 되고, 이는 한국의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유지하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정, 2019). 또한 강승복(2008)의 연구에서도 직종 내 여성 근로자의 분포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직종 내 여성의 비율은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3〉 기업의 여성임원의 비율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 (패널로지모형)

독립변수	승진(승진=1, 그렇지 않으면=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고위직 여성 임원 비율		0.29**	0.20*	0.08*
동종산업내여성비율 ranking			-0.02***	-0.02***
고위직 여성비율*산업 내 여성비율 ranking				-0.009**
근속년수	0.0004***	0.0003***	0.0003***	0.0003***
교육수준	0.00006***	0.00004**	0.00004**	0.00003***
성과강조	0.08*	0.08*	0.002	0.002
기업 규모	0.12**	0.10	-0.08*	-0.08*
연도효과	Yes	Yes	Yes	Yes
관측치	4572	2835	2002	2002
log likelihood	-2373.75	-1660.94	-1190.84	-1190.80
Insig2u	-1.36316	-8.5937	-2.1547	-2.14672
sigma_u	0.50582	0.01361	0.3405	0.3419
rho	0.07216	0.000056	0.03404	0.03430

p<.1** p<.05*** p<.01 *동종산업내 여성비율 ranking:랭킹이 높을수록 여성비율 낮음

*임금: log월평균임금

〈표 4〉 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회귀모형)

독립변수	임금(ln pay)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고위직 여성임원 비율		0.36	0.27	0.17
동종산업여성비율 ranking			-0.14**	-0.14**
고위직 여성임원비율*여성비율 ranking				-0.0005
근속년수	0.02**	0.02**	0.02**	0.02**
교육수준	0.13***	0.09***	0.05*	0.01*
성과강조 문화	-0.7**	-0.2*	-0.2	-0.2
기업 규모	0.3***	0.3***	0.2*	0.02**
연도효과	Yes	Yes	Yes	Yes
adjusted R2	0.016	0.009	0.0036	0.0032
F value	19.93	6.21	2.22	1.91
Number of Observation	4572	2835	2002	2002

p<.1** p<.05*** p<.01 *동종산업내 여성비율 ranking:랭킹이 높을수록 여성비율 낮음

*임금: log월평균임금

IV. 결론 및 한계점

이 연구에서는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과 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의 관계가 동종 산업 내 여성비율에 대한 비중에 의하여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동종 산업 내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위직 여성임원의 비율은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긍정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Cohen and Huffman (2007)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여성 고위직 임원은 여성 부하직원들에게 채용, 승진, 임금결정에 내 집단 선호를 보이며, 여성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와 멘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낮은 지위의 여성들의 성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Cotter et al. 1997; Nelson and Bridges, 1999). 그러므로 Hultin and Szulkin(2003b)가 제시

한 여성고위직 임원의 '변화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위직 여성의 비율과 중간 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대한 기업 내 여성의 비율의 랭킹의 조절효과는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종 산업 내 타 기업에 대비해 기업 내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성 중간관리자의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진다. 반대로, 동종 산업 내 기업 내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성의 승진이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 여성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사내 비공식모임 참석 및 CEO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른 그룹에 비해 승진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장한나, 2017). 또한 한 사업장 내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여왕벌 신드롬, 역할일치이론이 약하게 작동하며 동성의 상사일 때 직장 내 스트레스가 낮고 승진확률이 높기(Moore et al, 2005) 때문에 여성의 비율은 여성리더(임원)가 기업 내 성별차이의 효과적 관리나 다양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높은 여성비율을 가진 기업일수록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여성 상사일 때 승진확률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Gardiner and Tiggemann, 1999).

셋째, 지금까지 사전연구들에서 여성 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들의 학력, 교육훈련 여부, 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여성에게 강요되는 일-가정 균형 압박, 가족의 지지 등과 같은 사회적·문화적 영향(권혜원·권순원, 2013), 여성의 승진기회를 낮추는 직무분리(박기남, 2002), 낮은 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장덕진·황정미, 2003)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관행(이주희, 2003; Gorman, 2006; Reskin & McBrier, 2000)등 대부분 승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중간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고위직 임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여성고위직 임원의 기업 내 여성정책에 대한 영향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군집화 될 수 있으며 특히 산업 내 다른 기업에 비해 여성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경쟁기업 대비 기업 내 여성비중이 높은 조직일수록 여성임원의 승진, 임금 결정 등 여성관련 인사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성 중간관리자에서 고위직으로의 승진과 임금의 상승은 단순히 여성의 고용과 여성관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성 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조직의 ‘업무를 행하는 방식’과 성차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고위관리직의 부재, 형식주의, 감정의 결여, 도구주의적 태도 등 남성적 특성과 관련된 조직의 문화는 여성으로 하여금 조직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 중간관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와 직무를 담당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Miller, 1997). 즉, 여성이 임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의 핵심 업무 경험의 부재와 출산 및 육아를 전담하면서 일을 하는 위킹맘은 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육아휴직을 거치면서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 이런 경력 경로는 조직의 의사결정 수준으로 승진하는데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한다(Melamed, 1995, Grant, 1988). 또한 남성중심적 조직문화가 지배적인 조직에서 근무환경, 인사시스템 등이 남성에게 더 호의적이므로 남성의 고위층 승진이 더 많을 수 있다. 채용, 교육 및 훈련, 승진 심사 등 인적 자원관리 과정의 모든 측면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Fagenson, 1990; Cannings & Montmarquette, 1991). 더 나아가 남성으로만 구성된 최고경영층은 여성으로 하여금 롤모델 부재, 승진 상한선 제한, 자기 효능감 상실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남성 리더들은 여성이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구자숙, 2006; Burke & Nelson, 2002). 이러한 장애물들이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경력열망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회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본인이 목표한 경력경로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주관적 경력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한수진·강소라, 2018). 그러므로 조직에서 여성임원의 높은 비율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의 영향으로 승진의 열망을 더 가질 수 있게 만들며, 기업 내 성평등적 행동과 조직의 가정후원적 조직문화, HR제도 등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용적 · 학술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기업에서 임원이 된 여성들이 후배 여성들을 지지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속해서 여성임원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들이 다수인 임원진은 남성 후계자를 물색하여 키워주는데, 소수로 존재하는 여성들조차 여성 후배들을 키워주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앞으로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뚫고 나가야 하며, 그로 인해 이미 확보된 숫자조차 유지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대에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임원 및 리더들은 여성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하며, 이들의 지지자 역할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임원 비율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본 연

구의 여성임원의 역할의 초점은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적 시사점으로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 조치는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일시적인 숫자 늘리기 보다는 여성임원을 육성하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에서 CEO와 인사권을 가진 임원들을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CEO의 인식수준은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과 여성리더 육성에 강제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CEO와 협약을 맺고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실천’ 등 정부 차원에서 다짐과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셋째, 기업의 측면에서 이사회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경영현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배주주 및 최고경영자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규모의 적정성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에서도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이사회에서 여성 이사 비율이 높아질 경우 독립성이 제고되어 지배주주 및 경영진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Adams et al, 2009). 더욱이 여성임원이 존재할 때 기업 가치와 성과가 높다는 결론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서는 여성 인력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이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직에 대한 공헌도가 낮고 업무수행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편견은 결국 남성 중심적인 기업문화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문화 재정립을 위한 조직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을 정례화하고 업무방식 개선 등의 다양한 노력이 고려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윤진수, 2019)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여성임원 비율이 중간 여성 관리자의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으나, 여성관리자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의 비교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여성 관리자 패널 데이터는 개별 기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업 내부의 승진 체계에 대한 세부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기업들의 승진 체계나 구조 등을 다루지 못하여, 각 기업의 승진비율이나 기업 내부의 승진 관련 인사제도, 여성이 조직 내 여성차별을 딛고 본래도 진입의 변화의 속도와 강도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고위직 여성임원들의 여성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멘토링, 네트워킹,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한 역할” 등의 노력으로 인해 여성이 조직 내 여성차별을 딛고 본궤도 진입의 변화의 속도와 강도 등에 관한 예측(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의 양과 질의 문제)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연구로 진행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곽현주·최은영(2014). “일·가정 전이, 직장 내 공정성 및 시간당 임금이 여성관리자의 경력전 망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175-210.
- 강승복(2008). 직종 내 여성고용의 증가와 임금격차. 노동리뷰. 42: 52-62.
- 강혜련·조미영(2007). “남녀관리자의 경력성공 모형비교”. 인사조직연구, 15(2). 1-38.
- 구자숙(2006). “조직내 승진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간 차이: 네트워크 특성, 리더십 행동, 성정체성, 다양한 역할에의 몰입, 멘토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 학회지(여성). 11(3). 287-309.
- 권혜원·권순원(2013). “일·가정 양립정책이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후원적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3(3): 89-117.
- 곽현주·최은영(2014). “일·가정 전이, 직장 내 공정성 및 시간당 임금이 여성관리자의 경력전망에 미치는 영향”. 여성연구: 175-210.
- 금재호(2004).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 월간노동리뷰. 6(3). 259-290.
- _____(2010).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되었는가성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월간노동리뷰.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동·김화연·문상호(2015). “조직우선주의가 여성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여성연구. 95(4). pp 73-108.
- 김난주·김태홍·이서현, 전병유·박미연(2017).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성한(2010). 임금의 공정성 지각이 구성원의 신뢰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중소 운수업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한·신동은(2014). “기업 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경험”. 한국사회학 48(4). 91-125.
- 김수한·안리라(2018). “여성관리자의 시간제약과 직장 내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52(1). 39-75.
- 김영미(2015). “분절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의 복합성”. 경제와 사회. 106. 205-237.
- 김영옥(2010). 안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4.

- 김양희·김홍숙(2000). 기업 내 남녀 관리자의 리더십 비교연구. 여성정책연구원.
- 김효선·이수연(2017). “인지된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조직성과와 일가족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8.
- 김현동(2018). “관리자의 성별과 임금수준 그리고 의사소통애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8(9): 415-426.
- 맥킨지 보고서(2011). “우먼코리아”. 매일경제신문사.
- 박기남(2002). “관리직 여성의 사회적자본과 성별직무분리”. 한국사회학회. 36(6). 109-135.
- 박계홍(1995). “임금에 대한 태도가 직무몰입도와 조직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논문집. 14(1). 205-227.
- 박상언(1997). “기업 내 신인사제도의 도입 효과에 따른 경험적 연구: 조직구성원들의 직무관련 태도와 심리적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제7권, 123-30.
- 원숙연(2010).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여성관리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4(2). 63-84.
- 원혜연·이수영·안선민(2018). “여성임원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 기관의 육아휴직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3). 117-143.
- 윤진수(2019).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제언. 한국지배구조연구원.
- 이동수(2009). “중앙행정부처 남녀관리자의 리더십 비교”. 사회과학논총. 28(1). 157-181.
- 이은정(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 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1). 81-110.
- 이지원·어용숙·하영수(2014). “간호조직문화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3). 75-87.
- 이지혜·조광희·박시훈(2019). “여성임원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32(9). 1633-1651.
- 이주희(2003). “여성관리직 진출기업의 특성 인적자원관리관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 107-130.
- 임희정(2009). “조직문화, 멘토링 및 네트워킹이 여성관리자의 경력성공에 미치는 효과” 인사관리연구. 33(4). 95-120.
- 장덕진·황정미(2003). “여성의 사회적 자본 기업조직 내 연결망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9:130-160. 비판사회학회
- 장한나(2017).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상사 성별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

- 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경제연구집. 40(4). 61~89.
- 한국건설기술인협회(2018). “건설업 ‘여성인력’ 11% 불과…성별 편중 심각”. 건설경제 신문.
- 한국노동연구원(2018). “여성 관리자 현황과 과제”. 패널브리프. 15호.
- 여성가족부(2018). “지난해 500대 기업 여성임원 비율 3.0%” www.mogef.go.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 “성별임금격차 감소,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중하위층 여성에만 나타나는 한계”. KWDI Brief. 48호.
- _____ (2019).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전략 연구.
- 한수진·강소라(2018), “여성 관리자의 경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열망 그리고 멘토링/ 교육훈련의 효과”. 대한경영학회지. 제31권 제4호. 743-760.
- 황성수(2017). “남녀관리자의 승진요인 분석: 승진에 미치는 변인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92(1). 57-83.
- Acker, J., & Van Houten, D(1974). Differential Recruitment and Control: The Sex Structuring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2). 152-163.
- Adams, R. B., Grammer, K., & Kleck, R. E.(2009). Face gender and emotion expression: Are angry women more like men? Journal of vision, 9(12). 1-8.
- Atchison, A(2015). The Impact of Female Cabinet Ministers on a Female-Friendly Labor Environment.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36(4). 388-414.
- Athey, Susan, Christopher Avery, and Peter Zemsky(2000). “Mentoring and Diversity.” American Economic Review. 90 (4):765-786.
- Barney, J. B(1986), “Organizational culture: Can it be a source of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 No. 3. pp. 656-665.
- Baron, James, and William Bielby(1980). “ringing the Firms Back in: Stratification, Segment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737-65.
- Bergmann, B. R(1974). “Occupational Segregation, Wages and Profits When Employers Discriminate by Race or Sex.” Eastern Economic Journal. 1(2). 103-110.
- Bertrand, M., & Hallock, K. F(2001). The Gender Gap in Top Corporate

- Jobs. ILR Review. 55(1). 3-21.
- Burt, R. S(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39-365.
- Burke, R. J. & Nelson, D. L.(2002). Advancing Women in Management: Progress and Prospects, In Burke, R. J. & Nelson, D. L. (Eds.). *Advancing Women's Careers: Research and Practice*. Oxford: Blackwell. 3-14.
- Burke, S. & Collins, K. M(2001). Gender Differences in Leadership Styles and Management Skills. *Women in Management Review*. 16(5). 244-256.
- Cannings, K. & C. Montmarquette(1991), Managerial Momentum: A Simultaneous Model of the Career Progress of Male and Female Manag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4(2). 212-228.
- Cannon-Bowers, J. A., & Salas, E(1997). Teamwork competencies: The interaction of team member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Workforce Readiness: Competencies and Assessment*. 151-174.
- Carnicer, M. P., Sanchez, A. M., Perez, M. P., & Jimenez, M. J(2003). Gender differences of mobility: analysis of job and work-family factors. *Women in Management Review*. 18(4). pp. 199-219.
- Catalyst, & Catalyst, inc.(2004). *The Bottom Line: Connecting Corporate Performance and Gender Diversity*. Catalyst.
- Cohen, Philip N., and Matt L. Huffman(2007). Working for the woman? Female managers and the gender wage ga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2 (2): 681-04.
- Cooke, F. L., & Xiao, Y(2014). Gender roles and organizational HR practices: The case of women's careers in accountancy and consultancy firms in China, *Human Resource Management*. 53(1): 23-44.
- Cotter, David A., JoAnn M. DeFiore, Joan M. Hermsen, Brenda Marsteller Kowalewski, and Reeve Vanneman(1997). All women benefit: The macro-level effect of occupational segregation on gender earnings 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714-4.
- Dasgupta, N., Scircle, M. M., & Hunsinger, M(2015). Female peers in small work groups enhance women's motivation, verbal

- participation, and career aspirations in engineer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16). 4988-4993.
- Dezso, C. L. Ross. D. G. and J. N. Uribe(2013). "Why are there so Few Women Top Managers? A large-sample empirical study of the antecedents of female participation in top management."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11 (1).
- Dolan, J(2000).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Gender, Attitudes, and Representative Bureaucra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3). 513-529.
- England, P., G. Farkas, and B. S. Kilbourne, et al.(1988). "Explaining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Wages: Findings From a Model with Fixed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4). pp. 544-558.
- Fagenson, E.A.(1990). "At the heart of women in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 9: 1-8.
- Gardiner, M., & Tiggemann, M(1999). Gender differences in leadership styl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in male- and female-dominated industrie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 301-315
- Gorman, E(2006). Work uncertainty and the promotion of professional women: The case of law firm partnership, *Social Forces*. 85: 864-890.
- Gorman, Elizabeth H., and Jlie A. Kmec(2009). Hierarchical rank and women's organizational mobility: Glass ceilings in corporate law firm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 (5): 1428-4.
- Grant, J(1988), Women as Managers: What can they offer to Organizations, *Orgnaizational Dynamics*. Vol. 16(3): 56-63.
- Higgins, M. C., Kram, K. E(2001). Reconceptualizing mentoring at work: A developmental network perspectiv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264-288.
- Hirsh, C. Elizabeth(2009). The strength of weak enforcement: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Charges, Legal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on Workplace Segreg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2). 245-271.

- House, R. Hanges, P., Javidan, M., Dorfman, P., and Gupta, V(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OLBE Study of 62 Societies. Sage.
- Hultin, M., & Szulkin, R(1999). Wages and Unequal Access to Organizational Power: An Empirical Test of Gender Discrimin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3). 453-472.
- _____(2003b). Mechanisms of Inequality. Unequal Access to Organizational Power and the Gender Wage Gap,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ume 19(2): 143-1.
- Ibarra, H(1993). Personal networks of women and minorities in management: A conceptual framework.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1). 56-87
- Ibarra, H., & Andrews, S. B(1993). Power, social influence, and sense making: Effects of network centrality and proximity on employee percep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77-303.
- Lipman-Blumen, J(1992). Connective Leadership: Female Leadership Styles in the 21st-Century Workplace. *Sociological Perspectives*. 35(1). 183-203.
- Lucifora, C. & Vigani, D(2016). What if your boss is a woman? Work organization, work-life balance and gender discrimination at the workplace. IZA Discussion Paper No. 9737.
- Jackson, Susan, and Aparna Joshi(2004). "iversity in Social Context: A Multi-Attribute, Multi-Level Analysis of Team Diversity and Performance in a Sales Organiz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 672-702.
- Kirchmeyer(2002). "Gender Differences in Managerial Career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urnal of Business Ethics*. 37: 5-24.
- Konrad, Alison M., Vicki Kramer, and Sumru Erkut(2008). Critical mass: The impact of three or more women on corporate boards. *Organizational Dynamics*. 37:145-4.
- Kurtulus, F. A., & Tomaskovic-Devey, D(2012). Do Female Top Managers Help Women to Advance? A Panel Study Using EEO-1 Record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39(1). 173-197.

- Nelson, Robert L., and William P. Bridges(1999). Legalizing gender inequality: Courts, markets, and unequal pay for women in Americ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house, P. G(2010).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5thed.).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 Mamman, A(1990). Em ployees' Preferences for Paym ent System s: Theoretical Approaches and Em pirical Tes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 anagem ent. 30(1). 329-340.
- Melamed, T(1995), "Career success: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47: 35-60.
- Miller, Albert J(1997). "Organizational culture." pp.321-322 in Paula J. Dubeck & Kathryn Borman (eds.). Woman and Work: ARead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 Mincer, J. and S. Polachek(1974). "Family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76~108.
- Moore, Sarah, Leon Grunberg and Edward Greenberg(2005). "Are Female Supervisors Good for Employee Job Experience, Health and Wellbeing?" Women in Management Review. 20(2): 86-95.
- Oaxaca, R. L., & Ransom, M. R(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1). 5-21.
- Opstrup, N. & Villadsen, A. R(2015). The right mix? Gender diversity in top management teams and financial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2). 291-301.
- Pergamit, Michael R. and Jonathan R. Veum(1999). "What is a Promot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2(4): 581~60.
- Podolny, J. M., & Baron, J. N(1997). Resources and relationships: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3-693.
- Powell, G. N., & Greenhaus, J. H.(2010). Sex, gender, and the work-to-family interface: Exploring negative and positive interdependenc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3(3): 513-534.

- Reskin, Barbara F., Debra B. McBrier, and Julie A. Kmec(1999). "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Workplace Sex and Race Composition." *Annual Review Sociology*. 25: 335-361
- Reskin, Barbara F., Debra Branch McBrier(2000). "Why Not Ascription? Organizations' Employment of Male and Female Manage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2). 210-233.
- Rivera, L. A(2012). Hiring as Cultural Matching: The Case of Elite Professional Service Fir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6). 999-1022
- Rosener, J(1990). Ways Women Lead. *HBR*. 68: 119-125.
- Schneider, S. & Barsiyx, J(1997), *Managing Across Culture*. London: Printice Hall.
- Seibert, S. E., Kraimer, M. L., & Liden, R. C(2001). A social capital theory of career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19-237.
- Skaggs, Sheryl, Kevin Stainback, and Phyllis Duncan(2012). Shaking things up or business as usual? The influence of female corporate executives and board of directors on women's managerial represent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Spencer, Steven, Claude Steele, and Diane Quinn(1999). "tereotype Threat and Women's Math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4-28.
- S Snell, G Bohlander(2011). *Managing Human Resources: Cengage Learning*. book.
- Tate, G. & Yang, L(2014). Female leadership and gender equity: Evidence from plant clos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7(1). 77-97.
- Turco, C(2010). Cultural foundations of tokenism: Evidence from the leveraged buyout indust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 894-913.
- Valcour, P. M., & Ladge, J. J(2008). Family and career path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women's objective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Integrating traditional and protean career explan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 300-309.

- Wayne, S. J., Liden, R. C., Kraimer, M. L., & Graf, I. K(1999). The role of human capital, motivation and supervisor sponsorship in predicting career succ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577-595.
- CEO스코어 데일리(2014.04.16). “대기업 여성임원 승진 ‘하늘의 별타기’... ‘0.07%’에 불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 2016. 2.20 인출.
- OECD 보고서(2018).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달성”.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and Wage of Female middle-level managers and Female Executives ratio in Firms

Bu-Kyung Choi*·Ji-Young Ah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promotion and wages of female middle managers in firm. To this end, the effect of the ratio of high-ranking women on the promotion of middle-ranking female managers using the first and fifth year data of the female managers panel logit was analyzed and the effect of the ratio of high-ranking female executives on the wage level using th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women in high-ranking positions in companies, the more likely it is to influence the promotion of female middle-level managers. This is in line with claims that high-ranking women serve as “changed agents” who can be promoted to female management positions in subordinate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proportion of high-ranking female managers on the wages of female middle-level managers showed that the promotion and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 positive, but not significant.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ed the assumption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comparison to their peer group, the greater the concentration of female employees,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f female executives on promotion and wages (or the lower the concentration of female employees, the less impact of female executives on promotion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r the proportion of female workers in the peer group (the lower the ranking of the corresponding companies among the many companies in the industry), the weaker the positive effect the female employee ratio has on promotion.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result were discussed.

Keywords : High-level female executives, mid-level female managers, promotions, wages

* Ph.D.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E-mail:cbk1903@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of Management, Ewha School of Business,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jy-ahn@ewha.ac.kr.

사관생도의 인구통계적 변인, 교육경험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 육군 K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정병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 K사관학교 생도의 인구통계 변인과 교육경험이 양성평등의식과 가지는 관계를 규명하고, 그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양성평등의식척도를 사용하여, 육군 K사관학교 남녀 생도 225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수된 데이터는 일원 분산분석, 일원 다변량분석, Kruskal-Wallis 검정 등을 실시했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육경험에 따라서 양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육군 K사관학교 생도들의 학년은 사관학교 입학 이후 이수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효과를 나타내는 도구변수로서 학년에 따라서 성평등의식 전체 평균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네 가지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사관생도들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육내용은 영상자료, 관련 사례, 통계치, 관련 이론 순이었다. 선호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성평등의식 전체 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가정과 사회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제어 : 사관생도, 양성평등,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교육

* 육군3사관학교 교육학 교수(byong3@hanmail.net)

I. 서론

양성평등기본법(법률 12698호, 2014.5.28.)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유엔인권협약 중「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서는 성차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성에 기반을 둔 차별(Sex Based Discrimination)로서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성원의 처우를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유리 혹은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79).

사회가 고도화, 전문화될수록 구성원들의 고등교육 및 전문직 진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인력의 진출과 성평등사회 구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지난 50여 년간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을 이룩했는데, 1960년 1인당 80달러였던 국민소득이 2018년 3만 달러를 돌파했다(한국은행, 2018).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요인은 무엇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의 배출인데, 여기에는 다수의 여성인력이 포함된다(Kim, Lee, & Shin, 2016).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인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표인 ‘2016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여전히 144국 중 116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7년 ‘이코노미스트’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29개국 가운데 29위로 나타나 양성평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권혜련, 2017).

한편, 여성인력의 고급화에 따라 군대 내에서도 여군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여군의 역사는 국군의 창설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2000년도 이전까지는 국군 전체 병력 약 60만 명 중 1,500여 명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이후 군내 여성인력 활용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여 여성인력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2016년에는 1만 명을 돌파했고, 2018년에는 11,400명으로 군 전체 인력의 6.2%를 넘어섰으며, 향후 2020년까지 8.8%로 확대할 계획이다(국방부, 2018). 그렇지만 아시아권 국가 및 세계 선진국 군대의 여성인력 활용비

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정주성 외, 2016). 또한 단순한 여군 인력의 증가보다 여군 규모에 비례하는 인력활용 정책과 성평등의식이 보편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정계룡, 2018).

여군의 증가와 함께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것도 현실인데, 2013년 48건에서 2014년 83건, 2015년 106건, 2016년에는 127건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범죄의 절반 이상이 강간·강제추행·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강력범죄라는 것이다. 2013년의 경우 간부에 의한 범죄 중 성범죄가 32건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50건(60.2%), 2015년 51건(48.1%), 2016년 73건(57.4%)을 기록했다(조해수, 2017). 여군 및 여성 군무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근저에는 여군을 전투 공동체의 일원이자 동료로 보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전통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군대조직에서 소수 위치에 머무는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있다(조은영·서동하, 2018).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군 당국에서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국방부에서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2015년부터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진급심사에 반영하는 등 교육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9월에는 국방부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성평등정책을 객관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희완, 2018). 특히 군내 양성평등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군인의 양성과정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인식수준의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이종욱, 2017) 국방부에서는 2019년도부터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에 성인지 향상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전 생도들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김혜영, 2018).

사관생도들은 임관 후 초급장교로서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부하들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고급장교로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핵심인력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양성평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갖춰야만 향후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정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성평등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 인구통계적 변

인과 교육경험이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은정, 2001; 오인숙, 2012; 이영란 등, 2013), 이러한 요인들이 사관생도 성평등의식과도 관계가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관생도 인구통계적 변인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사관생도 사관학교 경험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사관생도가 인식하는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넷째, 사관생도가 인식하는 효과적인 양성평등 교육방법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분석

1. 양성평등의식의 개념과 중요성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으로 구분되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상태로서,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기회, 조건 등에서도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이러한 성평등지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과제로서 중요성이 높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UNDP, 2019). 국가 및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경제적 생산성이 높고, 가사분담율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De Looze 등(2018)이 유럽과 북미 16개국에서 11~16세 청소년 175,470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연구 결과 국가 간 소득 차이의 효과를 통제하고서도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의 청소년들이 생애 만족감, 가족의 지지 인식 수준이 높았다. 또한,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포부, 생애 만족감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생애 만족감 평균을 끌어 올렸다.

개인적 차원에서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높고, 자녀와의 관계가 촉진적이며(최경아·김혜원, 2016), 성 정체감 및 성적 자율성이 높으며(김연제 등, 2016), 생의 의미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았다(이경순·정성진, 2006).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도 성평등의식이 높은 조직일수록 일-가정 양립수준이 높고, 여성의 이직 의도가 낮으며, 만족도가 높다(김준기·양지

숙, 2012). 반면, 성평등의식이 낮은 조직은 성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 갈등이 잠재되어 있고(강현아 등, 2000), 여성의 이직 의도가 높다(이수연, 2006).

성평등의식 수준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양상은 군 조직에서도 나타는데, 군 조직 내에서 성평등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서구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군내 내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군조직의 단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진국 군대에서는 성평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Eulriet, 2009). 군내 여성에 대한 연구는 당위적 수용(inclusion)에서부터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 특유의 능력에 대한 조명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향후 미래사회의 군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근무하고 참여하는 군의 모습을 건설해야 함을 강조한다(김엘리, 2015; Duncanson & Woodward, 2016). 군 조직에서 양성평등은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군 작전 및 업무수행간 성차별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요소의 방지 등 매우 다양한 장점이 있다(OSCE, 2017).

2.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성평등의식(gender equalitarianism)은 성평등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및 사회적 태도인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이 양성평등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요인들은 크게 개인의 성장배경 요인(부모의 가사분담 수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 교육경험(남녀공학 여부, 성평등교육 이수 등), 그리고 사회활동 경험(이성과 함께 하는 직장, 단체생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Dorgan 등(1983)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성평등에 대한 태도가 달랐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성역할 및 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Pampel(2011)은 성별, 학력 등 개인적 요인이 성평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는데, 그는 개인적 요인들이 사회변화와 맞물려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가 산업화, 고도화될수록 여성의 학력 수준과 사회진출의 욕구가 상승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요구가 높아진다.

다음으로 성장배경 요인 중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분담과 성평등 수준, 이성형제, 자매의 존재 여부 등은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강경석·박연희, 2008; 박옥임·임정순·김정숙, 2005). 강경석과 박연희(2008)의 연구

에서 아동은 부모의 관계 및 역할분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역할 정체감 및 성평등에 대한 의식수준을 형성한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머니의 학력, 사회진출 여부 등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및 성평등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박옥임·임정순·김정숙, 2005). 성장배경 변인 중 종교 역시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이슬람교도는 대체로 성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Diehl, Koenig & Ruckdeschel, 2009). 옥복연(2011)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불교의 교리가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의식행사에서 성평등에 저촉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교육경험도 성평등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학교는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김재춘·왕석순, 1999). 양성평등의식 확립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과에서 양성평등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시간과 내용, 방법 등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윤후, 2018). 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 경험, 교사가 성평등을 교수-학습과정에서 실천하는 노력 등이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옥일남, 2015; Diko, 2007).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녀공학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남녀 별학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의정, 2008; 이라영, 2014). 그러나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남녀공학 집단과 남녀 별학 집단 사이에 성평등의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Sullivan, 2011).

사관생도들의 경우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연간 2회 이상 성폭력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특히 2019년부터는 ‘성인지 이해와 실천’을 필수 정규 교과목으로 이수를 받는다(김혜영, 2018). 현재 육군 K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제공하는 강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의 개념, 성평등 위반 사례, 성평등 실천 사례,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평등 구현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학점 32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전에 실시한 특강형식의 교육에 비해서 정규 교과목으로 제공되는 강좌는 생도들이 양성평등의식의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1. 사관생도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은 성평등의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1-1. 사관생도들이 성별, 가정에서 형제(자매)의 비율과 양육자의 가사분담 수준 등에 따라서 성평등의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종교에 따라 생도들의 성평등의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사관생도들의 교육경험은 성평등의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2-1. 중·고등학교 시절 남녀공학 경험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사관학교 입학 전에 성평등 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생도들이 없는 생도들에 비해 성평등의식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2-3. 사관학교 학년에 따라서 성평등의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사관생도들이 선호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조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육군 K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생도 225명인데, 이들은 약 30명으로 이루어진 34개 수강과목에서 임의로 추출한 8개 과목을 수강하는 생도들이다. 군의 설문통제 방침상 재직기관 이외의 사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관학교의 교육과정, 생도들의 연령, 교육받는 내용, 진로희망 등이 매우 유사하므로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K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표집된 생도들을 대상으로 2019년 3월에 약 2주 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집된 과목의 교수

들에게 협조를 구한 이후 생도들은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설문 도중에도 언제든지 응답을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하여 설문 조사의 윤리를 고려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N=221)

구 분		빈 도	비 율
학년	3학년	112	50.7%
	4학년	109	49.3%
성별	남자	206	92.8%
	여자	16	7.2%

4학년은 2018년 2월 입학하여 약 2년 동안 생도로서 학위교육, 군사학, 훈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그리고 훈육관과 지도교수로부터 수시로 성평등 관련 교육을 받았다. 반면, 3학년 생도들의 경우 2019년 2월에 입학하여 아직 정식 교육과정을 이수한지 채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년별 차이를 비교하기 적합하다. 연구대상에는 여생도 16명이 포함되어 성별 차이를 비교하기에도 적합하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인구통계적 변인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 연구도구

1) 성평등의식척도(종속변수)

양성평등의식의 측정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를 사용하였다(김양희·정경아, 1999). KGES는 가정, 교육, 사회문화, 직업 등 4가지 영역에서 남녀에게 주어지는 기회, 역할, 태도 등에서 평등의식을 묻는 40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역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다. KGES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고, 특히 노명인과 박영숙(2013)이 남녀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척도에 사용된 대표적인 문항은 “결혼한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가정영역)”, “리더십 훈련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필요하다(교육영역)”, “여자는 남자에 비해 폭넓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사회영역)”, “여자는 남자만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다(직장영역)” 등이다. KGES의 개발자는 신뢰도 계수를 Cronbach's α .96으로 보고했고,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86~.89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4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는 .89(가정), .88(교육), .88(사회), .86(직장) 등이었다.

2) 성장배경 문항

성장배경은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한 성별, 학력, 형제(자매)의 성별, 부모의 가사분담, 부모의 의사결정 방식,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수준), 종교 등에 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문항 가운데 학력은 K사관학교 입학성적으로 연속변수이고, 나머지 6개 문항은 명목변수이다.

3) 교육경험 문항

교육경험 문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평등의식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가운데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여부, 대학생 전공의 남녀비율, 대학 동아리활동의 남녀 비율 및 이성 간 교류정도, 성평등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에 관한 8개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했다.

4. 자료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 방법으로서 두 집단 평균비교는 t검증, 세 집단 이상은 일원분산분석을 적용했다. 먼저,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평균차 검정은 남녀 생도의 사례수 차이가 커서 비모수 평균비교 방법인 Mann-Whitney U검정을 사용했다. 형제(자매) 성별구성,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 종교 등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각 명목변인을 독립변수, 성평등의식 전체와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사후검정을 위해서는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Scheffe 방법을 사용했다. 이어서 연구가설 2-1부터 2-3을 검증하기 위해 남녀공학 여부, 입학 전 성평등교육 이수 여부, 사관학교 학년을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가 2개 집단일 경우 t-test를 사용했다. 또한, 독립변수가 3개 집단 이상일 경우 여생도의 사례수가 남생도에 비해 매우 작아서 등분산

성 가정, 모수통계를 위한 최소 사례수($n \geq 20$)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모수적 통계의 일원분산분석 방법인 Kruskal-Wallis H검정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 3-1부터 3-2를 검증하기 위해 선호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을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 전체와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며, 자료분석에는 IBM SPSS 20.0을 사용했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16개 변수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량은 <부록>에 제시했다.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의 평균($M=3.08$)은 만점이 4.0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었고, 학년($r=.31, p<.01$), 성평등교육 수강경험($r=.18, p<.01$), 성평등교육에 대한 흥미($r=.24, p<.01$), 성평등교육의 콘텐츠($r=.17, p<.05$)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2. 인구통계변인과 성평등의식의 관계

인구통계변인 중 먼저 성별에 따라서 성평등의식 전체와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 2>에 남녀 집단의 성평등의식 전체평균과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했다.

<표 2> 남녀집단의 성평등의식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분석($N=221$)

구분	성평등의식 전체		가정영역 성평등		교육영역 성평등		사회영역 성평등		직장영역 성평등	
	M	SD	M	SD	M	SD	M	SD	M	SD
남자($n=205$)	3.03	.43	3.03	.45	3.20	.51	2.87	.42	3.07	.55
여자($n=16$)	3.66	.23	3.55	.31	3.73	.26	3.61	.25	3.76	.28
Mann-Whitney U검증	317.00***		551.00***		596.00***		230.00***		407.00***	

*** $p<.001$

남생도($n=202$)의 성평등의식 전체 평균($M=3.03$, $SD=.43$)과 여생도($n=16$)의 성평등의식 평균($M=3.66$, $SD=.23$)은 표본통계량에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두 집단의 사례수가 약 13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방법 중 두 집단 평균차이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생도 집단의 전체 성평등의식 평균이 남생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U=317.00$, $p<.001$). 네 가지 하위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생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정($U=551.00$, $p<.001$), 교육($U=596.00$, $p<.001$), 사회($U=230.00$, $p<.001$), 가정($U=407.00$, $p<.001$) 영역 모두에서 성평등의식의 평균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형제(자매)의 성별구성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평균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_{(3, 214)}=1.70$, $p>.05$). 다만, 성평등의식 하위 4가지 영역(가정, 교육, 사회, 직장) 가운데서 직장영역의 성평등의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F_{(3, 216)}=2.68$, $p<.05$), Scheffe 방법을 사용한 사후검증 결과 형제(자매)가 없는 집단이 성별이 동수인 집단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에 따라서 사관생도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가사분담 정도를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4, 212)}=.44$, $p>.05$).

다음으로 종교유형에 따라서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종파를 독립변수,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4, 213)}=1.43$, $p>.05$). 다만, 성평등 하위영역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영역에서 종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F_{(4, 213)}=2.65$, $p<.05$), 집단 간 사례수가 다르기 때문에 Scheffe 방법을 사용한 사후검증 결과 원불교를 믿는 생도들이 기독교를 믿는 생도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종교유형에 따라서 성평등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교육경험이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교육경험이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중학생 시절 남녀 공학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평균차이를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표 3> 중학교 남녀 공학 경험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 Kruskal-Wallis 분석결과 (N=221)

집단	M	SD	χ^2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남녀합반	3.11	.46	10.68	3	.014
남녀분반	2.99	.43			
남자중학	3.03	.44			
여자중학	3.52	.20			

중학교 남녀 공학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_{(3)}=10.68$, $p<.05$), 여자 중학교 출신이 남녀 분반과 남자 중학교 출신 생도들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의 평균이 높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른 집단구분을 독립변수,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Kruskal-Wallis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했다.

<표 4> 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 일원분산분석 결과(N=221)

집단	M	SD	χ^2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남녀합반	3.07	.47	12.61	3	.006
남녀분반	3.12	.43			
남자중학	3.03	.42			
여자중학	3.71	.20			

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른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 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_{(3)}=12.61$, $p<.01$), 여자 고등학교 출신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라서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사관학교 입학 전 성평등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사관학교 입학 전 성평등 관련 교육 수강 여부를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3, 212)}=2.44, p>.05$). 하지만, 하위영역별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직장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F_{(3, 212)}=3.08, p<.05$), Scheffe 방식을 적용한 집단별 사후검증 결과 입학 전 성평등 교육을 자주 수강했던 집단이 전혀 수강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직장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이 높았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분산의 6%를 설명했다($\text{partial-}\eta^2=.06$).

〈표 5〉 성평등관련 교육 수강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 하위영역 분석(N=221)

하위영역	집단	M	SD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후검정	부분에타제곱
직장	전혀 없음	2.91	.73	집단간	3.01	3	1.00	3.09*	4)1	.06
	거의 없음	3.10	.53	집단내	69.46	214	.33			
	가끔 있음	3.32	.48	합계	72.46	217				
	자주 있음	3.43	.54							

* $p<.05$

다음으로 사관학교에 입한 한 이후 이수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년을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하여 분석했다. K사관학교는 민간대학으로부터 편입학하는 사관학교이므로 설문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3학년 생도들은 아직 사관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으나, 4학년 생도들은 1년간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 따라서 학년효과는 곧 사관학교의 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년을 독립변수로, 성평등의식 전체 평균에 대해서 t검증을 실시하고, 성평등의식 네 가지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일원중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한 후 결과를 〈표 6〉, 〈표 7〉에 제시했다.

〈표 6〉 학년에 따른 성평등의식 전체 평균 차이(N=221)

집단	M	SD	Leven's test		t	평균차	표준오차	95%신뢰구간	
			F	p				하한	상한
4학년	3.22	.44	2.71	.10	4.71***	2.74	.05	.15	.38
3학년	2.94	.42							

*** $p<.001$

학년에 따라 성평등의식 전체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t=4.71$, $df=216$, $p<.001$),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한 4학년($M=3.22$, $SD=.44$)이 그렇지 않은 3학년($M=2.94$, $SD=.42$)에 비해서 성평등의식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사관학교 성평등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년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3을 통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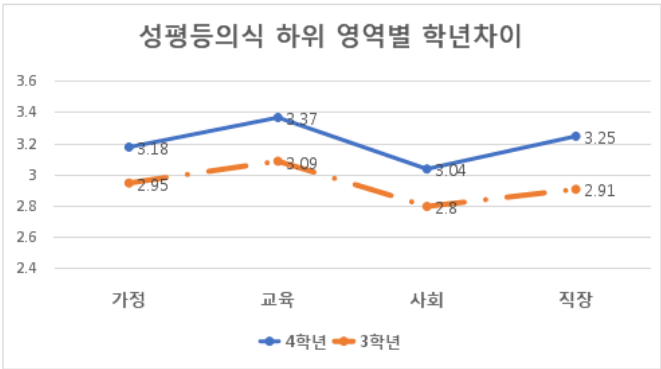
성평등의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은 서로 정적 상관($r=.67\sim.79$)이 있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원중다변량분석(MANOVA)이 적합하다(Anderson, 2003). 이에 따라 학년을 독립변수로, 네 가지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일원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했고, 학년별 차이 정도를 [그림 1]에 제시했다. 네 가지 하위영역 변수의 세트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Wilk's $\lambda=.09$, $F_{(4, 213)}=5.43$, $p<.001$), 학년은 네 가지 종속변수 변량의 9.4%를 설명했다($\text{partial-}\eta^2=.094$).

<표 7> 학년별 성평등의식 하위영역 평균차이 검증

하위영역	집단	M	SD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에타제곱
가정	4학년	3.18	.45	학년	3.07	1	3.07	15.11***	.07
	3학년	2.95	.44	오차	43.85	216	.20		
교육	4학년	3.37	.49	학년	4.47	1	4.47	18.16***	.08
	3학년	3.09	.49	오차	53.22	216	.25		
사회	4학년	3.04	.44	학년	3.16	1	3.16	16.08***	.07
	3학년	2.80	.44	오차	42.45	216	.19		
직장	4학년	3.25	.57	학년	6.12	1	6.12	19.88***	.08
	3학년	2.91	.52	오차	66.49	216	.31		

*** $p<.001$

<표 7>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라서 가정영역($F_{(1, 216)}=15.11$, $p<.001$, $\text{partial-}\eta^2=.07$), 교육영역($F_{(1, 216)}=18.16$, $p<.001$, $\text{partial-}\eta^2=.08$), 사회영역($F_{(1, 216)}=16.08$, $p<.001$, $\text{partial-}\eta^2=.07$), 직장영역($F_{(1, 216)}=19.88$, $p<.001$, $\text{partial-}\eta^2=.08$) 등 네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원 중다변량분석의 프로파일은 4학년 생도가 3학년 생도에 비해서 모든 영역의 성평등의식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관학교 입학 이후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의 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1] 성평등의식 하위영역별 학년 평균차이

4. 사관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 내용 및 방법

사관생도들이 인식하는 양성평등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내용은 영상자료 (39.8%), 관련 사례(33%), 기타(10.9%), 통계치(8.1%), 관련 이론(5.4%)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관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내용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_{(4, 207)}=1.67, p>.05$).

〈표 8〉 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내용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차이 (N=221)

집단	빈도(비율)	M	SD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관련 이론	12(5.4%)	3.20	.29	집단간	1.35	4	.34	1.67
관련 사례	73(33%)	3.13	.46					
영상 자료	88(39.8%)	3.07	.43	집단내	41.98	207	.20	
통계치	18(8.1%)	3.03	.40					
기타	24(10.9%)	2.88	.58	합계	43.34	211		

그러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평등의식의 네 가지 하위영역 중 가정영역($F_{(4, 209)}=3.07, p<.05$), 사회영역($F_{(4, 210)}=3.01, p<.05$)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별 사례수가 다르기 때문에 Scheffe방법을 적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영역에서 성평등 관련 사례, 영상자료를 선호하는 집단이 기타 자료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

평균이 높았다. 또한 사회영역에서도 성평등 관련 사례를 선호하는 집단이 기타 자료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 평균이 높았다.

〈표 9〉 교육 내용 효과성에 따른 성평등의식 하위영역 분석 결과(N=221)

하위 영역	집단	M	SD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사후 검정	부분 에타제곱
가정	관련 이론	3.15	.29	집단간	2.59	4	.65	3.07*	2,3>5	.05
	관련 사례	3.12	.47	집단내	44.00	209	.21			
	영상 자료	3.11	.42		합계	46.59	213			
	통계치	2.98	.36							
	기타	2.77	.66							
사회	관련 이론	3.13	.38	집단간	2.41	4	.60	3.01*	2>5	.06
	관련 사례	3.01	.44	집단내	41.98	210	.20			
	영상 자료	2.88	.43	합계	44.39	214				
	통계치	2.99	.40							
	기타	2.71	.57							

*p<.05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생도들이 인식하는 성평등 교육 내용의 효과성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사관생도들은 양성평등에 관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발표/토의(24.9%), 강의법(22.6%), 조별활동(22.2%), 역할극(18.6%), 기타(8.6%) 순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차이(N=221)

집 단	빈도(비율)	M	SD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강의법	50(22.6%)	3.17	.47	집단간	1.47	4	.37	1.81
발표/토의	55(24.9%)	3.03	.41	집단내	41.73	206	.20	
역할극	41(18.6%)	3.04	.50		43.20	210		
조별 활동	49(22.2%)	3.13	.44					
기타	19(8.6%)	2.88	.40	합계				

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독립변수, 성평등의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사관생도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고($F_{(4, 206)}=1.81, p>.05$),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생도들이 인식하는 성평등 교육 방법의 효과성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V. 논의

본 연구에 나타는 분석결과가 사관생도 양성평등 교육에 미치는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사관학교 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의 평균($M=3.08$)은 측정도구의 만점이 4.0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한 박선향(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평균($M=2.64$)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4학년($M=3.22$)의 경우 3학년($M=2.94$)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의 평균이 높았고, 입학 초기인 3학년의 경우 일반 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K사관학교는 민간대학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들이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3학년 생도들이 경우 아직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본격적으로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민간대학생들과 유사한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보이지만, 4학년 생도들의 경우 1년 이상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K사관학교 생도들이 양성평등의식 평균은 노명인과 박영숙(2013)이 사관생도 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4년제 사관생도들의 양성평등의식의 평균($M=3.15$)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구통계 변인 중 먼저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결과 양성평등의식 전체와 네 가지 하위영역 모두에서 여생도가 남생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노명인 등(2013)이 남녀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평등의식 조사결과와 일치하고, 윤문숙 등(201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양성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다(Dorgan, 1983; Pampel, 2011). 선행연구에서는 남녀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는데, 특히, 사회생활화 직장생활 영역에서 남녀 간 성평등의식 평균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주는 의미를 검토해보면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에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양성평등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관생도들은 향후 장교로서 병영문화를 주도해야 할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군내 양성평등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례위주 교육내용과 토론식 교육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성장배경에서 부모의 가사분담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분석에서 노명인과 박영숙(2013)이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성장배경 요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성장배경 요인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에서의 평균차이를 탐색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하위영역에서 나타난 평균차이를 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형제·자매의 성별구성 비율에 따른 성평등의식 하위영역의 평균차이 검정 결과 직장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정 결과 ‘형제자매 없음’ 집단이 ‘형제자매 동수’ 집단보다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Wang(2013)이 수행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인데, 형제나 자매가 없이 성장한 경우 오히려 성평등관련 교육에 대해 편견이나 거부감 없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때문에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성역할에 대한 의식형성에 일반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노명인과 박영숙(2013)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부모의 가사분담에 따라 성평등의식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높고, 성평등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적 영향이 부모 혹은 가정의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장배경 가운데 종교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전체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 원불교 집단이 기독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성평등의식 평균이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한데, Cooray와 Potrafke 등(2011)은 정치, 종교, 교육 등 각 분야의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이 성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을 때, 종교기관의 교육에서 성적 불평등 요소가 있고,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 교육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종교가 성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시절 남녀 공학 경험 여부에 따라 성평등의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검증에서 여자중학교 출신이 남녀 별학이나 남자 중학교 경험집단 보다 성평등의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Smyth(2010)가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여학교 출신자들의 경우 남녀 평등에 대한 요구와 의식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학교 남녀공학 경험에 따른 성평등의식 하위영역에서의 차이검증 결과도 여자중학교 출신이 사회영역에서 남녀 별학 및 남자 중학교 출신 생도보다 성평등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관생도들의 성평등의식 하위영역 평균 중 사회영역 평균이 가장 낮은데($M=2.91$), 여학교 출신들의 사회영역 성평등의식($M=3.43$)이 성평등의식 전체평균에 근접하는 것이다. 그만큼 여학교 출신 생도들의 성평등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성평등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허라금, 2008). 선행연구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Dorgan 등(1983)이 외국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여성의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남녀공학 경험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 평균차이 검증에서도 여자고교 출신 생도들이 남녀별학, 남자고등학교 출신 생도들 보다 성평등의식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관생도들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관련 교육의 내용과 수준은 여생도들의 관점까지 끌어 올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관학교 입학 전 수강했던 성평등 관련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성평등의식 전체평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직장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관련 교육을 '자주 수강한 집단'이 '전혀 수강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직장영역에서 성평등의식이 높았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은 여전히 성차별이 심한 영역으로 나타나는데(조성혜, 2017), 이에 대한 성평등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로서 의미가 있다.

4학년 생도들의 경우 1년 2개월 간 교육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학년은 성평등 관련 교육효과를 나타내는 도구 변수로서 기능이 있다. 4학년 생도들의 경우 주기적인 성평등관련 교육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훈육관들이 지휘훈육 시간에 수시로 양성평등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학(대학교육) 시간에 군상담기법, 군대와 윤리 등 과목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가치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의 복합적인 효과를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4학년 생도들은 3학년 생도에 비해 성평등의식 전체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네 가지 하위영역에서도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았는데,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특히 직장영역에서 학년 간 차

이가 컸다. 사관학교는 장차 군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평등의식이 향상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평등교육의 효과 검증이 거의 없었는데, 본 연구는 성평등 및 성인지 관련 교육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사관생도들이 선호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의 내용은 영상자료 > 관련 사례 > 통계자료 > 관련 이론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고, 영상자료와 관련 사례를 선호하는 집단이 '기타'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가정 및 사회영역에서 성평등의식이 높았다. 현재 육군 K사관학교에서 제공하는 '성인지 이해와 실천' 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에 관련된 이론, 관련사례, 그리고 토의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의 방법은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관련 영상자료 시청 및 사례토의 등이 부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본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청년인 생도들은 멀티미디어에 친숙하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성평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영상자료 혹은 실제 사례를 주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혜진(2018)이 현행 중·고교 교과서를 분석하여 성평등교육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점을 제시했는데, 그 연구에서도 관련 사진자료 및 실제 사례를 더 많이 수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사관생도 및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및 성평등 관련 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때는 기본이론을 제시하면서도 관련 사례가 담긴 영상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생도들이 선호하는 성평등교육의 방법은 발표/토의 > 조별활동 > 강의법 > 역할극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선호도에 따른 성평등의식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도들이 성평등 관련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생도들의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이는 장원순(2009)이 성평등을 위한 민주교육 방식을 제안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및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성평등의식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때에 교수자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생도들의 토론을 장려하고, 다양한 조별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촉진하는 교육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별토의에서는 남녀 사관생도들을 혼합 편성하여 이성의 관점과 감성을 이해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장원순(2009)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차별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토론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Aikman과 Unterhalter(2007)가 학교 현장에서의 성평등 교육을 위해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한 토론을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VI.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K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교육내용 및 방법을 규명할 목적으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성평등 관련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군의 설문통제 방침으로 인한 접근의 한계로 인해 연구자의 재직기관인 K사관학교 생도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관학교 혹은 장교양성 기관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타 사관학교 및 장교양성 기관의 학생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설계로서 어느 한 시점에서 생도들의 성평등의식을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시간적으로 일반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년 간 성평등의식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평등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종단설계를 통해서 성평등의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면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점은 4학년 생도들의 필수과목인 ‘성인지 이해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이수하기 이전이다. 따라서 아직 그 과목의 효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4학년 생도들이 ‘성인지 이해와 실천’을 이수하기 전의 성평등의식과 그 과목을 이수한 이후 성평등의식을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생도 16명이 표본에 포함되어 있으나 남생도들에 비해서 사례수가 매우 적어서 모수통계 방법으로 평균차이 검증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향후에는 질적연구를 통해서 남녀 생도들이 성평등의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보다 풍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석·박연희(2008).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17권 제1호. 41-54.
- 강현아·김향심·이은주(2000). “직장 내 성차별적 관행과 성평등의식의 딜레마 : 광주지역사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1호. 91-121.
- 국방부(2018.1.17). “국방개혁 2.0.” <http://mnd.go.kr/mbshome/mbs/plan/subview.jsp>에서 2019.2.25. 인출.
- 권혜련(2017.10.31.). “대한민국 남녀평등의 진짜 성적표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에서 2019. 2. 25. 인출.
- 김의정(2008).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춘·왕석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준기·양지숙(2012).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4호. 251-280.
- 김양희·정경아(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연제·박계화·강진희·김은순·박계영·노명인·김선(2016). “간호사관생도의 성지식, 성태도, 양성평등의식과 성적 자율성의 관계.” *군진간호연구*, 제34권 제1호. 103-115.
- 김엘리(2015). “여성군인의 우수인력담론 구성: 여군활용역사와 정책의 젠더정치.” *사회와 역사*. 제106호. 247-281.
- 김은정(2001).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18.5.17.) “육·해·공사, 내년부터 양성평등교육 정규과목에 편성”.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에서 2019. 2. 25. 인출.
- 김혜진(2018). “중학교 도덕 교과서의 양성평등교육 내용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60호. 181-214.
- 노명인·박영숙(2013). “남·녀 사관생도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존감.” *군진간호 연구*. 제31권 제2호. 91-101.
- 박선향(2016).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결혼관의 관계-경상도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2권 제6호. 207-232.
- 박옥임·임정순·김정숙(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성평등의식과 자녀교육

- 지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1호. 123-134.
- 오인숙(2012). 고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과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연구. 아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복연(2011). “불교신자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성별 분석 - 종교적 영역을 중심으로 -.” 韓國佛敎學. 제59권. 363-395.
- 옥일남(2015).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교육의 구현 양상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47권 제1호. 145-182.
- 윤문숙·박지원·유미애(2012). “남녀 대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성태도와 성희롱 통념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6권 제1호. 14-22.
- 이경순·정성진(2006). “성인의 양성 평등의식, 생의 의미 및 우울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113-127.
- 이라영(2014). 양성 평등 의식 교육에서의 남녀 공학의 효과성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06).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젠더 파트너십 구축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영란·김경민·최소은(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1호. 40-50.
- 이윤후(2018). “우리 사회에서의 젠더 교육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89-102.
- 이종욱(2017). 군인들의 양성평등의식이 성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원순(2009). “성 평등 및 다양성을 위한 민주주의교육의 변환과 적용.” 사회과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35-49.
- 정계룡(2018). “여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론 - ‘여군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제2호. 115-138.
- 정주성·독고순·임영재·신다윗(2016). 중장기 여군인력 활용정책 발전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정희완(2018.6.21.).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발족...성폭력 근절대책 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에서 2019.2.25 인출.
- 조성혜(2017). “양성평등정책과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제32권 제1호. 189-222.
- 조은영·서동하(2018). “육군 내 여군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군은 남성만의 공간’이라는 인식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집. 제74권 제1호.

81-85.

- 조해수(2017.8.11). “여군 1만명 시대,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http://www.sisapress.com/news>에서 2019.2.25. 인출.
- 최경아·김혜원(2016).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과 부의 정서표현 및 양성평등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1호. 313-34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지수로 본 세계 성평등*.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2002). *남녀 평등의식 교육*.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지수 관리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은행(2018.2.10.) “(보도자료)2018년 1분기 국민소득,” <https://www.bok.or.kr/portal/bbs/>에서 2019. 2. 22. 인출.
- 허라금(2008).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주류화.” *여성학논집*, 제25권 제2호, 45-79.
- Aikman, S., & Unterhalter, E.(2007). *Practising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Oxford, UK: Oxfam GB.
- Anderson, T. W. (2003). *An Introduction to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3rd Ed.). NJ: Wiley.
- Cooray, A. & Potrafke, N.(2011).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 Political institutions or culture and relig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7(2). 268-2890.
- De Looze, M. E., Huijts, T., Stevens, G. W. J. M., Torsheim, T., & Volebergh, W. A. M.(2018). The Happiest Kids on Earth. Gender Equality and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7(5). 1073-1085.
- Diehl, C., Koenig, M., & Ruckdeschel, K.(2009). Religiosity and gender equality: comparing natives and Muslim migrants in Germany. *Journal Ethnic and Racial Studies*. 32(2). 278-301.
- Diko, N.(2007). Changes and Continuities: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in a South African High School. *Africa Today*. 54(1). 107-116.
- Dorgan, L., Goebel, B. L., & House, A. E.(1983). Generalizing sex role and self-esteem. *Sex Roles*. 9(6). 719-724.
- Duncanson, C., & Woodward, R.(2016). Regendering the military:

- Theorizing women's military participation. *Security Dialogue*. 47(1). 3-21.
- Eulriet, I.(2009). Towards More Coherence? Policy and Legal Aspects of Gender Equality in the Armed Forces of Europe.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31. 741-756.
- Helpern, H. P., & Perry-Jenkins, M.(2016). Parents' Gender Ideology and Gendered Behavior as Predictors of Children's Gender-Role Attitudes: A Longitudinal Exploration. *Sex Roles*. 74(11). 527-542.
- Kim, J., Lee, J., & Shin, K.(2016). *Impact of gender inequality on the Republic of Korea's long-term economic growth: An application of the theoretical model of gender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No. 473.
- McClintock, E. A.(2014.9.5.). *Sibling Sex and Gender Inequality*. Psychology Today,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에서> 2019.5.7. 인출.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2017.3.8). *Gender equality and how to make the military more representative in focus of discussion in OSCE's Forum for Security meeting*. <https://www.osce.org/fsc/303581>에서 2020.2. 29. 인출.
- Pampel, F.(2011). Cohort Changes in the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Gender Egalitarianism. *Social Forces*. 89(3). 961-981.
- Smyth, E.(2010). Single-sex Education: What Does Research Tell Us? *Open Edition Journals*, 171, [http:// journals.openedition.org/rfp/1896](http://journals.openedition.org/rfp/1896) ; DOI : 10.4000/rfp.1896.
- Sullivan, A.(2011). Single-sex and co-educational secondary schooling: what are the social and family outcomes, in the short and longer term?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3(1). 137-157.
- United Nations(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Y: United Nations Office of Humang Right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2019.2.27.).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GOAL 5: Gender Equality. <https://www.undp.org/content/undp/에서> 2019. 2. 27. 인출.

Wang, Y.(2013). *Sibling structure and gender inequality: assessing gender variation in the effects of sibling structure on housework performance, education, and occup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Abstract

**Relationship among the Military Cadets'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al
Experiences, and their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Focused on K Military Academy**

Byong Sam,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ith demographic variables and educational experience of cadets of the Korea Army's K-Military Academy, and to propose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to 225 cadets attending the Korea Army's K-Military Academy. The research measure was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Scale developed by the Korea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of male and female cadets in March 2019. The retrieved data were analyzed in one-way ANOVA, one-way multivariate analysis, and the Kruskal-Wallis test. The results for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cadet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educational experience, and the academic grade of the cadets effectively served as instrument variable that indicated the educational effect related to gender equality that was supposed to be improved by the required course of gender equality. In addition,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verall average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grade, a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our sub-areas as well. Third, the content of education that military cadets perceive as effective in relation to gender equality was followed by audio-visual contents, related cases, statistics, and related theori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mean of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ccording to the favorite teaching contents and methods, bu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omestic and social domains among the sub-areas.

Keywords : military cadet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gender equality

* Professor of Education,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oen

〈부록〉 분석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행렬(N=220)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															
2	-.10	-														
3	-.06	.02	-													
4	-.12	.08	.05	-												
5	.07	-.09	-.02	.12	-											
6	.01	-.05	.09	-.07	.07	-										
7	.01	.06	.08	.05	.04	-.04	-									
8	.04	.09	.04	-.04	.12	.01	.28**	-								
9	-.18**	.05	.03	-.14*	-.09	.09	-.09	-.08	-							
10	.01	-.07	.03	.02	-.00	-.067	-.09	-.10	-.07	-						
11	.11	-.08	-.09	-.07	-.05	.01	-.05	-.07	-.09	.35**	-					
12	.31**	.36**	-.00	-.06	.03	.15*	-.02	.04	.18**	-.17*	-.10	$\alpha=.91$				
13	.26**	.29**	.02	-.08	.00	.13	-.06	.02	.15*	-.20**	-.09	.85**	$\alpha=.89$			
14	.28**	.27**	.06	-.05	.05	.17*	.04	.05	.16*	-.09	-.08	.91**	.69**	$\alpha=.88$		
15	.26**	.42**	-.01	-.02	.02	.10	-.04	.07	.14*	-.20**	-.14*	.89**	.70**	.73**	$\alpha=.88$	
16	.29**	.33**	-.06	-.06	.02	.13*	-.01	.01	.20**	-.12	-.04	.92**	.67**	.80**	.78**	$\alpha=.86$
M	-	-	-	-	-	-	-	-	-	-	-	3.08	3.07	3.23	2.93	3.09
SD	-	-	-	-	-	-	-	-	-	-	-	.45	.46	.51	.45	.57

*p<.05, **p<.01, ***p<.001

변수명 1: 학년, 2: 성별, 3: 부모, 4: 형제(자매) 구성, 5: 부모 가사분담, 6: 종교, 7: 중학교 남녀공학 여부, 8: 고등학교 남녀공학 여부, 9: 임교전 성평등교육수강, 10: 효과적인 성평등교육 내용, 11: 효과적인 성평등교육 방법, 12: 성평등의식, 13: 가정영역 성평등의식, 14: 교육영역 성평등의식, 15: 사회영역 성평등의식, 16: 직장영역 성평등의식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권예지**·차유리***

초 록

이 연구의 목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비해 간과되기 쉬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 이용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그 성차별주의 태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성별 효과를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서울 20대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분석(N = 330) 했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하위요소(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 효과는 미디어 종류에 따라 달리 제시됐다. 프로그램 장르별 효과를 알아본 결과, 서바이벌 예능·일반 음악 쇼·일반 코미디 장르를 이용할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단 동일 미디어 및 장르일지라도 배양효과에 성별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성별 영향력 측면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차별주의 유지의 심리적 기제 파악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의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했다.

주제어 :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미디어 이용량, 프로그램 장르, 주관적
안녕감, 배양효과

* 이 연구는 2017년 ‘한국언론학회 신진학자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켓링크 [서베이 스테이션]으로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원받았습니다. 저자들이 2019년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에 게재한 논문 ‘An Empirical Encounter of Cultural Orientation and Cultivation Theory’의 설문조사와 동일한 조사 데이터를 이 논문의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논문의 초고는 2019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을 밝힙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연구위원(yeji@kobaco.co.kr)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ilooy@sogang.ac.kr)

I. 문제 제기

성차별주의는 남녀 간 적대적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글릭과 피스크(Glick & Fiske, 1996)가 소개한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에서도 성차별의 양가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시스템에 도전하기보다는 정당화에 기여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를 중심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일견 여겨질 수 있으나, 전통적 여성상을 유지하는 여성들에게만 칭찬과 호의를 베풀며 기존 남녀 권력 구조를 교묘하게 강화하여 성 불평등 존속에 기여하는 이데올로기다(Connelly & Heesacker, 2012; Glick & Fiske, 2001). 남녀 역할이 시간에 따라 평등주의적으로 변해왔어도, 경험적 증거들은 전통적 성역할이 적어도 이성애 관계에서 여전히 지배적임을 보여준다(Sanchez, Fetterolf, & Rudman, 2012).

이 같은 성차별주의는 가정·학교에서의 일상의 대인 관계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경로를 통해서도 형성된다(Rollero, 2013). 특히나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가 그려내는 세계를 실제 세계로 인식하는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 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6)가 양가적 성차별주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미디어 이용’이 이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배양효과 연구는 특정 미디어 이용량(예, Arendt, 2010)을 주로 다루다가 장르별 이용량(예, 나은경, 2013)으로 확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미디어 이용 양식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 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6)’ 기반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미디어의 이용량 효과뿐만 아니라 특유의 내러티브를 가진 장르별 영향력도 검토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개인들의 성차별주의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될 가능성도 탐색한다. 양가적 성차별 이론 관점의 연구자들은 온정적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Hammond & Sibley, 2011; Napier, Thorisdottir, & Jost, 2010). 적대적 성차별주의 정당화는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Napier et al., 2010).

여성에게 차별적인 성차별주의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전통적 성역할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견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공존하면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를 저해하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은 문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England, 1993),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노출된 여성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노출된 여성들과 달리 사회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낮다(Becker & Wright, 2011). 여성들이 기사도와 영웅적 자질을 지닌 배우자에 관해 낭만적 환상을 지닐수록 자기 개인의 권력에 비교적 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Rudman & Heppen, 2003). 이런 맥락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성차별주의 태도에 여러 미디어 및 장르 이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려 한다. 나아가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II. 문헌연구

1. 시스템 정당화 이론 관점에서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성차별주의 연구들에 관한 주요 비판은, 개인들이 소속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한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는,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관점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Jost & Banaji, 1994; Jost, Banaji, & Nosek, 2004). 해당 연구자들은,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어떤 불리한 조건에 놓인 집단구성원들이 집단 불평등을 수용하여 현상이 유지되도록 그들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유사한 맥락에서 글릭과 피스크(Glick & Fiske, 1997)는 여성에 관한 적대시, 전통적 성역할 지지만을 다루는 기존 연구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 인종차별주의와 다르게, 성차별주의에는 남성의 구조적 권력과 함께 여성의 이분력(dyadic power)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여성 대상 적대감에 따라 여성을 모든 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적대적 성차별주의로만 이해하는 것은 성차별주의의 일부만 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안적 측정 도구로 제시된 것이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다(Glick & Fiske, 1997).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hostile), 온

정적(benevolent) 성차별주의로 나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남성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빼앗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반감을 갖는 것으로(Glick & Fiske, 2001), 남녀를 적대 구조에 놓는다. 그래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비해 성차별로 인식되기가 수월하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는 인식에 기반을 두므로, 동일한 성차별 행동일지라도 덜 차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Moya, Exposito, & Casado, 1999). 즉 일상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일종의 친사회적행동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부양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지배논리를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한다(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41쪽).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부성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이성애(heterosexuality)’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Glick & Fiske, 1996, 2001). 먼저, ‘부성주의’는 성차별주의가 애정이나 보호로 작용하는 ‘보호적’ 부성주의,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전제의 ‘지배적’ 부성주의로 나뉜다.

‘성역할 분화’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로 세분화된다. 경쟁적 성역할 분화의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의 고양을 야기하는 하향비교용 대상자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 관점에서는 남과 여 각자가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예,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바깥일을 맡는 역할)을 고착화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성애’는 여성이 성적 매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고 여기는 ‘적대적’ 이성애, 남녀 관계를 심리적으로 친숙한 관계로 여기는 ‘친밀한’ 이성애로 나뉜다. 각 요소의 양가성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근원이 된다.

2.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과 성차별주의 태도

미디어는 성 의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et al., 1986)의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 이론은 미디어가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TV를 많이 보는 중시청자(heavy viewer)는 TV에서 그리는 세상이 실제 본인이 사는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배양효과는 우선 주류화를 통해 발생한다. 주류화(mainstreaming)는 흐름, 혼합, 왜곡

과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TV가 그려내는 관점으로 수렴시킨다(Griffin, 2012).

실제, 미디어 이용이 이용자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공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예컨대 TV쇼 등장인물 중 남자가 여성에 비해 2배가 많은 반면, 뉴스 보도에서는 여성을 피해자로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Gerbner, Gross, Morgan, Signorielli, & Shanahan, 2002; Romer, Jamieson, & Aday, 2003). TV 중시청자들(heavy viewers)은 경시청자들(light viewers)에 비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가 강했다(Gerbner et al., 2002). 종이신문(Arendt, 2010), 연결망 기반의 온라인 게임 상황(Williams, 2006),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서도 중이용자들은 온라인 세상이 현실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나은영, 2012).

성차별주의와 관련해 미디어 이용량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장르별 배양 효과에 주안점을 둔 연구도 필요하다. 장르 구분 없이 TV 시청량만 다루면 TV가 개인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TV 내 프로그램 '장르'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관련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예, 나은경, 2013; Hawkins & Pingree, 1981; Segrin & Nabi, 2002).

여러 장르들로 구성된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에는 주로 여성을 보호해야 하거나 여자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가부장적 남성성이 공존한다. 2017년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중 여성 출연자는 약 29%, 남성은 약 70%를 차지하는데, 다수가 출연한 경우에는 남성이 주인공 역할을 맡고 보조인물은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더 높았다(심미선·김경희·강혜란·최희진, 2017). 한국 오락 프로그램에는 전통적 남성성을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게 왜곡하는 장면도 포함된다(강혜란·윤정주, 2010). 성(gender) 관계를 전복하는 듯 보이는 오락 프로그램 장르가 실질적으로는 가부장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강혜란·윤정주, 2010; 이신혜, 2011; 심미선 외, 2017 등).

한편, 미디어가 변하더라도 장르별 내러티브는 유지된다(Morgan, Shanahan, & Signorielli, 2015). 따라서 다중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 장르가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는 작업은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미디어를 통한 배양효과 크기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디어 이용자 개인들의 성 유형·미디어가 그려내는 성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평등의식도 성별에 따른 경향성을 보여 왔기에(홍기원·전방지·차경호, 2001), 배양효과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TV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미용성형 수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남성 집단에서만 매개적 역할을 하고 여성에게는 장르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 수술 동의를 높여줬다(심재웅, 2014).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1: 미디어 이용량은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1-2: 장르별 이용량은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1-3: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3.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어떤 사회에서의 차별은 구성원들의 안녕감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왔다. 예컨대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소속된 여성의 안녕감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다(이숙정·오재림, 2010).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이성애자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상대에게 승배의 대상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불만을 크게 느끼며(Hammond & Overall, 2013),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Casad, Salazar, & Macina, 2015).

그러나 다른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평등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만족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에는 차별에 대한 관점, 차별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들과 관련된 맥락, 및 개인 특성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Barreto, Ellemers, Chiangri, & Stroebe, 2008). 사회의 성차별주의가 개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66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Bjørnskov, Dreher, & Fischer, 2007), 성별·소득·정치 성향에 따라 사회의 성차별주의가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랐다. 중상위 소득층 및 진보층 남성의 경우에는 성평등 효과가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이끌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및 가족 문제에서의 평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주관적 삶의 질은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국내 보고도 존재한다(이명신·이훈구, 1997).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 및 취업 상황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성차별주의 경험은 여전히 일상과 보도에서 적어도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상호작용 효능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Jones et al., 2014). 그러나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

성에 대한 애정의 일환으로 취급되며 차별로 인식되지 않기 쉽다.

정리하자면, 개인들의 성별 및 기타 요인들에 따라 성차별주의의 수준은 물론이고 성차별주의와 관련될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를 밝힌 실증 연구 사례는 현시점에서 볼 수 없다. 나이퍼와 동료들(Napier et al., 2010)이 32개국을 대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 정당화는 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맺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 정당화는 남성의 생활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라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는 있다. 겉보기에 사소한 차별 사건들이 시간이 갈수록 대상의 안녕을 해친다(Colella & King, 2018).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인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1: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인가?

연구문제 2-2: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탐색적 성격의 이 연구는 서울 거주 만 20-29세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삼았다. 국내 남녀 갈등은 특히 20대 사이에서 심각하고(장덕진, 2019), 이 연령집단은 성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갈 중심 동력으로 간주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017년 3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마켓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표집 및 실사를 시행했다. 3,000명에게 설문조사 참가의뢰 이메일을 보냈고, 5일 간의 조사 응답자는 총 32.6%인 979명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를 중도 포기하거나 성, 연령, 지역 할당에 벗어난 인원수, 스크리닝 문항에서 탈락한 이들을 제외한 330명(남녀 1:1)을 유효 표본으로 이용했다.

2. 측정변인

1)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안상수 외, 2005) 중 온정적 및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16문항이 조사에 쓰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였다(1 = 매우 반대, 5 = 매우 동의).

저자 2인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총 3인의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및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문가 2인의 본 연구주제에 관한 의견을 참조하여 일부 문항을 요인분석에서 제외했다.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3 요인이 도출됐다. 요인명은 ‘온정적 성차별주의’(Cronbach’s $\alpha = .87$), ‘(적대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Cronbach’s $\alpha = .90$), ‘적대적 이성애’(Cronbach’s $\alpha = .88$)로 명명했다. 요인 1의 경우, 안상수 외 (2005)의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지배적 부성주의’에 속했던 문항들 [예,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큰 가정은 안정적이다, 집의 소유주(명의)는 남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체로 모임의 리더는 남성이 맡는 것이 좋다]이 ‘보완적 성분화’ 문항들과 함께 같은 요인으로 도출되어 ‘온정적 성차별주의’라 명명했다. 요인 적재치가 ‘보완적 성분화’ 문항에서 가장 높았고, ‘지배적 부성주의’ 문항에서는 남녀 관계에 다른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의 경우처럼 반감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더욱이 한국은 유교 및 가부장 문화권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이 다수 집단의 체제를 정당화하거나(Jost & Banaji, 1994) 보완적 성분화 개념처럼 ‘역할’의 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스템 정당화 이론적 관점에서 반영하여, 해당 3요인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 활용했다.

〈표 1〉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	초기 고유치	변량(%)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80	3.59	29.91
	여성의 선천적인 부드러움은 남성이 따라갈 수 없다	.76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큰 가정은 안정적이다	.75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	.72		
	집의 소유주(명의)는 남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72		
	대체로 모임의 리더는 남성이 맡는 것이 좋다	.72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	초기 고유치	변량(%)
경쟁적 성분화	여권운동가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식이다	.87	2.61	21.72
	여권운동가들은 남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87		
	요사이 여성의 권익 옹호를 위한 발언은 공평을 넘어 서서 지나치다	.82		
적대적 이성애	여자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한다	.88	2.45	20.42
	여성들은 남자에게 애교를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	.82		
	여성들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려먹는다	.76		

2) 미디어 이용량

총 8가지 미디어에 대한 이용 빈도를 7점 리커트 척도(이용 경험 없음: 0, 하루에 여러 번: 7)를 활용해 각각 물었다[① 지상파TV(M = 3.97, SD = 1.31), ② 종합편성/케이블채널/위성TV(M = 3.89, SD = 1.37), ③ 종이신문(M = 3.97, SD = 1.31), ④ 인터넷 신문(M = 4.08, SD = 1.64), ⑤ 인터넷 SNS(M = 4.70, SD = 1.52), ⑥ 인터넷 포털사이트(M = 5.09, SD = 1.17), ⑦ 인터넷 커뮤니티(M = 3.78, SD = 1.77), ⑧ 인터넷 방송(M = 3.47, SD = 1.76)].

3) 미디어의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

윤해진과 문성철(2010)의 연구에서 분류한 장르를 현재 미디어 상황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차용했다. 해당 10가지 장르물을 일주일 평균 얼마나 시청하는지를 물었다. 시청경험 없음(0점), 일주일 중 1-2일 혹은 1-2회분(1점), 3-4일 혹은 3-4회분(2점), 5-6일 혹은 5-6회분(3점), 매일 혹은 7회분 이상(4점) 중 본인의 경험에 걸맞은 응답을 택하도록 했다[① 서바이벌 예능(M = 0.90, SD = 1.00), ② 기타(서바이벌 외) 리얼리티 표방 예능(M = 1.38, SD = 0.98), ③ 미용/패션 정보(M = 1.00, SD = 1.13), ④ 기타(미용/패션 외) 교양/생활정보/다큐멘터리(M = 1.04, SD = 1.01), ⑤ 로맨틱/멜로 드라마(M = 1.18, SD = 1.11), ⑥ 사회비판/고발 드라마(M = 1.05, SD = 1.03), ⑦ 일반 음악쇼(M = 0.89, SD = 1.05), ⑧ 일반 코미디(M = 0.94, SD = 1.09), ⑨ 뉴스(M = 1.86, SD = 1.30), ⑩ 탐사보도(M = 1.10, SD = 1.12)].

4) 주관적 안녕감

개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을 평안하다고 심리적으로 느끼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정도다. 디이너 외(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홉스테드(Hofstede & Hofstede, 2017)의 문항을 차용해 총 2문항(예, '요즘 나는 건강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M = 3.11$, $SD = 0.83$). 2문항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63으로, 분석에 적합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Eisinga, Grotenhuis, & Pelzer, 2013).

5) 통제변인

반 성차별주의 행동 경험·성별·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삼았다. 반 성차별주의 행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게시물/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지를 응답자들에게 5점 척도로 물었다($M = 2.49$, $SD = 1.22$). 연령은 본인의 만 나이를 숫자로 기입하게 했다. 성별은 더미변수(남자 0, 여자 1)로 변환했다.

IV. 연구결과

1. 미디어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18~.71의 범위에서 유의미한 상관계수가 제시됐으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이하 VIF)는 2.1 이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성차별주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미디어 이용량의 영향력은 이용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달랐다(〈표 2〉 참조). 온정적 성차별주의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미하게 제시됐다($F(11, 318) = 9.22$, $p < .001$). 종이신문 이용량은 정적 영향력을 보인 반면($\beta = .24$, $p < .001$), 인터넷 신문 이용량은 부적 요인이었다($\beta = -.17$, $p < .01$).

경쟁적 성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미디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대적 이성애의 회귀모형은 유의미하게 제시됐다 [$F(11, 318) = 3.15$, $p < .001$]. 종편/케이블/위성TV의 이용량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7$, $p < .01$).

.05). 지상파는 영향력의 베타값의 방향성이 달랐지만 크기는 같았다($\beta = .17$, $p < .05$). 종이신문의 이용량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6$, $p < .01$).

〈표 2〉 미디어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23***	-4.38	-.42***	-7.86	-.09	-1.45
	연령	.15**	2.73	-.03	-0.50	.14*	2.32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14**	2.69	-.16**	-3.13	-.07	-1.16
	ΔR^2	.17		.20		.05	
미 디 어 이 용 량	지상파TV	-.05	-0.70	-.01	-0.11	.17*	2.15
	종편/케이블/ 위성TV	.06	0.79	.05	0.67	-.17*	-2.17
	종이신문	.24***	4.40	-.08	-1.46	.16**	2.71
	인터넷 신문	-.17**	-2.87	.01	.16	-.01	-0.18
	인터넷 SNS	.03	0.44	-.07	-1.22	-.05	-0.70
	인터넷 포털사이트	-.03	-0.51	.12	1.81	-.01	-0.13
	인터넷 커뮤니티	.04	0.62	-.01	-0.10	.04	0.67
	인터넷 방송	.05	0.82	.09	1.62	.00	-0.05
	ΔR^2	.07		.03		.05	
F (11, 318)		9.22***		8.76***		3.15***	
R^2		.24		.23		.10	
수정 R^2		.22		.21		.07	

주. N = 330.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여성 = 1. * $p < .05$. ** $p < .01$. *** $p < .001$.

2. 장르별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 간 상관은 .34~.59의 범위 내, VIF는 최대 2.4 이하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표 3〉과 같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서바이벌 예능($\beta = .22$, $p < .001$), 일반 음악 쇼($\beta = .13$, $p < .07$), 일반 코미디($\beta = .27$, $p < .001$) 장르 이용량이 정적 영향을 주었다[F(13, 316) = 12.27, $p < .001$]. 경쟁적 성분화와 적대적 이성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장르는 제시되지 않았다.

〈표 3〉 장르별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23***	-4.75	-.46***	-8.61	-.15*	-2.54
	연령	.16**	3.16	-.04	-0.79	.14*	2.48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12*	2.45	-.18*	-3.34	-.08	-1.33
	ΔR^2	.17		.20		.05	
장르 별 이용 량	서바이벌 예능	.22***	3.31	-.10	-1.37	.04	0.49
	기타 리얼리티 표방 예능	-.02	-0.27	-.02	-0.36	.04	0.59
	미용/패션 정보	.01	0.15	.10	1.57	.06	0.87
	기타 교양/ 생활정보/다큐	-.05	-0.75	.13	1.67	.12	1.43
	로맨틱/멜로 드라마	-.02	-0.24	.01	0.19	.08	1.08
	사회비판/ 고발 드라마	-.08	-1.09	.06	0.75	-.10	-1.23
	일반 음악 쇼	.13+	1.82	-.07	-0.90	-.12	-1.40
	일반 코미디	.27***	3.81	-.09	-1.13	.09	1.09
	뉴스	-.07	-1.18	.00	0.00	-.04	-0.65
	탐사보도	-.04	-0.60	-.04	-.55	.05	0.63
	ΔR^2	.16		.02		.05	
F (13, 316)		12.27***		7.10***		2.72**	
R^2		.34		.23		.10	
수정 R^2		.31		.19		.06	

주. N = 330.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여성=1. +p < .07. *p < .05. **p < .01. ***p < .001.

3.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성별 영향

성별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미디어와 장르별 이용량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제시됐다[F(10, 154) = 2.61, p < .01].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인터넷 신문 이용량이($\beta = -.23$, p < .01)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종이신문($\beta = .17$, p < .07)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쟁적 성분화에는 종이신문($\beta = -.17$, p < .05)만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F(10, 154) = 2.95, p

< .01]. 적대적 이성애에는 경쟁적 성분화 결과와 다르게 종이신문($\beta = .25$, $p < .05$)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F(10, 154) = 2.18, $p < .05$].

여성의 경우, 종이신문($\beta = .34$, $p < .001$)만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쳤다[F(10, 154) = 5.14, $p < .001$]. 적대적 이성애에는 종편/케이블/위성 TV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이긴 했으나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의 효과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연령	.11	1.38	-.18	-2.25	.17*	2.09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20*	2.49	-.05	-0.59	-.06	-0.74
	ΔR^2	.08		.06		.05	
미 디 어 이 용 량	지상파TV	-.10	-.84	-.12	-0.99	.08	0.64
	종편/케이블 /위성TV	.04	.33	.20	1.70	-.10	-0.85
	종이신문	.17+	1.97	-.17*	-2.03	.25*	2.95
	인터넷 신문	-.23**	-2.44	-.04	-0.38	-.08	-0.80
	인터넷 SNS	.07	.74	.03	.32	-.06	-0.65
	인터넷 포털사이트	.03	.24	.08	-.75	.02	0.19
	인터넷 커뮤니티	.20	2.18	.09	1.04	.13	1.39
	인터넷 방송	.00	-.01	.14	1.62	.00	0.05
	ΔR^2	.07		.10		.08	
F (10, 154)		2.61**		2.95**		2.18*	
R^2		.15		.16		.12	
수정 R^2		.09		.11		.07	

주. n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여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의 효과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연령	.18*	2.19	.13	1.52	.14	1.53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14+	1.84	-.28***	-3.40	-.09	-1.01
	ΔR^2	.10		.10		.03	
미 디 어 이 용 량	지상파TV	-.04	-0.45	.07	0.69	.21	1.95
	종편/케이블/ 위성TV	.10	1.03	-.11	-0.95	-.22*	-1.98
	종이신문	.34***	4.50	-.04	-0.51	.07	0.84
	인터넷 신문	-.14	-1.71	.04	0.40	.04	0.43
	인터넷 SNS	.03	0.35	-.05	-0.51	.01	0.14
	인터넷 포털사이트	-.14	-1.57	.09	0.94	-.07	-0.73
	인터넷 커뮤니티	-.09	-1.11	-.03	-0.31	.00	0.05
	인터넷 방송	.09	1.08	.06	0.66	-.01	-0.16
	ΔR^2	.16		.02		.04	
F (10, 154)		5.14***		2.00*		1.15	
R^2		.26		.12		.07	
수정 R^2		.21		.06		.01	

주. n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 < .07. *p < .05. **p < .01. ***p < .001.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장르별 이용량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2, 152) = 4.99, p < .001]. 일반 코미디($\beta = .35$, p < .01)와 서바이벌 예능($\beta = .24$, p < .05)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성 집단의 경쟁적 성분화에 대한 회귀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2, 152) = 2.95, p < .001]. 일반 코미디($\beta = -.30$, p < .05), 서바이벌 예능($\beta = -.23$, p < .07)이 부적 영향을, 사회비판/고발 드라마($\beta = .27$, p < .05)는 정적 영향을 주었다. 적대적 이성애에는 기타 교양/생활정보/다큐($\beta = .32$, p < .01)가 정적 영향을 미쳤다[F(12, 152) = 2.20, p < .05].

한편 여성 집단에서는 일반 음악 쇼($\beta = .13$, p < .05)만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해 정적 영향을 주었다[F(12, 152) = 5.05, p < .001].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장르별 이용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장르별 이용량 효과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연령	.11	1.55	-.24**	-3.08	.18*	2.27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14	1.74	-.04	-0.46	-.13	-1.45
	ΔR^2	.08		.06		.05	
장르 별 이용량	서바이벌 예능	.24*	2.10	-.23+	-1.85	.03	.23
	기타 리얼리티 표방 예능	.11	1.21	-.02	-0.22	-.04	-.36
	미용/패션 정보	-.02	-0.16	.15	1.51	.03	.33
	기타 교양/ 생활정보/다큐	-.12	-1.09	.21	1.81	.32**	2.66
	로맨틱/멜로 드라마	-.10	-0.92	-.14	-1.21	.20	1.64
	사회비판/ 고발 드라마	-.19	-0.19	.27*	2.04	-.10	-.73
	일반 음악 쇼	.10	0.10	-.01	0.10	-.14	-1.18
	일반 코미디	.35**	3.15	-.30*	-2.54	.01	-.07
	뉴스	-.05	-0.64	.01	0.10	.02	.20
	탐사보도	.04	0.35	-.13	-1.07	.00	-.02
	ΔR^2	.21		.13		.10	
F (12, 152)		4.99***		2.95***		2.20*	
R^2		.28		.19		.15	
수정 R^2		.23		.13		.08	

주. n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 < .05. **p < .01. ***p < .001.

〈표 7〉 여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장르별 이용량 효과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연령	.22**	3.03	.09	1.07	.11	1.28
	반 성차별주의 행동 경험	.18*	1.64	-.32***	-3.82	-.06	-0.71
	ΔR^2	.10		.10		.03	
장르 별 이용 량	서바이벌 예능	.23	2.51	-.02	-0.18	.04	0.39
	기타 리얼리티 표방 예능	-.15	-1.71	-.03	-0.29	.13	1.32
	미용/패션 정보	.03	0.34	.12	1.21	.10	0.95
	기타 교양/ 생활정보/다큐	.07	0.60	-.01	-0.05	-.06	-0.50
	로맨틱/멜로 드라마	.02	0.20	.07	0.67	.03	0.31
	사회비판/ 고발 드라마	.01	0.07	.04	0.34	-.13	-1.17
	일반 음악 쇼	.13*	1.23	-.12	-1.01	-.11	0.89
	일반 코미디	.24	2.28	.05	0.47	.15	1.25
	뉴스	-.11	-1.23	-.04	-0.83	-.05	-.50
	탐사보도	-.09	-0.84	.06	0.56	.08	.66
	ΔR^2	.19		.03		.06	
F (12, 152)		5.05***		1.72+		1.14	
R^2		.29		.12		.08	
수정 R^2		.23		.05		.01	

주. n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 < .07. *p < .05. **p < .01. ***p < .001.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성별 효과

반성차별주의 행동 경험은 전체 및 여성 대상 상관관계 분석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아니었으나,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확률이 .06이었으므로 남녀 집단 비교를 위해 통제 변인으로 투입됐다. 우선 〈연구문제 2-1〉의 결과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온정적 성차별주의($\beta = .21$, $p < .001$)와 적대적 이성애($\beta = .12$, $p < .05$) 태도는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6, 323) = 4.06, $p < .001$].

성별 분석 결과(〈연구문제 2-2〉),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만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단 남성 집단

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beta = .19, p < .05$)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F(5, 159) = 2.77, p < .05$), 여성 집단에서는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과 달리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써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8〉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전체		남성		여성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4	-0.63	-	-	-	-
	연령	-.08	-1.39	-.13	-1.68	-.05	-0.67
	반 성차별주의 행동 경험	.06	1.01	.07	.84	.08	0.94
	ΔR^2	.02		.02		.01	
양가적 성 차별 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21***	3.58	.19*	2.36	.18*	2.23
	경쟁적 성분화	.02	0.28	-.11	-1.30	.12	1.42
	적대적 이성애	.12*	2.07	.10	1.30	.12	1.55
	ΔR^2	.05		.06		.05	
F전체(6, 323), F남녀(5, 159)		4.06***		2.77*		1.91	
R^2		.07		.08		.06	
수정 R^2		.05		.05		.03	

주. N전체 = 330. n남녀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성차별주의 태도는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나아가 이들 영향력에는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시스템 정당화 이론적 관점을 취한 가운데,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연구의 주요 배경으로 삼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한 내용이 다음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연구결과 요약

경로	전체	남성	여성
미디어 이용량 → 온정적 성차별주의	종이신문(+)	종이신문(+)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미디어 이용량 → 경쟁적 성분화	-	종이신문(-)	-
미디어 이용량 → 적대적 이성애	지상파(+)	종이신문(+)	-
	종편/케이블/ 위성TV(-)		
	종이신문(+)		
장르별 이용량 → 온정적 성차별주의	서바이벌 예능(+)	서바이벌 예능(+)	일반 음악 쇼(+)
	일반 음악쇼(+)		
	일반 코미디(+)	일반 코미디(+)	
장르별 이용량 → 경쟁적 성분화	-	서바이벌 예능(-)	-
		일반 코미디(-)	
		사회비판/고발 드라마(+)	
장르별 이용량 → 적대적 이성애	-	기타 교양/생활정보/다큐(+)	-
양가적 성차별주의 → 주관적 안녕감	온정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
	적대적 이성애(+)		

첫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미디어 이용량과 관계가 있었다. 미디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이성애라는 양극에 있는 성차별주의를 배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해 종이신문의 이용량이 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인터넷 신문은 반대의 영향력을 보였다. 둘 모두 ‘신문’이지만, 미디어를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지에 따라 영향의 방향성이 달랐다. 종이신문과 다르게 온라인 신문이 가진 쌍방향 소통 공간,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공간 등 매체 특징 또한 성차별주의에 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 또한 다분하기에 향후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량이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리 도출되어 미디어 이용자 성별에 따라 배양효과가 다르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과 달리, 하위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써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집단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미디어 이용량 종류나 장르 종류가 많았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 신문 이용이 증가할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완화되는 경향이

남성 집단에서만 발견됐다는 점이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담론적 특성이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탐색적으로 밝힌 결과다.

한편 여성 집단에서는 종이신문을 많이 볼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들인 ‘경쟁적 성분화’나 ‘적대적 이성애’에 대한 종이신문 이용의 영향력은 남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 남성이 종이신문을 많이 이용할수록 경쟁적 성분화 태도가 오히려 약화되는 반면, 적대적 이성애 태도는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라는 동일 범주에 대해서라도 미디어 이용량의 효과가 하위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해석상 주의가 요구되는데, 전통적인 미디어로 분류되는 종이신문은 경쟁적 성분화 태도를 강화하는 데 기능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선, 일반적이지 않은 이용자 특성에서 연유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풀이해볼 수 있다. ‘2018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대학원생의 종이신문 이용률은 2.1%에 불과하다(방송통신위원회, 2019).

한편 경쟁적 성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설문 문항이 ‘여성 페미니스트’ 대상 태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탐색적 성격의 이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될만 하다. 페미니즘이 20대 가치관·삶의 기획·정치적 욕구 등을 검토하는 데 중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한국의 20대 여성 10명 중 약 5명만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보고 있으므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후속 연구자들은 ‘여성’에 대한 경쟁적 성분화 태도 측정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르별 이용량의 영향력에서는 서바이벌 예능·일반 음악 쇼·일반 코미디를 이용할수록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 음악 쇼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성 상품화(성윤숙·손병덕, 2014), 일반 코미디에서 내용과 달리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남녀 관계를 전복하는 듯 보이는 오락 프로그램 장르가 실질적으로는 가부장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강혜란, 윤정주, 2010; 심미선 외, 2017; 이신혜, 2011 등)과도 유사한 결을 보인다. 미디어에 성차별주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기존 내용분석 연구 결과와 본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남녀가 주로 즐겨보는 장르들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배양효과 발생 가능성이 포착된다.

다만, ‘모든’ 오락 프로그램이 성차별주의를 강화시킨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오락 프로그램이 성차별주의를 강화할 수 있더라도, 성차별주의

를 깨뜨리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선영, 2020). 여기에 여성주의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응이 결합 된다면, 오락 프로그램 등의 특정 장르 또한 성차별주의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한편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해 장르의 이용량이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20대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장르별 이용량이 성차별주의 태도의 하위요소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양했다. 일반 코미디 프로그램과 서바이벌 예능을 통해 여성에 대해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화되는 반면, 경쟁적 성분화는 약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타 교양/생활정보/다큐, 사회비판/고발 드라마는 여성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이용 장르들 중 '일반 음악 쇼' 장르의 이용량만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성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의 성차별주의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여성 당사자가 부지불식간에 미디어를 통해 키우기 쉽다고 풀이될 수 있다.

결국 <연구문제 1>에 관한 상기 내용들은 20대 남성 집단에서는 종이신문 이용량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이성애를 동시에 높이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배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울러 적대 관계보다 알아채기 힘든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20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 기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관한 미디어 효과가 성별 달리 제시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예, 심재웅, 2014)과도 일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당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 반 성차별주의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내용분석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면밀한 해석도 가능하다.

다섯째, <연구문제 2-1>의 결과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이성애 태도가 강할수록 20대 개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 단 <연구문제 2-2>의 결과로, 20대 남녀 집단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영향력만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유의미하게 제시됐다.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댓글에서 볼 수 있는 적대적 남녀 구도·여성에 대한 호의와 애정으로 포장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한국 사회 내 사회 구성원들이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게 하는 데 효율적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예, Hammond & Sibley, 2011; Napier, et al., 2010)와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가질 수 없는 상황에 관한 방증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홍기원 외

(2001)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의 성에 애착이 강할수록 평등의식이 높은 편이다. 집단적 자존감 가설로 보자면, 자신의 성에 애착이 강할 경우에는 고양된 집단적 자존심을 느껴 남녀 고정관념적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평등한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홍기원 외, 2001). 한국 사회에서 성별 성 애착, 관련 비교문화 연구도 후속적 과제들로 고려될만 하다.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요인들(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과 주관적 안녕감 간 상관관계부터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주의 태도가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만 한정될 수 있음을 새로이 밝혀주는 결과로서 가치롭다. 이는 성차별주의가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 간 차이를 발견한 선행연구들(예, Bjørnskov, et al. 2007)과는 맥이 다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자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는 경향이 비교적 성 평등적 국가에서 발견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Napier, et al., 2010), 한국 사회가 성 평등 차원에서 어떤 사회로 간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도 역으로 포착된다.

종합하여, 이 연구는 다중미디어 시대의 여러 미디어 및 장르를 고려하여 이들이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문제 1>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세부항목이나 성별 집단별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검증하여, 국내 개인들의 미디어 이용이 간과되기 쉬운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 배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미디어 이용자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문제 2>를 중심으로 살펴본 가운데, 성차별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작동 기제의 이해를 높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한국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성차별적인 것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온정적 성차별주의적 상황들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심의 및 교육 차원의 실무자들이 미디어프로그램 콘텐츠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상할 때, 미디어 환경이 반영된 세부 항목을 고민해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방송통신심의 과정은 물론이고 성차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차원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만이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량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채널·신문사·운영자, 콘텐츠의 내용

과 형식(예, 브랜드드 콘텐츠) 등에 따라 이용자의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온라인 기사는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으며,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댓글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접하고, 여론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장윤재·이은주, 2009)

또한 서울 거주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기에,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시대 효과 및 연령 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하거나, 성 인지 감수성 등 성 관련 인식을 고려하여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 영향력을 비교해보는 후속연구가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연령별 비교분석을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변화, 영향력 등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과(social causation) 가설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점도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사회 선택(social-selection) 효과에 주안점을 두면, 삶의 만족도가 차별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설명요인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두 가설의 검증 또한 후속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출만한 주제다.

참고문헌

- 강혜란·윤정주(2010).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선영(2020). “2020년도 ‘여성파워’ 콘텐츠 계속될까?”. N콘텐츠. 14호. 14-17.
- 나은경(2013). “텔레비전 시청 장르별 시민성 및 가치관 계발 효과의 차이”.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150-157.
- 나은영(2012). “SNS 중이용자와 경이용자의 현실인식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6권 제3호. 63-84.
- 방송통신위원회(2019).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성윤숙·손병덕(201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심미선·김경희·강혜란·최희진(2017).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심재웅(2014).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청소년들의 미용성형수술 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성학회지. 제1호 제3권. 87-98.
- 안상수·김혜숙·안미영(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2호. 39-66.
- 윤해진·문성철(2010).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콘텐츠 소비: 지상파 장르선 호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5호. 325-369.
- 이명신·이훈구(1997). “주관적 삶의 질에 나타난 성차의 원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권 제1호. 89-101.
- 이숙정·오재림(2010).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유효성,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 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제1호. 7-39.
- 이신혜(2011).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의 젠더담론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장덕진(2019.9.9.).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젠더 간 혐오는 한국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이 뿌리””.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3573673> 에서 2020.1.17. 인출.
- 장윤재·이은주(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3권 4호. 50-7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KWDI Brief. 제50호.
- 홍기원·전방지·차경호(2001). “남녀의 평등의식,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2호. 173-188.

- Arendt, F. (2010). Cultivation effects of a newspaper on reality estimates and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2(4). 147-159
- Barreto, M., Ellemers, N., Cihangir, S., Stroebe, K. (2008). The self-fulfilling effects of contemporary sexism. In M. Barreto, M. Ryan, & M. Schmitt (Eds), *The glass ceiling in the 21st century*(pp. 99-12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cker, J. C., & Wright, S. C. (2011). Yet another dark side of chival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62-77.
- Bjørnskov, C., Dreher, A., & Fischer, J. A. (2007). *On gender ine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No. 657). SSE/EFI Working Paper Series in Economics and Finance. The Economic Resesarch Institute. Stockholm.
- Casad, B. J., Salazar, M. M., & Macina, V. (2015). The real versus the idea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9(1). 119-129.
- Colella, A., & King, E. (Eds.). (2018). *The Oxford handbook of workplace discrimina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onnelly, K., & Heesacker, M. (2012). Why is benevolent sexism appeal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6(4). 432-443.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isinga, R., Te Grotenhuis, M., & Pelzer, B. (2013). The reliability of a two-item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4). 637-642.
- England, P. (Ed.). (1993). *Theory on gender*. New York, NY: Transaction Publishers.
- Gerbner, G., Gross, L., Morgan, M., Signorielli, N., & Shanahan, J. (2002). Growing up with television.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pp. 43-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 television. In J. Bryant & D. Zillman.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 17-4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19-135.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Griffin, E. (2012).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New York. NY: McGraw-Hill.
- Hammond, M. D., & Sibley, C. G. (2011). Why are benevolent sexists happier?. *Sex Roles*. 65(5-6). 332.
- Hammond, M. D., & Overall, N. C. (2013). When relationships do not live up to benevolent ideal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3). 212-223.
- Hawkins, R. P., & Pingree, S. (1981). Uniform messages and habitual view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7(4). 291-301.
- Hofstede, G., & Hofstede, G. J. (2017. 2. 26). VSM 2013. <http://geerthofstede.com/research-and-vsm/vsm-2013/>에서 2017.2.26. 인출.
- Jones, K., Stewart, K., King, E., Botsford Morgan, W., Gilrane, V., & Hylton, K. (2014). Negative consequence of benevolent sexism on efficacy and performance. *Gender in Management*. 29(3). 171-189.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 Morgan, M., Shanahan, J., & Signorielli, N. (2015). Yesterday's new cultivation, tomorrow.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8(5). 674-699.

- Moya, M., Exposito, F., & Casado, P. (1999). *Women's reactions to hostile and benevolent sexist situations*. In 22nd General Meeting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Oxford, England.
- Napier, J. L., Thorisdottir, H., & Jost, J. T. (2010). The joy of sexism?. *Sex Roles*. 62(7-8). 405-419.
- Rollero, C. (2013). Men and women facing objectification. *Revista de Psicologia Social*. 28(3). 373-382.
- Romer, D., Jamieson, K. H., & Aday, S. (2003).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88-104. doi:10.1111/j.1460-2466.2003.tb03007.x.
- Rudman, L. A., & Heppen, J. B. (2003). Implicit romantic fantasies and women's interest in personal pow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357-1370.
- Sanchez, D. T., Fetterolf, J. C., & Rudman, L. A. (2012). Eroticizing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ex Research*. 49(2-3). 168-183.
- Segrin, C., & Nabi, R. L. (2002). Does television viewing cultivate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marriage?. *Journal of Communication*. 52(2). 247-263.
- Colella, A.J. & King, E. B. (2018). *Organizational remedies for discrimination*. *The Oxford handbook of workplace discrimina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D. (2006). Virtual cultiv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6(1). 69-87.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Usage by Media and Programme Types, Attitudes of Ambivalent Sexism, and Subjective Well-Being

Yeji Kwon*·Yuri Ch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usage by media and programme types on discrimination attitudes as ambivalent sexism which is more likely to be overlooked than hostile sexism, and how the attitudes affect individuals' subjective well-being by considering gender effec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male and female adults aged 20 to 29 (N = 330) in Seoul.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of media usage on these factors(benevolent sexism, competitive differentiation, hostile heterosexuality) varied according to media type. As a result of studying the effects of usage of programme by genres, the more the amount of usage of reality TV competition or music performances or comedy programme was, the stronger ambivalent sexism attitudes was strongly suggested. However,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cultivation effects even in the same media and programme by genre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gender influence of ambivalent sexism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individuals, only the positive effect of benevolent sexism was found to be significant.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at help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maintaining sexism.

Keywords : Ambivalent sexism, Media usage, Programme by genre, Subjective well-being, Cultivation effect

* Research fellow,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 Corresponding Author : Principal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Media and Culture at the Sogang University

부모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

주익현**·채철균***

초 록

본 연구는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남성 청소년 집단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어떤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이 여성 청소년 집단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국가승인통계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 자료를 실증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부모의 신체활동, 특히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릴수록,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어울릴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가구소득 및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는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는 어머니의 신체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는 어머니의 신체활동을 거쳐 간접적으로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신체활동이 가장 저조한 인구집단인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개인 수준이 아닌 부모와 또래 집단 즉 사회적 관계 수준에서 찾아보았다는데 있다. 실천적 함의로는 향후 건강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부모의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신체활동, 청소년 건강, 부모 모방, 또래집단, 생활시간조사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4955)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SSK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연구센터」연구교수
(ihjoo798@naver.com)

*** 공동저자 :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chai@kw.ac.kr)

I. 서론

매일 규칙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신체활동을 하는 행위가 개인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개선시킨다는 가설은 다수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왔다. 이를테면 피어쉬와 그의 동료들(Piercy et al, 2018)은 신체활동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감정과 정신 건강,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80%가 신체활동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해스켈과 그의 동료들(Haskell, Blair, & Hill, 2009)은 신체활동이 수명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보고하면서 경제적·사회적·의학적으로 소외된 인구집단에 대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힐즈·덴젤·루반(Hills, Dengel, & Lubans, 2015)은 청소년 인구 집단에 대해서 신체활동이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이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저연령 계층일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두드러지게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 교육이 학업 성취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손채원·양대승(2019)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신체활동과 대사 증후군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 관계가 성립함을 보고하였으며, 문우진(2019)이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청소년들의 충분한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수준을 개선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즉, 다수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소외계층이나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연구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형성된 신체활동 습관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elder et al, 1994; Loprinzi et al, 2012). 따라서 보건 정책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나간다면 향후 국가차원에서 의료비용을 줄이고 전 국민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Carlson et al, 2015).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최창욱 외(2018)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총 9,060명을 설문 조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3.5%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

은 절반을 약간 넘는 54.0%정도였으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고등학생이 34.9%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24.0%), 초등학생(8.7%) 순서로 낮아졌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학업부담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염재현·강수진·김영호(2017)도 한국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권장량에 미달하며 이는 과도한 학업량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기현·장근영(2010) 역시 한국 청소년의 주당 공부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34시간에 비해 15시간 많은 약 49시간인 것으로 보고하면서 과도한 학습시간이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김미현(2012)은 한국 청소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신체활동량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녀 모두 ‘학업부담으로 인해서 신체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지만 ‘신체활동으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의 7배 이상이었다. 실제로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시간은 남성 청소년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다. 집단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신체활동 시간량은 평일 기준 여성은 7.8분, 남성은 20.2분이다. 그런데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여성은 16.2분, 남성은 19.2분으로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시간량의 격차가 거의 사라지며, 4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의 경우에도 여성은 27.7분, 남성은 30.4분으로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여성은 33.7분, 남성은 62.4분으로 다시 신체활동의 성별격차가 벌어진다. 즉, 여성의 신체활동 시간량이 남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은 청소년층과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성, 그 중에서도 생애 전체 지속되는 운동습관이 결정되는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적은 점에 주목해서 무엇이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 신체활동 시간량을 조사해서 제공하는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실증 분석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부모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절에서는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첫째, 부모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소득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또래 집단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연구문제를 각각 설정하도록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부모 효과

개인의 생애단계 중에서 청소년기의 건강행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생활습관이 형성되고, 이 생활습관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로는 운동, 수면, 식습관, 음주 및 흡연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pear & Kulbok, 2001; Santos, Ebrahim & Barros, 2007; Haraszti et al, 2014; Noble et al, 2015). 이 중에서 운동은 주로 1일 평균 운동시간량, 운동의 강도, 특정 기간 동안의 운동 횟수, 규칙적이고 장기적인 신체 활동 여부 등의 항목으로 주로 측정되며, 국내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항목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설명변수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왔다(박종길·김경원, 2012; 백승희, 2015).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들이 개인의 운동습관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한 탓에 가족구성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놓쳐왔다. 일찍이 뒤르케임이 개인은 사회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의 행위는 미시적으로는 동거하는 가구원들의 영향에, 거시적으로는 거주지역 주민들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일부 시도되었지만(김진석, 2012)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의 특성에 주목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박송근·유진, 2014).

해외 연구들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의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퓨멜러와 그의 동료들(Fuemmeler, Anderson & Masse, 2011)은 가속도계(accelerometers)를 직접 착용시켜 부모와 자녀의 신체활동을 직접 측정해서 부모의 신체활동과 자녀의 신체활동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보고하였다. 버지와 그의 동료들(Berge et al, 2013)은 남성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길수록 신체활동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이 백인이 아닌 인종 집단

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브라운과 그의 동료들(Brown et al, 2016)은 부모의 동기부여가 자녀들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고, 로데스와 림(Rhodes, & Lim, 2018)은 부모의 건강수준이 부모 본인과 자녀의 신체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건강수준이 양호할수록 부모 본인이 신체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로데스와 그의 동료들(Rhodes et al, 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신체활동의 종류별로 자녀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의 종류 중에서는 부모가 중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들의 신체활동이 증가하였다.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운동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의 이론적 설명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운동시간량이 늘어날수록 자녀의 운동시간량이 늘어난다는 부모 모방(parental modeling) 가설에 대한 것이다(Kalakanis et al, 2001; Welk, Wood & Morss, 2003; Mattocks et al, 2008).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결속의 정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자본 이론을 빌려와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 관계가 자녀가 건강한 행동들을 하도록 만든다는 가설이 있다(Trost et al, 2003; Duncan, Duncan & Strycker, 2005).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의 훈육 유형에 따라 자녀의 운동습관이 결정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상냥하게 대하는 경우와 엄하게 대하는 경우에 따라 자녀의 운동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Schmitz et al, 2002; Chen et al, 2008).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부모 모방 가설에 대한 것이었다(Madsen, McCulloch, & Crawford, 2009; Wright et al, 2010). 부모의 신체활동 시간량이 청소년의 운동시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이를 규범으로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습관으로 흡수해가기 때문일 수 있다(Anderssen & Wold, 1992). 또 부모가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자녀를 함께 데리고 가서 같이 신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체활동 시간량이 자녀의 신체활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Burdette, Whitaker, & Daniels, 2004).

그런데 여성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누구의 영향을 더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여성 청소년들은 주로 어머니를 모방하면서 자신의 성역할을 학습하는데 이 때 어머니의 신체

활동 또한 모방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할 모델이면서 자신의 보호자이고 자신과 정서적으로 가장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이를 본받아서 자신도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Robertson-Wilson et al, 2003; Vilhjalmsdottir & Kristjansdottir, 2003; Saunders et al, 2004; Dwyer et al, 2006; Eriksson, Nordqvist & Rasmussen, 2008; Schoeppe et al, 2016). 하지만 아버지의 신체활동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ah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각각 여성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연구문제 1).

2. 계층적, 관계적 요인들

앞서 언급한 부모효과 외에도 소득과 같은 사회계층적 요인과 또래집단과의 사회관계적 요인들을 개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을 보고해왔다. 김정현·정인경(2019)은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교 체육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조영현·박철형·윤소미(2019)이 오히려 중산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의 신체활동이 제일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저소득층은 무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직업활동을 하면서 신체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 고소득층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여가활동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가장 낮아진다. 앞선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의 신체활동이 자녀의 신체활동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중산층 가구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저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연구문제2).

한편 장사랑(2019)은 여성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신체활동이 저조해짐을 보고하였다. 또래집단의 효과는 해외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와트와 그의 동료들(Watt et al, 2014)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U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를 분석해서 결혼여부, 배우자의 인종, 친구들과의 우정 네트워크가 신체활동과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마크와 그의 동료들(Marks et al, 2015)은 또래 집단 효과는 동성 친구의 수와 강력

하게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모르시와 그의 동료들(Morrissey et al, 2015)은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며, 이 효과는 연령과 부(-)적인 방향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또래집단의 효과는 약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연구문제 3)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인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를 분석해서 10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청소년들의 운동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수준의 요인, 부모 수준의 요인, 가구 수준의 요인이 여성 청소년들의 운동시간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10세 이상의 가구원들의 시간사용을 행위별로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부모의 운동시간량과 여성 청소년의 운동시간량 사이의 통계적 관계의 유의미한 정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분석대상은 10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청소년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양부모 가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수는 1,191명이다. 분석은 응답자들을 주중 집단과 주말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실시되었다. 이는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활시간조사는 1인의 이틀 동안의 활동을 시간일지에 기록한다. 따라서 독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보통 응답 첫째 날이나 둘째 날만의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모든 조사일의 응답정보를 분석하는 대신 통계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표준오차 보정 옵션을 통해서 독립동일분포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모형의 견고성(robustness) 확인을 위해서 첫째 날 또는 둘째 날만의 응답 자료를 가지고서도 분석을 실시해보았으며 이 경우에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부모 밑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의 구조가 다수준(multilevel) 분석이 가능한 형태를 가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서

다수준 분석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개인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구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각 변수들의 코딩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수준의 변수들로는 연령, 교육수준, 학습시간량, 여가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 1자녀 가구 여부, 부모-자녀관계, 친구 관계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연령은 개인의 만 나이를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미만 1점, 초등학교 졸업 2점, 중학교 졸업에 3점을 부여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범주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학습시간량, 신체활동을 제외한 여가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은 시간(hour) 단위로 코딩해서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형제 수는 대부분의 경우 형제가 없거나 1인이었기 때문에 사례 수를 고려해서 범주형 변수인 '1자녀 가구 여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자녀의 관계의 정도나 부모의 훈육 유형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항목은 아쉽게도 생활시간조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한 여가활동 시간량을 '부모-자녀 관계'의 대리(proxy) 변수로 삼는다. 부모-자녀가 함께 활동하는 정도는 기존 연구들(Demo, 1992; Jacobs, 2004)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질적인 측면에서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친구 관계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한 여가시간으로 코딩하였다.

부모의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유급노동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 여가시간량, 운동시간량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연령은 개인의 만 나이를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미만 1점, 초등학교 졸업 2점, 중학교 졸업에 3점, 고등학교 졸업에 4점, 2년제 대학교 졸업에 5점, 4년제 대학교 졸업에 6점, 석사 졸업에 7점, 박사졸업에 8점을 부여하여 서열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직업은 고위전문직, 사무판매퍼비스직, 1차산업관련직, 단순조립기능직, 무직으로 코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유급노동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 여가시간량, 운동시간량은 시간(hour) 단위로 코딩되었으며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가구변수로는 가구총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총소득은 부모의 개인소득의 합한 다음 자연로그를 씌워서 +1을 초과하는 왜도를 보정한 값을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의 개인소득은 50만원 단위로 조사되어 있는데 각 응답치의 중간 값을 변수 값으로 입력하였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75만원으로 코딩하였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참조(소득구간별 평균 소득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평균소득이 717만 4,626원임)해서 720만원으로 코딩하였다. 만약에 중산층 가구의 여성 청소년

이 신체활동이 가장 저조한 집단이라면 가구소득은 부(-)적으로 그리고 가구소득의 제곱항은 정(+)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는 가구소득 중에서 어머니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코딩하였다.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어머니의 소득이 아버지보다 크고, 반대로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아버지의 소득이 어머니보다 크다. 이상 상기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여성 청소년과 부모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개인	연령		13.6	2.4	10.0	1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재학	(27.8)			
		중학교 재학	(38.7)			
		고등학교 재학	(33.5)			
	공교육시간량(hour)		3.7	3.6	0.0	13.2
	사교육시간량(hour)		2.6	2.4	0.0	13.2
	무급가사노동시간량(hour)		0.4	0.8	0.0	6.5
	여가시간량(hour)		4.0	2.6	0.0	14.5
	운동시간량(hour)		0.2	0.5	0.0	7.7
	1인 자녀 여부	비해당	(62.7)			
		해당	(37.3)			
	부모 자녀 관계		0.7	1.2	0.0	8.5
	친구 관계		1.4	1.6	0.0	11.3
아버지	연령		45.4	4.4	32.0	65.0
	교육수준		4.9	1.1	2.0	8.0
		고위전문직	(18.0)			
		사무판매서비스직	(41.9)			
	직업	1차산업관련직	(2.6)			
		단순조립기능직	(35.4)			
		무직	(2.1)			
	유급노동시간량(hour)		5.5	3.8	0.0	15.8
	무급가사노동시간량(hour)		0.7	1.1	0.0	8.7
	여가시간량(hour)		3.6	2.3	0.0	13.0
	운동시간량(hour)		0.6	1.2	0.0	13.8
어머니	연령		42.6	4.0	30.0	59.0
	교육수준		4.7	1.0	1.0	8.0
		고위전문직	(18.0)			
		사무판매서비스직	(32.3)			
	직업	1차산업관련직	(1.2)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단순조립기능직				(11.5)			
무직				(37.0)			
	유급노동시간량(hour)			2.7	3.4	0.0	13.2
	무급가사노동시간량(hour)			4.4	2.3	0.0	13.8
	여가시간량(hour)			3.5	2.1	0.0	13.5
	운동시간량(hour)			0.4	0.9	0.0	9.5
가구	부모합계소득(만원)			475.5	221.8	25.0	1440.0
	조사요일	주중		(60.1)			
		주말		(39.9)			

※ () : 범주형 변수 항목별 비율

IV. 연구 결과

다음 <표2>는 10대 초중고 재학 여성 청소년을 평일 집단과 주말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에 운동시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음 개인과 부모의 어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시간사용이 운동시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우선 연구문제 1과 관련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자녀인 여성 청소년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평일 여성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068시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p < .001$). 한편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033시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p < .01$).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회귀계수값을 살펴보면 어머니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는 .142이고 아버지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가 .083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체활동의 효과가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주말 여성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190시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p < .001$). 한편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060시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p < .05$).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회귀계수값을 살펴보면 어머니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는 .259이고 아버지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가 .11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말 여성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체활동의 효과가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구문제1 결과 해석).

그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는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설명은 가구소득이 신체활동의 시간량이 아니라 신체활동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가구소득이 부모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신체활동이 자녀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대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연구문제2 결과 해석).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 또래집단의 효과를 비표준회귀계수 값을 통해서 살펴보면 평일 여성 청소년 집단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신체활동 시간이 .077시간씩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1$).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221이었는데 이 값은 어머니의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값인 .142보다 큰 값이다. 따라서 평일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또래집단 효과 > 어머니 모방효과 > 아버지 모방 효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말 여성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신체활동 시간이 .061시간씩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171이었는데 이 값은 어머니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값인 .259보다 작고 아버지 신체활동 표준회귀계수값인 .116보다 크다. 따라서 주말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어머니 모방효과 > 또래집단 효과 > 아버지 모방 효과임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3 결과 해석).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활동은 모두 여성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신체활동의 효과가 더 크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 소득은 여성 청소년 신체활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구문제 3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시간량은 증가한다. 평일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주말에는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가장 효과가 강하였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우선 평일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공교육, 사교육, 가사노동, 신체활동을 제외한 여가시간이 있었다. 이것은 시간사용이 제로섬 계

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Robinson, 1996). 여가의 종류를 매체 사용이나 인터넷 게임 등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기도록 한다. 이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는 요인들로는 여성 청소년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유급노동시간량과 여가시간량이었다. 여성 청소년들은 초등학생과 비교해서 고등학생일 때 신체활동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38, p<.05$). 어머니의 유급노동시간이 1시간씩 늘어날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019 시간씩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다($p<.01$). 그리고 어머니의 여가시간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014시간씩 증가하였다.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어머니 유급노동시간의 표준회귀계수는 .189이고, 여가시간의 표준회귀계수는 .081로 유급노동시간의 효과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주말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개인의 시간사용인 공교육, 사교육, 가사노동, 신체활동을 제외하면 여성 청소년의 교육수준, 부모-자녀 관계, 아버지의 여가시간이었다. 초등학생과 비교해서 중학생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신체활동이 줄어들었다($B=-.159, p<.05$). 또 고등학생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약한 수준($p<.1$)에서 신체수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일과는 정반대의 현상인데 교급이 올라갈수록 주말에 주중에 밀린 학업을 수행하느라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날수록 신체활동이 .083시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것은 표준회귀계수값을 살펴보면 .171로 친구관계 요인의 효과크기와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여가시간이 1시간씩 늘어날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022시간씩 감소한다($p<.05$). 표준회귀계수의 값은 -.073으로 주말 여자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효과의 크기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추정 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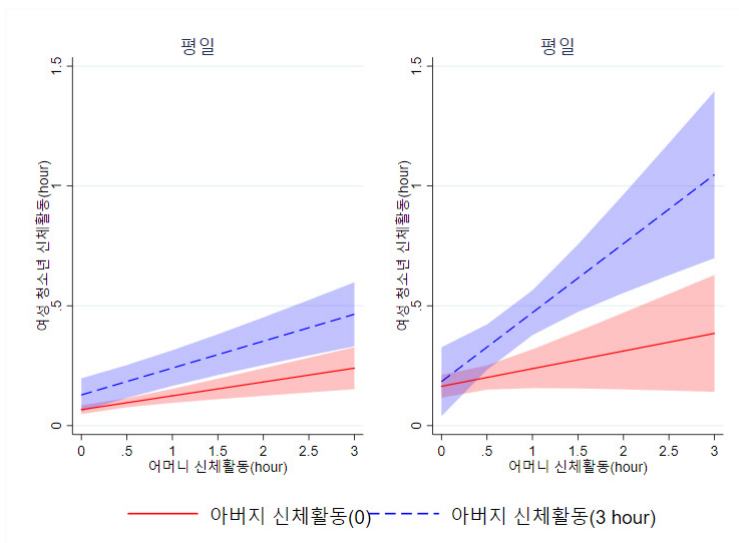
		평일 여성 청소년			주말 여성 청소년		
		B	SE	BETA	B	SE	BETA
가구	가구소득	.401	.275	.536	.454	.359	.303
	가구소득 ²	-.034	.023	-.543	-.041	.032	-.324
	어머니 소득기여도	-.077	.068	-.048	.222	.144	.063
개인	연령	.004	.010	.026	.024	.018	.075
	교육수준(ref=초등학교 재학)						

		평일 여성 청소년			주말 여성 청소년		
		B	SE	BETA	B	SE	BETA
	중학교 재학	.046	.032	.063	-.159 *	.077	-.106
	고등학교 재학	.138 *	.058	.187	-.198	.116	-.125
	공교육	-.062 ***	.014	-.489	-.100 ***	.017	-.180
	사교육	-.060 ***	.013	-.310	-.091 ***	.015	-.375
	가사노동	-.055 *	.025	-.072	-.158 ***	.029	-.210
	여가	-.068 ***	.018	-.379	-.126 ***	.019	-.431
	독자	.038	.019	.052	-.000	.044	-.000
	부모-자녀관계	.023	.021	.040	.083 ***	.021	.171
	친구 관계	.077 ***	.021	.221	.061 ***	.016	.171
아버지	연령	.001	.003	.017	-.004	.009	-.027
	교육수준	-.005	.011	-.016	.001	.024	.001
	직업(ref=고위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001	.023	.001	-.081	.064	-.054
	1차산업관련직	-.113	.059	-.055	-.222	.180	-.041
	단순조립기능직	.017	.028	.024	-.033	.070	-.021
	무직	-.019	.088	-.008	-.141	.143	-.025
	유급노동	.003	.005	.023	.000	.008	.002
	가사노동	.006	.011	.014	.015	.018	.028
	여가시간	.016	.008	.074	-.022 *	.011	-.073
	신체활동	.033 **	.011	.083	.060 *	.025	.116
어머니	연령	-.002	.004	-.025	.007	.008	.037
	교육수준	.004	.011	.011	-.006	.028	-.008
	직업(ref=고위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027	.027	-.035	-.011	.063	-.007
	1차산업관련직	.040	.104	.014	.582	.523	.062
	단순조립기능직	-.057	.040	-.053	.011	.088	.005
	무직	-.005	.037	-.007	.068	.068	.045
	유급노동	.019 **	.007	.189	.021	.014	.068
	가사노동	.004	.006	.025	.011	.014	.033
	여가시간	.014 *	.007	.081	.009	.014	.026
	신체활동	.068 ***	.015	.142	.190 ***	.045	.259
Constant		-.744	.873		-.509	1.097	

	평일 여성 청소년			주말 여성 청소년		
	B	SE	BETA	B	SE	BETA
Observations	1,431			951		
R-squared	16.5%			33.3%		
Adjusted R-squared	14.5%			30.9%		

* $p < .05$ ** $p < .01$ *** $p < .001$

앞서 <표1>을 통해서 아버지의 운동시간량과 어머니의 운동시간량을 표준 회귀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운동시간량 효과가 아버지 운동시간량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평일 여성 청소년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운동이 어머니 운동효과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평일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 운동의 비표준회귀계수는 .020($p < .05$), 어머니 운동의 비표준회귀계수는 .058($p < .001$),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회귀계수는 .018($p < .05$)이었다. 이를 시각화 한 것이 다음 [그림 1]이다. 주말 여성 청소년 집단에서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 아버지 신체활동의 조절효과

V. 결론

본 연구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평일 집단과 주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신체활동,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활동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신체활동 효과라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쪽의 효과만 살펴봐서 두 효과를 비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비교하였는데 평일과 주말 집단에서 모두 어머니의 신체활동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어머니의 신체활동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평일 여성 청소년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어머니의 신체활동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어떤 신체활동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에 따라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가설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의 관계 또한 분석하였는데 두 요인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평일의 경우 또래 집단의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는 반면에 주말의 경우에는 또래 집단과 부모-자녀 관계의 효과가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와 부모-자녀의 관계를 함께 한 시간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 역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함께 했는지에 따라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향후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뜻밖에도 기존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해왔던 가구소득에 따른 신체활동의 격차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첫번째 가능한 설명은 가구소득이 신체활동의 시간량이 아니라 신체활동의 종류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김수정·이명진·최셋별(2014)은 문화자본 이론을 가져와서 계급 간의 구별짓기를 위해 신체활동의 종류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남중웅(2014)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라 신체활동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가능한 설명으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가구소득기여도가 어머니 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자녀인 여성 청소년에게 미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머니의 신체활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평일 집단에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신체활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약한 수준($p < .1$) 수준에서 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중산층이 신체활동이 가장 저조할 수 있다는 이론적 고찰과 맥락을 함께 한다. 한편 어머니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신체활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 -.652, p < .001$). 이것은 어머니가 가계를 담당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가용시간 자원이 빈약해짐으로써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사후적으로나마 조심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말 집단에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검증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신체활동의 종류, 더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세부적인 신체활동이 요구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고, 또는 가구소득이 부모를 거쳐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함으로써, 후자의 경우라면 구조방정식과 같은 보다 고급 통계 기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본 연구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신체활동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개인의 건강 행위가 주변 인물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사실은 사회적 관계 속에 개인의 건강 행위가 배태되어 있음을 드러내어 준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건학과 사회학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일 것이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로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보건 정책은 보호자, 특히 어머니들의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지역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과 심리적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매체환경이나 여가활동의 세부 분류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운동

은 일반적인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이뤄지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이동을 포함해서 신체활동에 적합한 실외 환경을 요구한다. 어머니와 딸, 즉 여성들의 운동시간이 남성들보다 짧은 이유는 부족한 체육시설과 접근성, 그리고 낮 시간대에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밤 시간대에 안심하고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과 ‘젠더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 때문일 수 있다 (Gordon-Larsen, McMurray, & Popkin, 2000; Foster & Giles-Corti, 2008; Koshoedo et al, 2015; Hanson, Cross, & Jones, 2016; Perez et al, 2017).

또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심리적 요인들의 효과를 다루지 못하였다. 심리적 요인들 또한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문영희(2007)는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특성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들은 ‘시간부족’ 때문에 신체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김은성 외(2018)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해외 연구 중에서는 윌슨과 디쉬맨(Wilson & Dishman, 2015)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외향적, 신경증적, 양심적, 개방적, 호의적으로 분류한 다음 외향적, 양심적, 개방적인 성격이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신경증적 성격은 신체활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 환경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여성친화 내지는 여성 안전도시에서의 여성들의 신체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타 지역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인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요인,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 부모와 가구 요인, 매체환경과 지역적 요인을 아우르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장근영(2010). 2009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미현(2012). “한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 주관적 체형 인지 및 체중 조절 행동 조사 연구: 제 6 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22권 6호. 720-733.
- 김수정·이명진·최섯별(2014). “구별짓기 장 (場) 으로서의 스포츠 영역에 관한 연구: 스포츠 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 운동장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7권 3호. 53-77.
- 김은성·안현균·최나영·서은철(2018). “청소년의 자아심리변수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분류집단에 따른 신체활동 수준과 수면시간의 차이”. 한국엘니스학회지. 제13권 2호. 329-339.
- 김정현·정인경(2019).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과 비만도 및 건강인지의 관련성”.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AJPESS). 제7권 1호. 1-18.
- 김진석(2012). “청소년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요인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제37권. 165-185.
- 남중웅(2014). “스포츠현상에서 표출되는 문화자본의 유형.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제22권 4호. 117-132.
- 문영희(2007). “청소년의 신체활동 및 운동 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1권 1호. 75-84.
- 문우진(2019). “청소년의 대사증후군과 식생활,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관련성 연구-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0권 6호. 158-168.
- 박송근·유진(2014). “청소년들의 운동의도와 행동: 자기효능감과 부모지지에 대한 매개 및 조절효과의 통합적 모형”.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5권 3호. 29-44.
- 박중길·김경원(2012). “청소년의 성별, 학년, 신체질량지수, 성격특성에 따른 신체활동 수준”. 운동학 학술지. 제14권 22호. 37-47.
- 백승희(2015).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 실태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4권 5호. 1437-1446.
- 손채원·양대승(2019). “중년의 신체활동 참여여부 및 형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

- 협요인의 차이: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7 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4호. 967-984.
- 염재현·강수진·김영호(2017).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와 사회심리적 변인의 관련성”. *운동학 학술지*. 제19권 4호. 37-46.
- 장사랑(2019).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건강행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영현·박철형·윤소미(2019). “성인 남성의 신체활동 예측 요인과 만성질환 발생 위험도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4권 2호. 529-540.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문지혜(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nderssen, N., & Wold, B. (1992).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in young adolescen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3(4). 341-348.
- Berge, J. M., Wall, M., Larson, N., Loth, K. A., & Neumark-Sztainer, D. (2013). Family functioning: associations with weight status, eating behaviors, and physical activ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2(3). 351-357
- Brown, H. E., Atkin, A. J., Panter, J., Wong, G., Chinapaw, M. J., & Van Sluijs, E. M. F. (2016). Family-based interventions to increase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realist synthesis. *Obesity reviews*. 17(4). 345-360.
- Burdette, H. L., Whitaker, R. C., & Daniels, S. R. (2004). Parental report of outdoor playtime as a measure of physical activity in preschool-aged children.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8(4). 353-357.
- Carlson, S. A., Fulton, J. E., Pratt, M., Yang, Z., & Adams, E. K. (2015). Inadequate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ca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s*. 57(4). 315-323.
- Chen, J. L., Unnithan, V., Kennedy, C., & Yeh, C. H. (2008). Correlates of physical fitness and activity in Taiwanese children.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5(1). 81-88.

- Demo, D. H. (1992). Parent-child relations: Assessing recent chan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4-117.
- Duncan, S. C., Duncan, T. E., & Strycker, L. A. (2005). Sources and types of social support in youth physical activity. *Health psychology*. 24(1). 3.
- Dwyer, J. J., Allison, K. R., Goldenberg, E. R., & Fein, A. J. (2006). Adolescent Girls' Perceived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Adolescence*. 41(161). 75.
- Eriksson, M., Nordqvist, T., & Rasmussen, F. (2008). Associations between parents' and 12-year-old children's sport and vigorous activity: the role of self-esteem and athletic competence.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5(3). 359-373.
- Foster, S., & Giles-Corti, B. (2008). The built environment, neighborhood crime and constrained physical activity: an exploration of inconsistent findings. *Preventive medicine*. 47(3). 241-251.
- Fuemmeler, B. F., Anderson, C. B., & Masse, L. C. (2011). Parent-child relationship of directly measured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8(1), 17.
- Gordon-Larsen, P., McMurray, R. G., & Popkin, B. M. (2000). Determinants of adolescent physical activity and inactivity patterns. *Pediatrics*. 105(6). e83-e83.
- Hanson, S., Cross, J., & Jones, A. (2016). Promoting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s in communities with poor health and socio-economic profiles: A process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a new walking group scheme. *Social Science & Medicine*. 169. 77-85.
- Haraszti, R. A., Purebl, G., Salavecz, G., Poole, L., Dockray, S., & Steptoe, A. (2014). Morningness-eveningness interferes with perceived health, physical activity, diet and stress levels in working women: A cross-sectional study. *Chronobiology international*. 31(7). 829-837.
- Haskell, W. L., Blair, S. N., & Hill, J. O. (2009). Physical activity: health outcomes and importance for public health policy. *Preventive medicine*. 49(4). 280-282.

- Hills, A. P., Dengel, D. R., & Lubans, D. R. (2015). Supporting public health priorities: recommendations for physical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promotion in schools.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s*. 57(4). 368-374.
- Jacobs, K. (2004). Parent and child together time. *Handbook of family literacy*. 193-212.
- Kahn, J. A., Huang, B., Gillman, M. W., Field, A. E., Austin, S. B., Colditz, G. A., & Frazier, A. L. (2008).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in U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2(4). 369-377.
- Kalakanis, L. E., Goldfield, G. S., Paluch, R. A., & Epstein, L. H. (2001). Parental activity as a determinant of activity level and patterns of activity in obese childre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2(3). 202-209.
- Kelder, S. H., Perry, C. L., Klepp, K. I., & Lytle, L. L. (1994). Longitudinal tracking of adolescent smoking, physical activity, and food choice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7). 1121-1126.
- Koshoedo, S. A., Paul-Ebhohimhen, V. A., Jepson, R. G., & Watson, M. C. (2015). Understanding the complex interplay of barriers to physical activity amongst black and minority ethnic groups in the United Kingdom: a qualitative synthesis using meta-ethnography. *BMC public health*. 15(1). 643.
- Loprinzi, P. D., Cardinal, B. J., Loprinzi, K. L., & Lee, H. (2012). Benefits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Obesity Facts*. 5(4). 597-610.
- Madsen, K. A., McCulloch, C. E., & Crawford, P. B. (2009). Parent modeling: perceptions of parents' physical activity predict girls' activity throughout adolescence. *The Journal of pediatrics*. 154(2). 278-283.
- Marks, J., de la Haye, K., Barnett, L. M., & Allender, S. (2015). Friendship network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PloS one*. 10(12).

- Mattocks, C., Ness, A., Deere, K., Tilling, K., Leary, S., Blair, S. N., & Riddoch, C. (2008). Early life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in 11 to 12 year olds: cohort study. *Bmj*. 336(7634). 26-29.
- Morrissey, J. L., Janz, K. F., Letuchy, E. M., Francis, S. L., & Levy, S. M. (2015). The effect of family and friend support on physical activity through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2(1). 103.
- Noble, N., Paul, C., Turon, H., & Oldmeadow, C. (2015). Which modifiable health risk behaviours are related? A systematic review of the clustering of Smoking, Nutrition, Alcohol and Physical activity ('SNAP') health risk factors. *Preventive medicine*. 81. 16-41.
- Perez, L. G., Conway, T. L., Arredondo, E. M., Elder, J. P., Kerr, J., McKenzie, T. L., & Sallis, J. F. (2017). Where and when adolescents are physically activ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psychosocial correlates and their interactions. *Preventive medicine*. 105. 337-344.
- Piercy, K. L., Troiano, R. P., Ballard, R. M., Carlson, S. A., Fulton, J. E., Galuska, D. A., & Olson, R. D. (2018). The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for Americans. *Jama*. 320(19). 2020-2028.
- Rhodes, R. E., & Lim, C. (2018). Promoting parent and child physical activity together: elicitation of potential intervention targets and preferences. *Health Education & Behavior*. 45(1). 112-123.
- Rhodes, R. E., Blanchard, C. M., Quinlan, A., Naylor, P. J., & Warburton, D. E. (2019). Family physical activity planning and child physical activity outcomes: A randomized trial.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7(2). 135-144.
- Robinson, J. P. (1996). Time, housework, and the rest of lif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7(3-4). 213-229.
- Robertson-Wilson, J., Baker, J., Derbyshire, E., & Cote, J. (2003). Childhood physical activity involvement in active and inactive female adults. *Avante-Ontario*. 9(1). 1-8.
- Santos, A. C., Ebrahim, S., & Barros, H. (2007). Alcohol intake,

- smoking, sleeping hours, physical activity and the metabolic syndrome. *Preventive medicine*. 44(4). 328-334.
- Saunders, R. P., Motl, R. W., Dowda, M., Dishman, R. K., & Pate, R. R. (2004). Comparison of social variables for understanding physical activity in adolescent girls.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8(5). 426-436.
- Schmitz, K. H., Lytle, L. A., Phillips, G. A., Murray, D. M., Birnbaum, A. S., & Kubik, M. Y. (2002). Psychosocial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leisure habits in young adolescents: the Teens Eating for Energy and Nutrition at School study. *Preventive medicine*. 34(2). 266-278.
- Schoeppe, S., Robl, M., Liersch, S., Krauth, C., & Walter, U. (2016). Mothers and fathers both matter: the positive influence of parental physical activity modeling on children's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Pediatric exercise science*. 28(3). 466-472.
- Spear, H. J., & Kulbok, P. A. (2001). Adolescent health behaviors and related factors: a review. *Public health nursing*. 18(2). 82-93.
- Trost, S. G., Sallis, J. F., Pate, R. R., Freedson, P. S., Taylor, W. C., & Dowda, M. (2003). Evaluating a model of parental influence on youth physical activ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5(4). 277-282.
- Vilhjalmsson, R., & Kristjansdottir, G. (2003).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activity in olde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central role of organized sport.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363-374.
- Watt, R. G., Heilmann, A., Sabbah, W., Newton, T., Chandola, T., Aida, J., & Tsakos, G. (201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among older US adults. *BMC public health*. 14(1). 533.
- Welk, G. J., Wood, K., & Morss, G. (2003). Parental influences on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An exploration of potential mechanisms. *Pediatric Exercise Science*. 15(1). 19-33.
- Wilson, K. E., & Dishman, R. K. (2015). Personality and physical activ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2. 230-242.

Wright, M. S., Wilson, D. K., Griffin, S., & Evans, A. (2010). A qualitative study of parental modeling and social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in underserved adolescents. *Health Education Research.* 25(2). 224-232.

Abstract

Parent physical activity effects on their children physical activity

Ik Hyun Joo*·Choul-Gyun Chai**

This article shows that South Korean female adolescence physical activity is too low to be healthy. Then, the research purpose is searching what factors have effects on female adolescence physic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TUS data analysis, there are three interesting information. First of all, parent physical activity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daughter physical activity. Second, peer group effect and parent-their children effect increase female teenager physical activity. Third, household income level does not have relationship with female adolescence physical activity, but there is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mother physical activity. To sum up, there is not direct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level and female adolescence physical activity, but there is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s paper's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personal health behavior is strongly influenced by other people including parents. Substantive implication is to emphasize that policy maker should formulate policy to increase parent physical activity for increasing adolescence health level.

Keywords : physical activity, adolescence health, parent modeling, peer group, Korean time use survey

* Corresponding Author : Research Professor, SSK 「Mental Health & Communal Society」

** Co-Author : Professor, Kwangwoon University